만화 창업주 열전
두산그룹편 | 연강 박두병 〈22면〉

DOOSAN

# 이투데이

LIG for Tomorrow
LIG 손해보험

【週刊】 자매지 인터넷 경제신문

www.e-today.co.kr

3월 22일(월요일) 제191호


■기업들 사명 바꾸기 바람 한창

## 새 사업은 새 간판 걸고 한다

STX엔파코→STX메탈, 사업확장 후 주력사업부분 이미지 부각
일부 중소기업, 과거 경영 오점 덮기 위한 단순한 새 간판 내걸기도

기업들이 최근 간판을 바꿔달고 있다.

회사 이름은 핵심사업의 성격과 가치, 미래를 드러내는 얼굴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환경을 맞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사명으로는 이미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이미지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과거 회사경영상의 '오점'을 덮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X엔파코는 회사명을 STX메탈로 변경한다. 사명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회사명인 STX엔파코(STX Enpaco)는 엔진부품에 중점을 둔 Engine Parts Company의 이니셜을 이용해 지은 이름이다. 최근 사업확장을 통해 영위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친환경 모듈 등을 포괄하긴 어려웠다.

이에 금속소재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 혼을 담겠다는 뜻을 내포한 STX메탈(STX Metal)로 간판을 새롭게 달게 됐다.

한화석유화학도 사명을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한 '한화케미칼'로 바꿨으며 동양석판도 종합코팅기업(Total Coatings Company)의 약자를 사용한 TCC동양으로 변경했다.

OCI(옛 동양제철화학)는 창립 50년이 되던 지난 해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을 준비하며 그 해 4월에 사명을 현재와 같이 바꿨다.

롯데그룹 석유화학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도 곧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화학섬유업체 도레이새한은 다음달 23일 창립 40주년 기념일에 맞춰 새 사명과 기업통합이미지(CI), 새 비전 등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업다각화에 따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 주가 조작 의혹 등 시장에서 소위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사명 변경을 통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코리아본뱅크, BRN사이언스, 더체인지, KB오토시스 4개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기업들이다.

BRN사이언스, AD모터스, 에이치비이에너지, 코리 아본뱅크, 더체인지, 쓰리디월드, 리홈 등 7개사는 감자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BRN싸이언스, 더체인지, 코리아본뱅크, KB오토시스 등은 사명 변경 전에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기업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사명 변경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의 경우 소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아산의 뜻을 잊지 말자"** 지난 21일 고(故)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9주기(21일)를 맞아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이 지난 19일 울산 본사 사내 체육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 6월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스요금, 7월 원가연동제 적용…전기요금 2분기에 인상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7월에 반영되는 원가연동제로 가격이 인상되고 전기요금은 2분기에 인상 수준을 검토, 하반기내로 가격이 오른다.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가와 인상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7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원가연동제가 3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여름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7월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하반기에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인상폭 둔화 차원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면 두 자리수 이상의 인상이 단행되어야 하지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실시와 더불어 종전까지 최종소비자 유형에 따라 산업용, 일반용, 주거용 등 용도별로 나뉘어 판매되던 전기요금을 내년가지 전압별 요금제로 변경하게 된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현재 산업 용도로 쓰이고 있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두 자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단계별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4% 수준의 요금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4~5% 수준의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etoday.kr*

## 은행권 주총 막 올랐다

우리 · 하나銀, 회장-의장 분리 여부 관심

시중은행들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개막된다.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오는 24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라응찬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수를 종전 12명에서 8명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KB · 우리 ·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은 모두 26일 열린다.

이날 KB금융은 사외이사 의장을 새로 선임하고 우리 · 하나금융은 CEO-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를 확정한다.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은 오는 30일 주총을 연다. 이 중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라 회장과 더불어 나란히 4연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은 3월말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 주식에 상장되지 않아 관련 사업보고서가 금감원이 아닌 은행연합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지난 19일 주총을 끝냈으며 이 중 전북은행은 김한 후보를 차기 행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제주은행 역시 이날 주총에서 황산진 이사를 선임을 공시하고 히사마쯔 겐조, 최병옥 고성효 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고승익 이사는 재선임됐다.

또 부산은행은 26일 주총을 개최한다. 한편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3면〉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 게임 '뮤' 신화 이수영 사장 컴백

2년만에 개발사 설립 온라인 게임 개발

온라인게임 뮤를 개발한 웹젠의 창립자로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이수영 사장(46 · 사진)이 게임업계로 복귀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젠을 떠나 설립한 이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게임과 포털 두 마리 토끼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던 이수영 사장이 약 2년만에 서울 역삼동 부근에서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며 컴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원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며 한때 한국 여성 10대 부호로까지 알려졌던 이 사장은 발레리나에서 방송리포터, 마케팅 담당자에서 게임업체 CEO로까지 화려한 변신을 모색해왔다.

세종대 무용학과에서 발레리나를 꿈꿨던 이수영 사장은 졸업 후 미국 뉴욕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도전에 나섰다.

2000년 웹젠을 설립하며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게임업계에 뛰어든 이 사장은 3D 온라인게임 '뮤'를 출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려 당시 엔씨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 양대 게임업체 자리에 올랐다.

뮤의 성공에 힘입어 웹젠은 국내 게임업체 최초로 2003년 5월 코스닥 상장에 이어 같은 해 12월 나스닥에 진출했다.

웹젠 주식 8.7%를 보유했던 이수영 사장은 500억원대 갑부로 등극했으며,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성 CEO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2004년 미국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딛고 최연소로 뉴욕시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임용돼 화제가 됐던 정범진 씨와 결혼해 사랑을 중시하는 로맨티스트로 꼽히기도 했다.

그 후 함께 창업했던 경영진 및 주주들과의 마찰로 인해 웹젠을 떠나 이젠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수영 사장은 우주닷컴과 게임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였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포털을 표방했던 우주닷컴은 서비스 초반 많은 스포츠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포털 사업을 접고 약 2년만에 게임업계로 복귀를 노리고 있는 이수영 사장이 개발중인 게임은 뮤와 같은 장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것으로 알려져 제 2의 뮤 대박 신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민관 기자
*smk@etoday.kr*

주간 증시전망

## 코스피 1700선 부담…박스권

4월 실적장세 기대감은 여전…외인 관심주 주목

이번 주 증시는 등락폭이 제한된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 4월 실적 장세에 진입하면서 주 후반들어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준금리 완화 기조와 중국의 긴축 우려감 감소 등 국내 증시 상승을 제한하던 악재들이 희석돼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국내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던 미국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낸 데 따른 기술적 부담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오는 25~26일로 예정된 유로정상회담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 코스피지수가 1700선에 다가갈수록 펀드 환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코스피 1700선 이상에서는 상당 분량의 환매 대기중인 매물이 존재하고, 이 매물대에서 30~40% 만 시장에 흘러 나와도 매도 물량이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지표들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다소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에 주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 LG, 로봇청소기시장서 삼성 반격

연 1천억 시장…남성들에게도 인기 확산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LG전자와 아이로봇사가 반격에 나서면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로봇청소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탱고'의 온라인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면서 삼성의 독주체제를 갖추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관계자는 "로봇청소기 판매량이 신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삼성 하우젠 VC-RA84V(탱고)를 제외하곤 신제품들이 점유율을 꿰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LG전자는 카메라가 2개 달린 5세대 로봇청소기 '로보킹 듀얼아이'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품은 천장과 벽면을 촬영하는 상부 카메라 외에 유사 제품군 가운데 처음으로 바닥 촬영용 카메라가 장착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MBC방송의 인기시트콤에서 로보킹 듀얼아이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로봇청소기에 대한 관심이 맞벌이 주부와 싱글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 Inside

기획 신임 김중수 한은 총재 4면
집중 취재 위기의 건설업계 5면
지배구조 신한금융지주 21면
지상IR 이크레더블 23면

■예보 단독조사권 부여

# 금융위 – 금감원 힘겨루기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은 예보가 부실화 조짐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보법 21조에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명시된 만큼 단독조사권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부실 규모에 대해 제한하는 등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4월 초 최종 결정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이 현재 저축은행만 2조4000억원의 손실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저축은행의 사례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예보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금감원과 예보의 업무협약(MOU) 위배이며 금감원의 감독 노하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예보의 사전적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면 중복검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조사권이 예보로 넘어가면 금감원은 제재조치만 하는 금융유관기관으로만 남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감독하라고 있는 금감원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검사 노하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kr

# 테마株 열풍에 정부 부처 전화 '북새통'

## 정부 정책 발표후 사실 확인 전화로 업무마비 지경

주식시장에 테마주 열풍이 불자 지식경제부, 식품안전의약청 등 정부 부처 전화통에 불이 나고 있다.

각종 테마주들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 부처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주들을 비롯해 와이브로, 철도, 바이오, 스마트폰, 대북송전 등과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경부의 한 사무관은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테마주들이 정부 부처의 정책과 맞물려 형성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전화가 오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거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할일도 태산인지라 이러한 전화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지어는 국회 보좌관에게까지 전화를 거는 투자자들도 있다. 관련 업종의 해당 상임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임위 통과 여부 등을 직접 묻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자 A모씨는 "최근 테마주들은 정부 부처의 정책에 맞춰 형성되고 있어 테마와 관련된 작은 소문에도 해당 부처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다"며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패턴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모씨는 "해당 부처의 담당자와 통화하기 어렵지만,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담당 사무관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알아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 용적률 상향에 서울 재개발 속도

## 2만 가구 추가건립 가능…부동산 침체로 거래는 뜸해

서울시가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2 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의 계획용적률 20% 상향되면 약 2만2000가구가 추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용적률 상향이 되는 만큼 일반가구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익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적다며 용적률 상향을 주장을 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차질을 빚기도 했다.

재개발 부동산 업계는 이 때문에 이번 용적률 20%상향 조치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여서 당장은 매수문의나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관리처분 신청 중인 양천구 신정4구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용적률 상향 조치는 분명히 좋은 재료인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수요자들이 호재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사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 펀드 판매보수 인하로 증권사 '타격'

## 상위사 중심 순영업수익 감소 커…업계 지위 다툼 격화 전망

금융위원회의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조치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주식형펀드의 판매 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등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커서, 판매보수 인하분을 반영하면 1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순영업수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은 지난 18일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보수가 펀드 재산의 1% 내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인하대상 펀드 및 인하방식, 인하 수준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간 자율적 협의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펀드는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주식형 공모펀드로 해외형·주식형 모두 포함된다.

펀드별로 일정 비율씩 인하하는 정률식과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체감식(CDSC) 방식이 있으며, 시행시기는 판매사가 정률식을 선택할 경우 5월3일부터, 체감식을 선택할 경우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걸쳐 9월6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기존 주식형펀드 판매금액은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이 13조9950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8530억원, 삼성증권 4조8690억원, 동양종금증권 3조4950억원, 우리투자증권 1조5350억원, 대우증권 1조4940억원, 현대증권 1조80억원, 대신증권 5240억원, 키움증권 1050억원 등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0년 1월말 기준 주식형 펀드의 총비용은 2.06%이며, 이중 총보수비용은 2.004%로 운용보수는 0.752%, 판매보수는 1.233% 수준이다. 판매수수료는 선취수수료가 0.99%이며, 후취수수료는 0.55% 수준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1년간 순영업수익 감소분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증권사 순대로 각각 85억원, 48억원, 35억원10억원, 7억원, 4억원, 2억원 등의 순영업수익 감소가 예상됐다.

순영업수익 대비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비중은 미래에셋증권이 30.6%, 한국투자증권이 15.2%, 삼성증권이 10.3%, 동양종금증권이 8%이다.

김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존 펀드들의 판매보수 상한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권사들의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펀드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판매보수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수익증권취급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드 판매보수 상한 인사로 증권사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 보수가 인하되면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울 수 밖에 없어 펀드 판매에 따른 경쟁은 가열될 것이고, 마케팅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연구원은 "특히 마진 감소 상위사를 보면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삼성, 동양종금, 우리투자증권 등 상위사들로, 이러한 점에서 상위사의 지위 다툼 등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 기존 펀드 판매가 가장 많은 당사로서는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직 특별히 얘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이성태 한은 총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월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첫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의 참석자들과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암행검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 이후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테리쇼핑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스테리쇼핑 실시방법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저축은행 영업점에 내방, 직접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후순위 채권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 후 기명날인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할 계획도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l@hanmail.net)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kr
대표이사·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서성환 인쇄인 고광헌 편집국장 김종현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태양빌딩 9F
대표전화 : (02)784-1002 팩스 : (02)784-1003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10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99
구독료 : 1부 1500원, 한달 6000원
증권부 (02)799-2615 산업부 (02)799-2620 금융부 (02)799-2625
건설부동산부 (02)799-2630 국제부 (02)799-2635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경제부 (02)799-2645 엔터테이먼트부 (02)799-2650 사진부 (02)799-2655

KAIST 특허청 ATOVISION Atomedi
골퍼들의 신종플루 예방법
골프용품전용 살균세정제 그립제로
국내유일100% 천연성분으로
간편하게 살균하세요!
무자극/무알콜/무화학성분/무색소의 살균수
한국의 먹는 물 기준 관리법에 의한 기준항목(47항목, 58항목)을 통과
환경수도연구소시험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시험에서 모두합격
나노실버세라믹볼의 강력한 살균효과
나노실버세라믹볼과 72시간활성화작업을 거친 강력한 살균수 그립제로는
나노실버세라믹볼(특허번호 한국:제0377776호)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능성 세라믹체로서
물속의 병원성세균만 선택적살균, 인체에 유익또는 무해한 균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의 특허와 미국환경청에 등록된 품질
그립제로는 미국/유럽/일본/중국/국내에 특허등록 및 미국환경청(US EPA)에 등록된 제품으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곳에라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A Registered 75126-2)
세균제로에는 그립제로 GRIP ZERO
신종플루예방 | 간편한사용 | 안전한살균소독
제품명 : 아토메디 그립제로
구 성 : 그립제로 150ml 15,000원
제조원 : 주식회사 퓨어웰 02)518-5436
판매원 : 주식회사 아토비젼 02)557-0167
살균하려는 골프용품에 간편하게 뿌려주세요!
세균이 의심되는 모든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용품대여시 간편하게 뿌려주세요!
뿌리고 1분안에 99.9% 세균제로효과! (폐렴균/대장균 등)
USGA R&A 공식인정구
KAIST ATOMIST GAMMA-RAY
비거리 최대20% 증가
카이스트와 공동개발한 똑똑한 골프볼
아토미스트
아토미스트 골프볼은
골프볼에 감마선(GAMMA-RAY)을 조사하여 분자구조를 일정하게
정렬시키는 원자력과학이 적용된 골프볼입니다.
20%이상의 비거리 증가효과
탄성의 증가로 가벼운 타격감제공
파워가 약한 여성과 장년층 골퍼들에게 추천합니다!
가까운 이마트매장이나,
인터넷검색으로 아토미스트를 만나보세요!
그립제로 세정제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단체로고볼 및 선물용패키지 주문상담받습니다.
02)557-0167

# 기업들 왜 사명변경 나설까

## '이미지 쇄신' Vs. '문제점 희석 수단'

한화케미칼, STX메탈, 동양TCC…. 최근 새롭게 사명을 바꾼 기업들이다.

기업들간에 간판 바꾸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회사 이름이 핵심 사업의 성격과 가치, 미래를 드러내는 얼굴이지만 기존의 회사 이름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문제기업들은 감자·유상증자·순손실·BW발행 실패 등의 전력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름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사명으로는 기업의 신사업과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12월부터 사명변경 작업을 해온 STX엔파코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STX메탈(STX Metal)'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

그동안 엔진부품에 중점을 둔 'Engine Parts Company'의 이니셜을 이용해 지은 이름을 사용했지만 조선기자재는 물론 친환경 특화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본격화하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송우익 사장은 "2001년 출범 이후 사업규모와 영역이 급속히 커졌고, 그에 따라 급변하는 마케팅 시장에 부응할 사명을 모색해 왔다"며 "회사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사명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태양전지 사업, 2차전지 재료(양극재) 등 신에너지 사업에 나선 한화석유화학도 사명을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한 '한화케미칼'로 바꿨다.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이란 이름으로는 추진사업을 대변하기 어려워서다.

롯데그룹의 석유화학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의 사명변경도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범식 사장은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초안이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동양제철화학이 OCI로, 동양석판은 동양TCC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안좋았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람제약이 우회상장하면서 사명을 BRN사이언스로 바꾼 ICM은 과거 바이오디젤업체 BDK 인수를 전후해서 급등했고 휴대폰 모듈업체인 트레이스 지분 인수를 기점으로 급락했다.

BRN사이언스 관계자는 "트레이스의 경우, 신규사업은 진행하지 않으나 지분은 보유중으로 현재 트레이스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DK는 지난해 매출 200억원, 순익 2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으나 사업발표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합병을 진행해오던 대형 단조프레스 HBE가 원전 수혜로 떠오르면서 급등했다.

하지만 3월4일 HBE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피인수기업인 HBE의 재무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더체인지로 사명을 변경한 김종학프로덕션은 지난해 6월23일 수소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증권가는 에너지관련 테마가 형성됐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밝혀지지 않아 더체인지의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당시 주가는 급락했다.

회사의 끼워맞추기식 사업 발표에 이를 보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자금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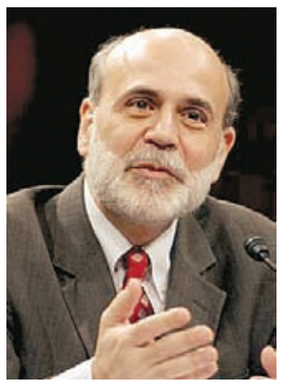
안경주·이채용·고종민 기자
*ahnkj@e-today.co.kr*

| 변경 전 사명 | 변경일 | 변경 후 사명 |
|---|---|---|
| STX엔파코㈜ | 2010-03-26(예정) | STX메탈㈜ |
| 동양석판㈜ | 2010-03-19 | 동양TCC㈜ |
| 한화석유화학㈜ | 2010-03-19 | 한화케미칼 ㈜ |
| ㈜아이씨엠 | 2010-03-18 | 비알엔사이언스㈜ |
| ㈜엑스콘 | 2010-03-08 | ㈜에이디모터스 |
|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 2010-02-22 | ㈜에이치비이에너지 |
| 동아회원권그룹㈜ | 2010-02-22 | ㈜코리아본뱅크 |
| ㈜김종학프로덕션 | 2010-02-17 | ㈜더 체인지 |
| 포스데이타㈜ | 2010-02-16 | ㈜포스코아이씨티 |
| 코크렙십오호 | 2010-02-12 | 코크렙15호 |
| ㈜DM테크놀로지 | 2010-02-09 | ㈜쓰리디월드 |

| 변경 전 사명 | 변경일 | 변경 후 사명 |
|---|---|---|
| KOLON INDUSTRIES INC | 2010-02-01 | KOLON CORPORATION |
| 케이씨코트렐㈜ | 2010-01-29 | 케이씨그린홀딩스㈜ |
| 조선선재㈜ | 2010-01-27 | CS 홀딩스㈜ |
| ㈜솔믹스 | 2010-01-22 | 에스케이씨 솔믹스㈜ |
| UNO&COMPANY, Ltd | 2010-01-21 | UNO&COMPANY ,LTD |
| ㈜펜타마이크로 | 2010-01-15 | ㈜네이쳐글로벌 |
| ㈜부방테크론 | 2010-01-14 | ㈜리홈 |
| ㈜이엠따블유안테나 | 2010-01-12 | ㈜이엠따블유 |
| 신천개발㈜ | 2010-01-07 | ㈜씨앤에스자산관리 |
| 동해펄프㈜ | 2010-01-04 | 무림피앤피㈜ |
| ㈜한국베랄 | 2010-01-04 | KB오토시스㈜ |

# 美 연준, 버냉키 선물 이어질까

## 당분간 금리동결…재할인율 인상 유력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버냉키 의장·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연준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연방기금목표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판단을 상향했다.

FOMC 위원들은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기업 지출이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우려할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금리 지속 방침을 밝히면서 물가 역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관건은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출구전략의 정도다. 연준은 1조25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광의적인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위기 이후 추진했던 경기부양 정책들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출구전략의 길을 넓혀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가 아닌 재할인율의 인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18일 금융시장에는 재할인율 기습 인상 루머가 퍼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페럴리 JP모간체이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정 시점에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오늘이 될지, 다음주 또는 다음달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할인율 인상 루머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며 출구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연준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할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 인상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연준 이사를 지낸 로렌스 메이어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 부회장은 "조만간 추가적인 재할인율 인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통화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벤'으로 불리며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됐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요즘이다.

민태성 기자
*tsmin@e-today.co.kr*

## ■은행권 주총 이슈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 강정원 KB금융 회장대행

# 우리금융 이팔성 회장 행보 주목
# 신임 이사회 의장도 누가될까 관심

시중은행들의 이번 주총에서 최대 안건은 CEO연임과 이사회 의장 분리 가능성 여부다. 또 이사회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예정대로 선임될지 등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청와대가 오는 23일 김중수 한은총재 내정자 선임에 대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차기 총재 선임이 무난하게 끝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중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가 되고, 다른 한쪽에선 '견제'가 아니라 '군림'을 하는 양쪽의 극단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규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사회 의장을 금융지주 회장들이 함께 겸임하면서 경영 특성에 맞는 안건을 마련했는데 분리를 할 경우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는 이사회 의장 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이사회 의장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중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전성빈 서강대 경영대학장 등이 의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유 회장 역시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 중 연장자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다음 연장자인 조정남 SK텔레콤 고문, 정해왕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등이 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하나지주가 SK그룹과 손을 잡고 하나SK카드를 출범시키는 등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해 조 고문의 우세를 점치기도 한다.

이미 회장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해온 KB지주는 이날 주총에서 차기 의장을 뽑는다. 앞서 KB지주는 지난 3일 조담 전 이사회 의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 후보 3명을 뽑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된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이 의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팔성 우리지주 회장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앞두고 이사회 멤버가 바뀔 경우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7명의 사외이사를 모두 연임키로 했다.

민영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했다는 것이 지주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지주는 이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되면 선임 사외이사를 뽑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여부도 확정한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대폭 손질된 사외이사들은 우리금융만 제외하고 대거 축소되거나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모두 반대여론 없이 선임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KB금융지주는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과, 고승의 숙명여대 교수,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임기가 만료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국제금융공사(IFC) 출신의 재무전문가인 로이 카라오그란(Roy A. Karaoglan), 남상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 후보 3명을 뽑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된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이 의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팔성 우리지주 회장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앞두고 이사회 멤버가 바뀔 경우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7명의 사외이사를 모두 연임키로 했다.

민영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했다는 것이 지주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지주는 이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되면 선임 사외이사를 뽑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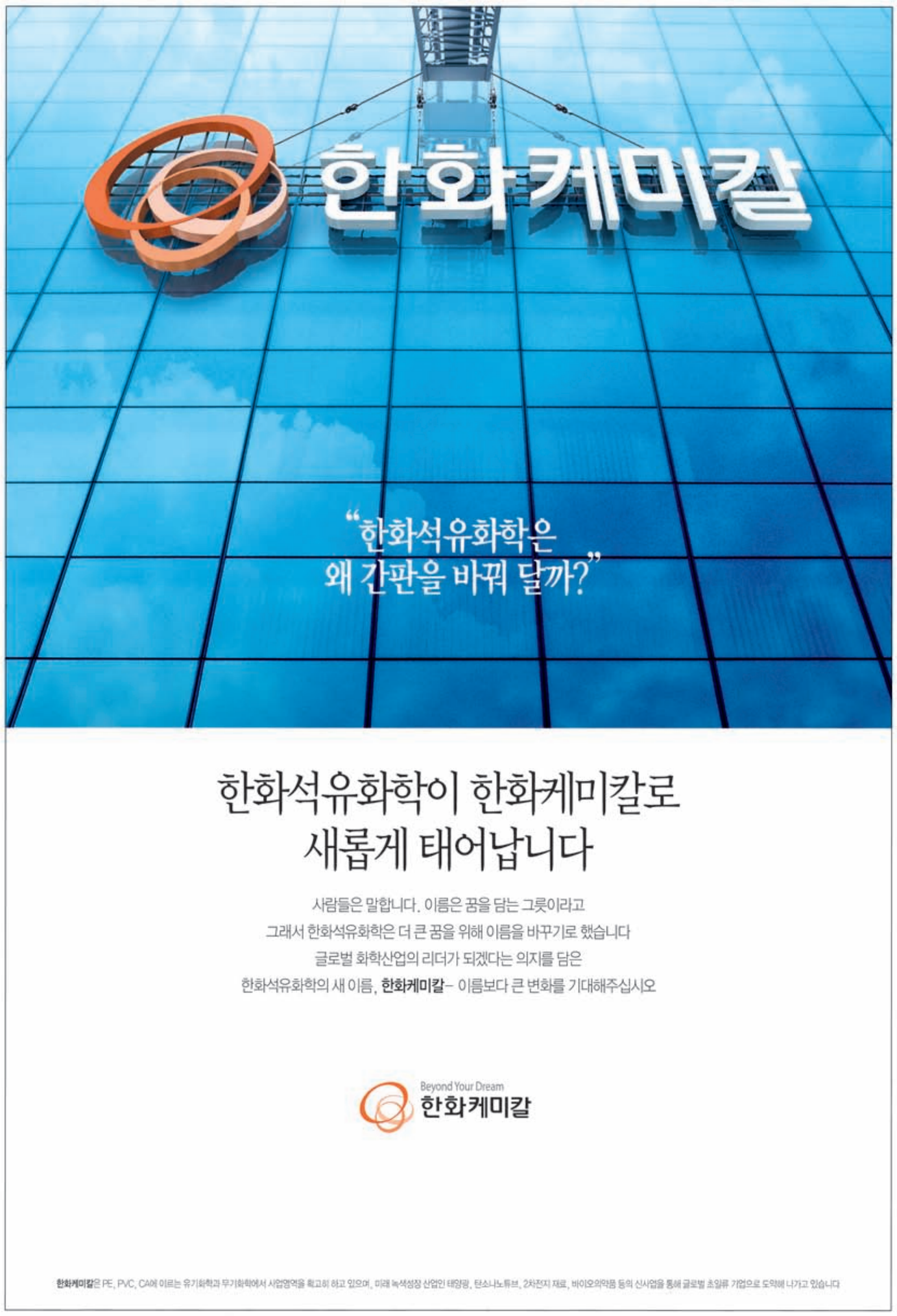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여부도 확정한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대폭 손질된 사외이사들은 우리금융만 제외하고 대거 축소되거나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모두 반대여론 없이 선임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KB금융지주는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과, 고승의 숙명여대 교수,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임기가 만료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국제금융공사(IFC) 출신의 재무전문가인 로이 카라오그란(Roy A. Karaoglan), 남상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 후보로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에 선임키로 했다. 임기 만료된 정해왕 전 금융연구원은 사외이사로 재 선임된다.

KB금융은 지난달 사외이사직 사의를 밝힌 조담·김한·변보경 이사를 대신할 신임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산하에 5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인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했다. 사추위는 이 자문단으로부터 1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 3일 3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KB금융 사외이사 추천자문단이 자문단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외이사 권력화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추천이나 동료추천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과는 별도로 후임 한은총재 선임도 이번 주에 확정된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새 한은총재 김중수…의미와 과제는

# “새장 속 매 가고 비둘기 날아들다”

“외신들은 비둘기와 매의 비유를 들며 김중수 내정자와 이성태 총재에 대해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 내정자에 대해 “비둘기가 ‘새장 속에 갇힌 매’를 대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후임 한은 총재 내정자로 선임됐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김 내정자가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고 OECD 대사로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대신 김 내정자를 선임 한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조율, 시장과 여론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고심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동안 MB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엔 환율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웠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선 금리수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는 물론 공개적으로 금리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자질 가운데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1순위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탁월한 글로벌 감각을 지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제금융 전공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거치면서 경제적 식견이 높은데다 OECD 대사를 지내면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을 쌓아 최근 글로벌 흐름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 각종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면서 G20 정상회의 준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한은의 독립성과 시장과의 소통, 출구전략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또 이성태 총재의 대한 시장의 신뢰가 두터워 적어도 이 총재와 비슷하거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최대 과제는 ‘한은 독립성’

김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는 한은 독립성이다.

‘인플레 파이터’로 불리며 한은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성태 총재의 후임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부담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후임 한은총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 한은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는 정부는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호 견제와 협조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무엇보다 먼저 독립과 자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공표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성태 총재는 4년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신뢰를 심어준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절제된 화법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받는다. 총재의 말 한마디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른바 ‘BOK 쇼크’ 사태가 이 총재 재임 때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헬리콥터, 수평선, 문고리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시장에 금통위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했다. 덕분에 시장으로부터 비유의 달인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이같은 시장과의 소통 노력은 김 내정자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2008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중수 주OECD 대사 등 신임 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 시장 반응 현재로선 긍정적

김 내정자가 선임될 때 시장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높았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어윤대 위원장이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어 위원장을 이미 선임하고 김 내정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과 긍정적이라는 반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국제금융전공 학자 출신으로 지금처럼 전 세계와의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에 탁월한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은의 개혁 필요성이나 국제사회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 “아직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와의 정책조율이 중요하다”며 “ 한은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조율, 국제공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김 내정자는 OECD 대사를 한 만큼 국제 공조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정부와의 공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도 한은 출신도 아니고 학자 출신이어서 균형감각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노조 역시 김 내정자에 대해 “굳이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비둘기와 매의 비유를 들며 김 내정자와 이 총재에 대해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중수 내정자에 대해 “비둘기가 ‘새장 속에 갇힌 매’를 대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둘기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김 내정자를, 새장 속에 갇힌 매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원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한 이성태 현 총재를 비유한 것이다.

FT는 김 내정자에 대해 “물러나는 이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비해 김 내정자는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둘기파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합리적 시장주의가 강점이자 약점**
**한은독립 · 출구전략 등 난제 산적**

한은 총재가 바뀌면서 이제는 금리인상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내정자가 정부와 정책조율 등을 강화하면서 실물경기 회복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최대의 관심사인 금리 인상 등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이성태 한은 총재와 정부가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수차례 엇갈린 시각을 보인 만큼 새 총재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직 미국과 유럽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만큼 세계경제 흐름을 보고 맞춰갈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김 내정자 역시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국가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중앙은행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제운영에서 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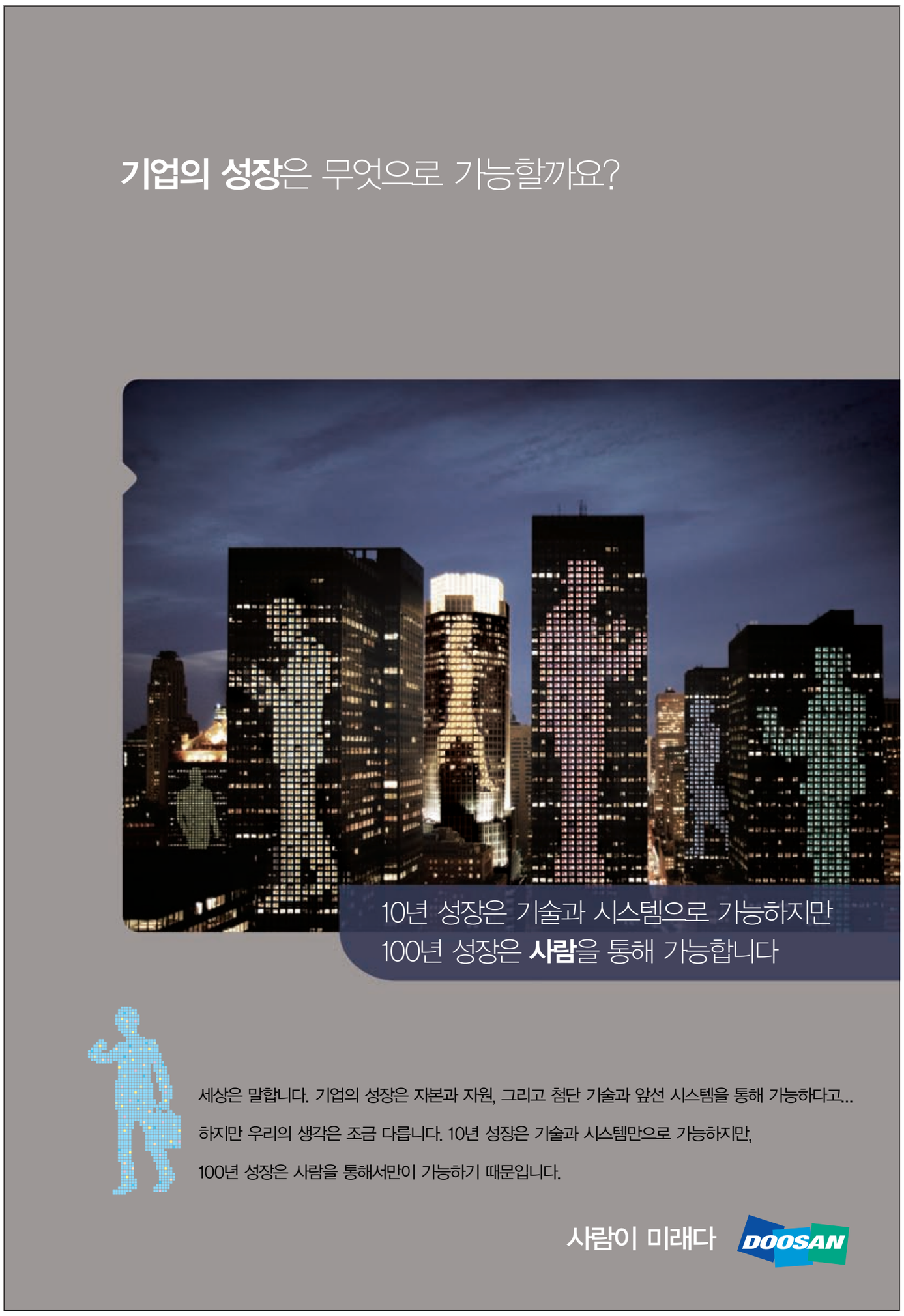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미국과 유럽 등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저금리 시대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김중수 새 총재 아래의 금통위는 소비와 투자가 충분히 회복되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상반기 내 힘들 듯

그는 또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매파적 발언도 자제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위협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형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앞으로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관점 대신 G20 등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의를 확대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하자는 관점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선진국 경기회복의 강도가 아직 미약, 경제정책을 철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
## KDI 직원 나이 · 주소 모두 기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부정책보다는 시장의 소통을 더 중시하고 대외개방 국제경제는 물론 조세와 거시경제를 두루 섭렵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국책연구소인 KDI의 연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연구위원과 연구조정실장, 원장 등을 거쳤으며 노동과 주택, 교육 등의 분야에도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KDI 원장으로 있을 당시 모든 직원들의 나이, 주소 등을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탁월하다.

문민정부 초기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지냈고, OECD 가입준비사무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협상 창구로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 OECD 담당 공사를 맡았다.

참여정부에서는 제11대 KDI 원장을 지내면서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주요 거시경제정책에 참여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 건 전 국무총리의 자문조직인 ‘미래와 경제’의 정책개발위원장으로도 한때 참여해 ‘10대 경제강국 정책과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한림대 총장에 재직 중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돼 ‘MB 노믹스’ 전도사로 나섰으나 지난 2008년 6월 이른바 ‘쇠고기 파동’에 따른 청와대 전면 개편으로 물러난 뒤 같은해 8월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발탁됐다.

정운찬 국무 총리과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경기고등학교 동문으로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리기도 했다. 부인 황주혜 씨와 사이에 딸 한명을 두고 있다.

**김중수**(63)

- 함흥 출신
-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준비 사무소장
- 초대 OECD 담당 공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한림대 총장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주 OECD 대사

위기의 부동산, 한국경제 뇌관 되나

# 중견 건설사 "밤새 안녕하십니까?"

## 정부규제→미분양속출→유동성 위기 '악순환'… 보금자리 확대도 악재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신도시 분양을 막론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높아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가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와 개포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등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물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인 향후 아파트값 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전국 25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주택시장지수는 71.7을 기록하며 3월 내내 100 아래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거래량지수, 매물량지수, 가격전망지수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가격전망지수 마저 100선이 붕괴되면서 주택시장지수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수세가 사라지고 소강 상태가 이어지자 호가를 낮추는 매도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북구 길음동 집터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도 많다. 그러나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멈춰있다"며 "하반기에 길음뉴타운 내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물적체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악구 봉천동 베스트공인 소장은 "일부 급한 매도자들이 1000만원 가량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어렵다"며 "매수 희망자들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다"고 말했다.

### 시장 악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와 불황으로 인한 주택구매수요 감소,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등 값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시킨 것이 부동산 침체를 하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에서는 40%,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각각 50%와 60%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 자료를 살펴보면 DTI 규제를 확대한 지난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매월 1조원 가량이 줄어들었고 올 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값싼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과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등의 공급으로 인해 민간 분양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업계에서 올 초 내놓은 3월에 신규로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는 1만7000여 가구로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량으로 집계됐었다. 하지만 위례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실시되면서 건설사들이 내놓은 신규분양 물량 대부분이 자취를 감췄다.

닥터아파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월 현재 민간건설사의 분양실적은 20%를 갓 넘을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일반 분양 기준으로 이달에 예정됐던 아파트 가운데 성동구 옥수동 조합아파트 금호어울림 54가구, 김포 한강신도시 Ab-블록 일신휴먼빌 803가구, 수원시 율전동 동문굿모닝힐 699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A59블록 성우오스타 331가구 등은 분양 일정이 모두 4월 이후로 연기됐다.

4월 분양예정물량 역시 지난 2007년 3만 8000여 가구가 공급된 이래 사상 최대 물량인 3만여 가구가 신규 분양될 것으로 예정됐었지만 분양 일정이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입지와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보금자리주택이 매매시장, 분양시장을 불문하고 부동산시장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시장이나 분양시장 회복세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과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값싼 아파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으로 수요자들이 이탈하는 등 악재가 산재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 건설사 유동성 심각

불황의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단순 침체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약한 중소 주택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금융권이 주택사업을 위해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을 재촉하고 있어 미분양을 많이 않고 있는 건설사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은 악성 미분양 적체로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3631가구, 지방 4만4838가구로 5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분양적체와 주택시장 침체가 극심한 지방의 경우 할인분양 등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소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건설사의 경우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돈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사업을 전담 처리하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물적 분할을 실시하는 건설사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몇십 가구씩 구매하면 30~50%정도 싸게 살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자금 회전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다. 성원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원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사업장에서 선수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주계약 등이 취소되면서 부도 위기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성원건설 말고도 4~5곳의 건설사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을 겪고 있어 향후 제2, 제3의 성원건설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대부분이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가장 큰 돈줄인 아파트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보유 재산을 매각 하는 등 유동성 확보 방안에 '올인' 하다 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만한 특별한 호재나 이슈가 없다.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침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대책은 있나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서 금융권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상한제 폐지,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 부활 등 정책적인 규제완화 뿐이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줄도산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 만한 재료가 정부의 규제완화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3개 단체가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아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금융규제 완화는 없다"며 LTV와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연장과 취등록세 감면은 연장키로 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양도세 연장 방안에 합의하면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지방에 대해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2009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에 분양되지 않았던 기존 물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홍성일 기자 *hsi@etoday.kr*

주택시장지수란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택경기를 나타낸 것으로 가격전망지수, 매수세지수, 거래량 지수, 물량지수로 구성돼 있다. 100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지수와 가격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전망이 우세한 것이고 100이하면 하락이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시장이나 분양시장 회복세는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 9일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시작된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첫날,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하려는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 저축은행-건설사 'PF 공포'

## 금융당국 전면조사 … 에버그린 중단 땐 유동성 타격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설'이 아닌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연체율 증가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 조사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PF대출 한도와 충당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2분기부터 저축은행의 경우 총 대출금 중 PF 대출규모를 30% 미만으로 유지토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험가중치를 120% 확대하거나 신용공여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가뜩이나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는 중소형 주택건설사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09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늘어난 것도 사업에 따른 PF대출 증가 보다는 에버그린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이 에버그린 대출을 중단할 경우 PF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에버그린은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위해 받게되는 PF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부터 다소 높은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미분양이 양산되면서 주택건설사들이 많이 사용했고 현재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에 에버그린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에버그린을 해주는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당장의 어려움을 에버그린으로 보완할 수 있겠으나 경기가 안좋아지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위기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자 주택사업을 하는 대다수 중소형 건설사들은 에버그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에버그린 대출을 중단한다면 가뜩이나 미분양 적체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건설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며 경영상황이 비교적 좋지 않은 건설사는 에버그린 중단으로 부도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PF대출이 증가한 것은 에버그린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사업성과 분양성이 양호한 신규 PF대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버그린 대출을 중단할 경우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홍설일 · 설경진 · 김현정 기자
*hsi@etoday.kr*

### 하나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하나은행은 옴니아폰에서 윈도우 모바일(Window Mobile) OS 기반이 가능한 '하나N Bank'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옴니아폰은 예금조회, 이체 등과 같은 은행 업무는 물론 '쿠폰 구매 서비스'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5월 16일까지 '하나N Bank 옴니아와 함께하는 1+1 이벤트'를 실시한다.

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쿠폰 구매시스템을 통해 이벤트 대상 쿠폰을 구매할 경우 동일한 쿠폰을 공짜로 한 장 더 받게 된다.

성승제 기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암행감찰

## 금감원, 문제점 발견 땐 즉각 시정조치 요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 이후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암행으로 영업행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테리쇼핑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스테리쇼핑 실시방법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저축은행 영업점에 내방, 직접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후순위 채권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 후 기명날인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할 계획도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후순위 특약조건과 예금자보호법 비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필수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 돈은 넘치는데 굴릴 데가 없으니…

# 은행, 자금운용 딜레마

은행들이 돈은 넘치는데 굴릴 데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금리 정기예금 등으로 시중자금을 빨아들였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은행들은 고육지책으로 전세대출이나 채권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별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2월 우리은행이 3412억원으로 전월보다 212억원 증가했으며, 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150억원 늘어난 3236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1542억(102억원) △하나은행 581억원(84억원) △기업은행 415억원(32억원) △농협 689억원(-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대출은 정부의 서민보호 정책과 부합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성격상 특정시기에만 몰리게 돼 넘치는 돈을 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채권투자의 경우 미스매칭(금리 불일치)이 발생해 은행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와 채권 투자 수익성 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 스마트폰에서 카드 조회 하세요

신한카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내역, 한도 등 각종 조회를 포함한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신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신한카드 고객은 이용 내용, 한도, 결제 예정금액, 이용대금 명세서, 포인트 등 기본적 조회서비스와 콜센터 상담과 소식지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 신한 오픈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신한카드 스마트폰 서비스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를 연다. 정답자 중 5명에게 뮤지컬 '번더플로어' 초대권과 100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5000점을 제공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와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김현정 기자 *khj@etoday.kr*

# 산업은행-대우건설 FI 평행선

## 대우건설 지분 매입 시점 이견…최악 땐 금호산업 상장폐지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출자전환 확약서에 대한 동의가 늦어지면서 금호산업이 자칫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과 FI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렸던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FI들의 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주 중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FI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출자전환 확약서 중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온 후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사 주겠다'는 문구이다.

FI들의 입장은 이 문구를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온 후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사주겠다'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현재 출자전환할 부분은 주당 3만2000원에 사주기로 했던 풋백옵션이다. 풋백옵션은 일종의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풀지 않고서는 산은 주도의 사모투자펀드(PEF)에 들어갈 수 없다.

FI들은 이 풋백옵션에 대해 금호석화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책임지면서 출자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3개 기업을 모두 넣은 출자전환 확약서에 동의를 할 경우, FI들은 3개 기업 중 워크아웃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대로 책임을 지고 금호산업의 채권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3개 기업의 워크아웃이 실패하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해주지 못할 경우, FI들은 대우건설 주식과 출자전환한 금호산업 채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FI들의 PEF에 동참한 몇몇 은행들은 산업은행이 3개 기업의 워크아웃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수 없다며 출자전환 확약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FI들이 이처럼 워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금호타이어의 노조 반발처럼 워크아웃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해주겠다는 100%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FI들과 무관한 3개 기업을 책임지면서 출자전환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출자전환 확약서의 문구를 고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대우건설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FI들이 산은을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I들은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금호산업의 상장폐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FI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무관한 3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책임지면서까지 출자전환하고 나서 만약에 산은이 3개 기업의 워크아웃에 실패했을 때 우리를 책임져줄 수 있느냐"며 "최악의 경우 예전 팬택의 경우처럼 상장폐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 3연임 · 국내 최장수 홍성주 행장 퇴임

## 2001년 4월 취임 9년간 전북은행 이끌어

국내 최장수 은행장인 홍성주(69) 전북은행장이 18일 퇴임했다. 홍 행장은 2001년 4월에 취임 3번 연거푸 연임에 성공, 9년 동안 전북은행을 이끌어왔다.

회갑의 나이에 은행장에 취임해 고희에 은행장을 그만두는 그는 재임 시절 은행을 위해 주말은 물론 개인 시간도 모두 반납하고 전북은행을 이끌었다.

당시 전북은행은 IMF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부실이 늘어 자본잠식 상태였다.

홍 행장은 이런 은행을 살리려고 서울과 전주 등을 수없이 오가는 등 밤늦게까지 발품을 팔았다.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을 맞추려고 금융계와 주주 등을 수없이 만났고, 은행도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경영했다. 맨 먼저 서울 등 수도권 점포 6개를 폐쇄하고 1개만 남겼다.

그는 또 철저한 실리경영을 했다.

당시 모든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신탁업무를 2001년 과감히 포기했다. 신탁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직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키코(KIKO)는 물론 각종 위험이 수반되는 파생상품은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도입한 '서브크레디트론'은 홍 행장의 경영철학이 가장 잘 배어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전북은행은 지난해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6% 111억원 증가한 52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8% 263억원이 늘어난 802억원을 달성하는 등 창사 40년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 10년 만에 부실은행이 중견은행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홍 행장은 "이 순간이 본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영예롭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9년이라는 세월은 잔잔한 감동과 큰 행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퇴임 후 전주에 정착하기 위해 최근 효자동 전주대학교 앞에 아파트를 샀으며 앞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내년 의무화

## 현재 0.05%~0.5%보다 상향…계약자는 영향 없어

다음 달 도입되기로 했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보험금 지급 준비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보증준비금 제도가 의무화된다.

보증준비금 제도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증시 하락 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업계와 함께 보증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단 시스템이 도입되는 보험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 한해 동안은 현재의 적립 방식과 변경될 적립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쓰이며 이 중 한 가지만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0.05~0.5%를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적립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에 민감한 변액보험의 속성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일수록 현재보다 높게 쌓이고 신상품일수록 낮게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증준비금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개별 보험사마다 판매비중과 시기가 다르므로 현재보다 더 낮게 적립되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실익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증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금이 더 많아지거나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는다"면서 "보험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1조원에 달하는 반면 보증수수료 적립금은 약 1.9%인 3857억원에 불과하다.

장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 방카슈랑스 수수료 은행 독식

## 전체 지급액 중 98% 차지…전년보다 5.8% 증가

지난해 보험회사가 지출한 방카슈랑스 수수료 중 98%가 은행권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한 117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중 은행에 지급한 대리점수수료는 총 618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92.6%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은 전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6283억원의 98.4%를 차지했다. 또 이중 생명보험이 4353억원, 손해보험이 1832억원으로 생보사가 대부분을 지급했다.

반면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수수료는 98억원(1.6%)으로 전체 수수료 비중이 2%도 안됐다. 특히 전년 510억원을 지급했던 생보가 8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료수익은 전년보다 12.0% 증가했으며 생보 9조 5780억원(80.8%), 손보 2조 2759억원(19.2%)으로 11조 853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가 은행을 통해 얻은 보험료수익은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11조5956억원을 기록했으며 대신 증권이 1725억원에서 255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 체결시 납입하는 초회보험료도 3조 5306억원으로 전년(3조 1492억원) 대비 12.1%(3814억원) 늘어났다.

이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3조 4436억원으로 전년(3조 587억원) 대비 12.6%(3849억원) 증가하는 등 판매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방카슈랑스 시장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등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와 보험가입강요(꺾기)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 "7월에 성과급 500% 지급하겠다"

## 현대해상 서태창 사장

현대해상 서태창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0년 매출 증가율은 10% 선으로 전년보다 내려가겠지만, 순이익은 1500억원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출액이 5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5% 증가했고 순이익은 1465억원으로 9.3% 늘어나면서 시장점유율도 17.0%로 뛰어올랐다. 또 2007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고 있으며 2009년 회계연도에도 이익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태창 사장은 "지난 5년간 4개 대형사 중에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아서 시장 점유율이 2004 회계연도 14.7%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로 상승했다"면서 "총자산은 2004년 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1월 말 10조7천738억원을 기록하며 10조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2009 회계연도에도 이익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올해 7월에는 성과급을 500%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에 대해 서 사장은 일본에 진출한지 약 35년 됐는데 3년 전부터야 겨우 이익이 난다며 해외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중국 시장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장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에 무담보 대출

새마을금고는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연리 4%로 3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 재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총 2000억원을 저리 대출하는 사업으로 등록, 무등록 구분없이 3개월이상 사업자면 1인당 300만원까지 3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주로 신용도 6등급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안부와 협의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etoday.kr*

# '요일제 차량 보험료 깎아 드려요'

4월부터 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보험제도가 변경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8.9% 할인되며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철회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합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장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 공적자금 훌훌…글로벌 생보사 훨훨

## 한화생명으로 사명 변경 초읽기…금융지주사 맏형 역할 기대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

상장 생명보험사 2호, 부실기업의 회생, 상장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시총 순위 29위 등이 앞으로 대한생명에 붙여질 수식어들이다.

대한생명은 설립 64년만에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공모가가 8200원으로 다소 낮게 결정됐지만 상장 첫날 시초가는 8700원을 기록하며 상장사로서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됐다.

대한생명은 상장 첫날보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점에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상장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향후 주가 상승여력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내부 직원들의 불안은 덜어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앞서 상장한 동양생명처럼 상장 후의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낮아졌다.

상장 첫날 대한생명은 공모가 8200원보다 650원 오른 88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폭발적인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체 거래량의 11% 수준인 6500만주가 넘게 거래, 전 종목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7조686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코스피 전체 시총 중에 0.8% 가량을 차지했다. 이날 직원들은 보안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틈틈이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주식 시장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생명 임직원은 "전체 시장 분위기도 좋고 주식도 올라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1년 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둘째 날은 전날에 비해 4.29% 하락한 8470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이번 상장으로 대한생명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생명은 상장을 통해 공적자금 부담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7월부터 2년에 걸쳐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 24.75%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증시에서 대한생명의 주식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라는 불명예를 벗고 독자경영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예보는 보유 주식 24.75%를 상장 6개월 이후부터 주식시장에서 팔아 회수할 수 있다. 이때 대한생명의 주가가 1만743원을 넘어야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상장을 계기로 잠시 보류했던 사명변경 작업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7년 만에 '한화생명'으로 사명변경을 추진했던 대한생명은 2대 주주인 예보의 반대로 변경 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예보가 대한생명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상장 후 사명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사명변경 작업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모그룹인 한화그룹은 금융지주로의 전환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대한생명은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과 함께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로 속해 있으며 한화가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아우르는 복합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리 기자
*healee81@e-today.co.kr*

## 해외보험 매출 1위 꿈꾸는 국내 생보 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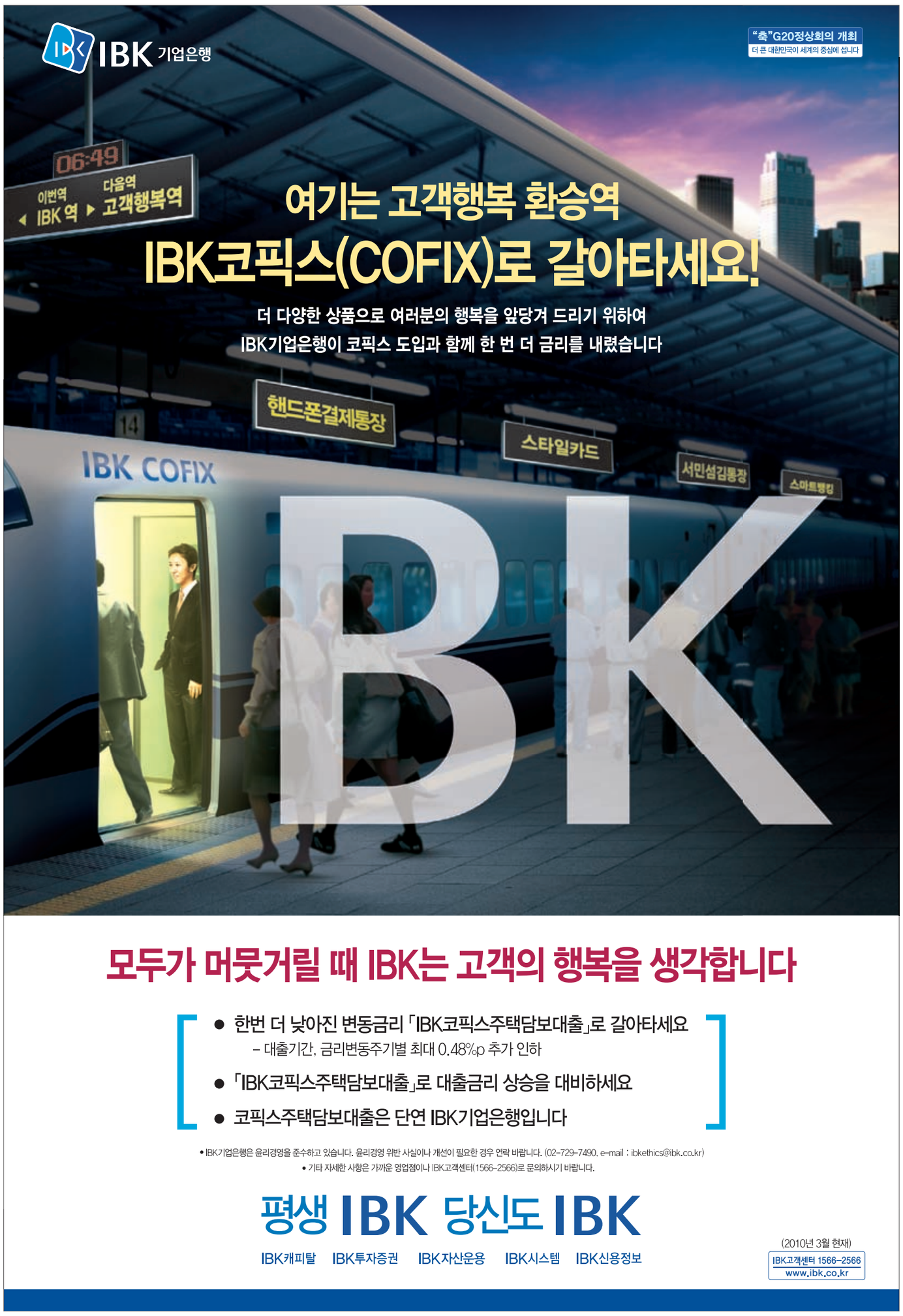
대한생명은 지난 1946년 미군청의 허가를 받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다. 86년 총자산 1조원, 96년엔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8년엔 50조원을 넘어서면서 브랜드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대한생명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56조 5000억원, 수입보험료 7조9662억, 당기순이익은 3439억원, 지급여력비율 228%를 기록하면서 삼성생명에 이어 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에 올라있다.

또한 지점 697개, 보험계약자 490만명, 설계사 2만133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CI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상장 이후 대한생명은 내실에 기반을 둔 조직, 업적, 효율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보장성보험 및 연금보험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영업조직 구축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보험 매출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에서의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중장기 수익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상승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제고로 기업신뢰도 상승과 영업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IPO 시장 과열…1년전을 기억하자

〈기업공개〉

## 코스닥 공모 열풍불자 뒷북 친 투자자 대량 손실

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IPO(기업공개)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상반기 IPO 시장의 과열 이후 뒤늦게 공모주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디지탈아리아의 공모 청약 최종 경쟁률이 897.4대 1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최고 경쟁률이다. 일반모집 물량 20만9290주에 대해 1억8781만6720주가 청약했다. 공모금액이 115억원에 불과했지만 청약 증거금이 1조329억9196만원 몰렸다. 최근 3년물 국고채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3% 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중수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차기 한은 총재로 내정되면서 금리인상 시점이 더욱 멀어질 것이란 전망에 금리는 연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도 제로수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힌 점도 금리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스팩(SPAC)과 대한생명 등의 상장으로 시장의 관심이 IPO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최근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IPO 열풍이 분 뒤 쓴 맛을 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해 두 배 이상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코스닥 공모시장에 열풍이 불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3개 기업 가운데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된 기업이 모두 22개로 전체 새내기주의 66.7%가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초 신규 상장된 중국식품포장과 네오피델리티,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상장 후 연일 상한가 행진을 보이자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엔 물량이 워낙 작다보니 공모주 청약에서 물량을 잡지 못한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줄 서서 '사자' 주문표를 작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티플랙스의 경우 공모주청약의 최종경쟁률이 1247:1, 뉴그리드테크놀로지는 공모주 청약의 최종 경쟁률이 1061.76 대 1을 기록했다.

서울마린 공모주 청약의 경우엔 일반청약자 증거금으로 1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1개월 뒤 IPO 시장에 새롭게 올라온 수많은 종목들은 연일 급락세를 기록했다. 개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까지 쏟아지며 공모 투자의 환상은 붕괴됐다. 그 여파는 6개월 이상이 지속됐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일단 붐이 형성됐으니 단기적으론 IPO 시장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순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조만간 큰 휴유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ut@e-today.co.kr

# 삼성투신을 보면 증시를 읽을 수 있다?

삼성투신운용의 ETF 출시 타이밍이 증권업계에서 화제다.

지난해 9월 중순 삼성투신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ETF를 출시한 후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고, 이번 2월 말 지수 움직임과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ETF 상장 후엔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인버스ETF 출시 후 주가 하락**
**올해 2월 레버리지ETF 상장 후 주가 상승**

삼성투신은 지난 2월 22일 KODEX레버리지를 출시했다.

상장 후 단기적으로 밀리긴 했으나 이후 급등세를 연출하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거래량도 일평균 50만주 정도를 유지하며 ETF 시장에서 상위권에 단숨에 랭크됐다.

KODEX레버리지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주식, ETF,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지수 하루 변동폭의 2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

즉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레버리지ETF는 2% 오른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2배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KODEX레버리지는 지난 2월25일 저점 대비 12% 이상 급등했다. 코스피지수가 6% 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9월16일 국내 최초로 상장된 인버스ETF인 KODEX인버스 역시 출시 타이밍이 탁월했다. 상장 후 불과 1주일 후 코스피 지수는 1720선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곧바로 하락 반전해 3개월 후 1520선마저 붕괴됐다.

코스피선물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게 설계된 인버스ETF는 지수 하락시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실제로 삼성투신은 KODEX레버리지의 상장 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투신이 지수 대비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ETF를 금감원으로부터 상품 인허가를 받은 시기는 올해 1월 말이었다.

하지만 레버리지ETF는 주가가 올라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가진 만큼 타이밍 조절에 나섰다.

이에 삼성투신운용은 상품 출시 시점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기자
chaosbut@e-today.co.kr

# 러시아 와이브로시장 급성장 수혜주는

러시아 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 가입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최대 상용화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 와이브로 시장을 공략중인 와이브로 관련주로는 인스프리트와 서원인텍이 꼽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모바일 와이맥스 사업자인 요타가 지난 2009년 초고속 무선인터넷 상용화에 나선 이후 3월 현재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서며 급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에서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이 꽃을 피움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4월 초 러시아 요타를 직접 방문, 성공 노하우를 전수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인스프리트와 서원인텍이 있다.

인스프리트 관계자는 "러시아 사업자로 가장 먼저 모바일와이맥스 서비스를 상용화 할 예정인 '스카텔(Scartel)'과 DCD 기술 기반의 모바일와이맥스 통합 커뮤니케이터 플랫폼 등 공급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인텍은 지난 2일 러시아 인터프로액트(Interproekt)사와 78만달러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서원인텍의 와이브로 관련제품 누적 수주액은 800만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서원인텍 와이브로 사업의 가장 큰 고객은 사우디의 모빌리(Mobily)사다. 모빌리사는 지난 1월 서원인텍에 550만달러 규모 와이브로 실내공급장치(CPE)를 주문했으며 추가 주문을 고려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lsh@e-today.co.kr

# 벤처기업협회와 지원 협약 체결

## 이트레이드證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18일 여의도 이트레이드증권 본사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기업공개 및 자금조달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트레이드증권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증권 시장의 기업공개 및 국내외 자금유치를 위한 자문업무, 해외주식 중개업무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을 통해 해외 시장에 기업공개가 된 기업은 2개사이며 현재 4개 업체가 이트레이드증권을 통해 해외증시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럽대안시장(Alternative Market)은 기업공개 자격요건, 공개비용, 거래, 기간, 유지비용 면에서 다른 대안시장인 미국 나스닥 장외시장(OTCBB), 일본 헤라클래스 시장보다 우수해 최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 벤처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영업팀 김우석 팀장은 "최근에는 한달에 2~3개 중소벤처기업에서 해외 대안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매출은 작지만 창의적인 특허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대안 시장의 기업공개가 더욱 원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트레이드증권의 남삼현 사장(사진 우)과 벤처기업협회의 황철주 회장(사진 좌)이 18일 이트레이증권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기업공개 및 자금조달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 영인프런티어, 신주인수권 부담 해소

## 흑자경영 바탕 글로벌기업으로 도약 준비

영인프런티어가 무차입경영과 주가안정화를 통해 2010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영인프런티어는 1999년 이후 적자행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2006년 12월 최대주주인 이지민 부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인수 후 3년만에 흑자전환해 성공했으며 부채가 탕감하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현재 7억원의 전환사채가 있으나 이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부기관의 투자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신주인수권은 179만주가 2013년 9월까지 행사가 가능한 물량이나 112만주를 최대주주가 인수해 주가에 부담도 줄어들었다.

또한 영인프런티어는 항체제조, 항체치료제(항체신약), 진단키트, 항체응용화 사업 부분의 성장동력에 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안정적 사업부분을 구축해 안정적 성장의 기틀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꾸준한 투자와 사업부분의 개편, 직원에 신뢰를 통해 지난해(2009년) 매출 185억원으로 상장이후 최대매출실적과 함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영인프런티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항체를 개발, 제조해 공급한다.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트랜드인 항체 분야에서 200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항체사업, 진단응용화 사업, 항체신약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영인프런티어는 '특정질환에 대한 표적 단백질과 항체를 이용한 의약제품'의 핵심부품인 단백질과 항체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HUPO(Human Proteone Organiation)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프로테오믹스(인간단백질지도) 프로젝트에 항체공급 핵심파트너가 됐다. 영인프론티어는 연구에 필요한 각종 항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차세대 생명공학 프로젝트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국내대형제약사와 항체신약 치료제 개발계약에 의한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2008년 LG생명과학과 래피트키트 부분 허가권 양수도 계약 체결, 2009년 알레르기 항원항체 개발계약체결 등 응용분야인 진단시장에도 진출 했다.

2009년 4월, 한국전력과 Anti-PCBs 개발계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산업분야에 항체응용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다.

영인프런티어는 2010년 영국런던에 상장돼 있는 글로벌 항체회사와 마일스톤방식의 항체공동연구개발 및 판매계약을 체결해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해외 판매망의 확보와 함께 개발수익과 판매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다.

영인프런티어는 4000여종의 항체를 공급하는 국내유일의 항체 개발회사로, 독자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유통업체인 영국의 압캠(Abcam), 산타크루즈(Santa Cruz),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등 전세계에 OEM 또는 직접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입항체 의존도가 99% 이상인 국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항체독립'을 선언하고 국내 항체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 우리투자證, '펀드 바로 전환 서비스' 실시

우리투자증권은 펀드 환매 후 새로운 펀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펀드 바로 전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펀드 바로 전환 서비스'는 기존 보유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 펀드로 전환할 경우 펀드환매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환매에 따른 시차 없이 새로운 펀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금리는 0%로 이용자들은 별도의 추가적인 이자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가능비율은 국내 주식형/혼합형 펀드라면 신청일 당일 평가금액의 90%, 해외 투자 주식/혼합형 펀드는 80%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액 상환은 환매한 펀드 결제시에 자동상환된다. 이 상품의 장점은 펀드간 교체 매매시 환매결제일까지 발생하는 시차로 인한 시장변동위험 및 기회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환 기자

## 주간 IPO / 장외주식시장

3월 셋째주 코스피지수는 주중 미국발 호재로 1686.11pt로 한주를 마쳤다.

한주간 장외시장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주초 6800원으로 시작했던 금호생명(-11.03%)은 한주내내 하락하며 6000원대를 가까스로 지켰다.

미래에셋생명(-1.13%)은 1만3000원대 초반을 횡보하며 1만3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승인주인 삼성생명(+0.62%)은 12만원대를 회복하며 한주내내 상승세를 보였다.

케이티스(+1.24%)와 케이티씨에스(+0.52%)는 각각 4만750원, 2만9150원으로 KT계열주들은 한주간 상승마감했다.

범현대계열주에서는 현대택배가 한주간 6.06% 상승하며 7000원대 재진입에 성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0.64%)과 현대위아(+0.70%)는 각각 3만9250원, 3만5750원으로 상승했다.

현대아산(1만8750원)과 현대카드(1만6000원), 현대캐피탈(4만2000원)은 가격변동없이 장을 마쳤다.

주중 씨엠에스를 통해 우회상장을 발표한 씨티앤티는 한주간 15.08% 상승하며 7만2500원을 기록했다.

IT계열주들은 한주간 하락세가 우세했다.

삼성SDS(-1.28%)와 서울통신기술(-1.58%)은 각각 7만7250원, 4만6750원으로 나란히 하락마감했다. 반면, 엘지씨엔에스는 한주간 1.06% 상승하며 2만3750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코리아로터리서비스(+1.18%)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2.11%), KT파워텔(+0.43%), 메디슨(+0.45%), 팍스넷(+2.53%)등 장외종목들은 상승마감했다.

금주 공모청약을 마친 디지탈아리아는 897.4대1의 최고 경쟁율을 기록하며 한주간 54.90% 급등하여 2만원대 진입을 앞두고 장을 마쳤다.

청구종목인 덕신하우징과 실리콘웍스는 각각 2.61%, 2.29% 상승마감했다.

### 장외시세표

기간 : 2010.3.15~2010.3.19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 종 목 | | 2010.3.15 | | | 2010.3.19 | | | 주간등락폭 | 등 락 율 | 계좌이체 |
|---|---|---|---|---|---|---|---|---|---|---|
| | | 팔 자 | 사 자 | 기준가 | 팔 자 | 사 자 | 기준가 | | | |
| 장외주요종목 | 금호생명 | 6900 | 6700 | 6800 | 6100 | 6000 | 6050 | -750 | -11.03% | 가능 |
| | 미래에셋생명 | 13300 | 13200 | 13250 | 13300 | 12900 | 13100 | -150 | -1.13% | 가능 |
| | 삼성광주전자 | 20000 | 18200 | 19100 | 20000 | 19500 | 19750 | 650 | 3.40% | 가능 |
| | 삼성SDSC | 79000 | 77500 | 78250 | 77500 | 77000 | 77250 | -1000 | -1.28% | 가능 |
| | 서울통신기술C | 48000 | 47000 | 47500 | 47500 | 46000 | 46750 | -750 | -1.58% | 가능 |
| | 엘지씨엔에스C | 24000 | 23000 | 23500 | 24500 | 23000 | 23750 | 250 | 1.06% | 가능 |
| | 케이티스 | 41000 | 39500 | 40250 | 41000 | 40500 | 40750 | 500 | 1.24% | 가능 |
| | 케이티씨에스 | 30000 | 28000 | 29000 | 29800 | 28500 | 29150 | 150 | 0.52% | 가능 |
| | 코리아로터리서비스 | 14000 | 11500 | 12750 | 13800 | 12000 | 12900 | 150 | 1.18% | 가능 |
| | 포스코건설 | 91000 | 88000 | 89500 | 91000 | 85000 | 88000 | -1500 | -1.68% | 가능 |
| | 한국디지탈위성방송E | 19000 | 18900 | 18950 | 19700 | 19000 | 19350 | 400 | 2.11% | 가능 |
| | 현대삼호중공업 | 41000 | 37000 | 39000 | 41000 | 37500 | 39250 | 250 | 0.64% | 가능 |
| | 현대아산 | 19500 | 18000 | 18750 | 19500 | 18000 | 18750 | 0 | 0.00% | 가능 |
| | 현대위아 | 36500 | 34500 | 35500 | 37000 | 34500 | 35750 | 250 | 0.70% | 가능 |
| | 현대카드 | 16500 | 15500 | 16000 | 17000 | 15000 | 16000 | 0 | 0.00% | 가능 |
| | 현대캐피탈 | 46000 | 38000 | 42000 | 46000 | 38000 | 42000 | 0 | 0.00% | 가능 |
| | 현대택배 | 7000 | 6200 | 6600 | 7500 | 6500 | 7000 | 400 | 6.06% | 가능 |
| | 휠라코리아 | 30500 | 29000 | 29750 | 32000 | 25000 | 28500 | -1250 | -4.20% | 가능 |
| | KT파워텔 | 11900 | 11500 | 11700 | 12000 | 11500 | 11750 | 50 | 0.43% | 가능 |
| | SK건설 | 45000 | 43000 | 44000 | 46000 | 42000 | 44000 | 0 | 0.00% | 가능 |
| IPO종목 | 덕신하우징C | 6200 | 5300 | 5750 | 6200 | 5600 | 5900 | 150 | 2.61% | 심사청구 |
| | 동양밸류SPACC | 10500 | 10100 | 10300 | 11500 | 11000 | 11250 | 950 | 9.22% | 공모완료 |
| | 디지탈아리아C | 13000 | 12500 | 12750 | 20500 | 19000 | 19750 | 7000 | 54.90% | 공모완료 |
| | 마이다스아이티C | 13500 | 12000 | 12750 | 13500 | 12000 | 12750 | 0 | 0.00% | 승인 |
| | 만도 | 42000 | 40000 | 41000 | 42000 | 40000 | 41000 | 0 | 0.00% | 심사청구 |
| | 삼성생명C | 121000 | 119500 | 120250 | 122000 | 120000 | 121000 | 750 | 0.62% | 승인 |
| | 실리콘웍스C | 70000 | 61000 | 65500 | 70000 | 64000 | 67000 | 1500 | 2.29% | 심사청구 |
| | 이연제약C | 16000 | 12500 | 14250 | 15000 | 12500 | 13750 | -500 | -3.51% | 승인 |
| | 인피니트헬스케어C | 5500 | 4500 | 5000 | 5400 | 5000 | 5200 | 200 | 4.00% | 승인 |
| | 차이나킹하이웨이U | 4500 | 4000 | 4250 | 4500 | 4000 | 4250 | 0 | 0.00% | 공모예정 |
| | 환영철강공업 | 24000 | 23000 | 23500 | 24000 | 23000 | 23500 | 0 | 0.00% | 심사청구 |

# 자본잠식 기업 수두룩 '투자 주의'

## 실적부진이 주 원인…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도

올해 들어 자본금의 50% 이상을 까먹은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 관련 공시 발표 또는 관리종목으로 가는 수순에서 급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30분마다 주권거래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공시는 꼭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 기준,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통해 자본잠식 50%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6개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옵티머스(기존 관리종목, 이하 관), 조인에너지(관), 이엔쓰리, 제로원인터랙티브(관), 금호산업, C&우방랜드(관), 한신DNP(관), 케드콤, 아티스가 있으며 코스닥시장에는 제넥셀, 일공공일안경, 아리진, 소리바다미디어, 초록뱀(관), 태산엘시디(관)가 있다.

이중 전액 자본잠식 대상은 금호산업, 한신DNP, 태산엘시디다.

현재 태산엘시디는 '자기자본에 관한 외부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상장폐지사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 확인일)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2회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액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는 코스닥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지속적인 실적 악화가 결국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 확인일)조치가 취해진다.

올해 들어 17일 오후 12시 기준 현재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은 8곳으로 엑스로드, 단성일렉트론, 지앤이, 지엔텍홀딩스, 브이에스에스티, 엘림에듀, 대선조선, 우경철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법규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통해 올바른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부분도 그 일부'"라고 말했다.

또 "'계속사업 손실이나 순손실이 발생하는 기업도 자본잠식으로 갈 수 있어,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사항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이라면 실적부진이 누적된 것'"이라며 "'회사의 증자 능력이 있다면 자본 조달을 할 것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종목들은 최근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7일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라고 공시한 기업인 제넥셀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으며 일공공일안경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지정된 옵티머스, 소리바다미디어 역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 중 엑스로드, 단성일렉트론, 지앤이, 지엔텍홀딩스, 브이에스에스에이도 이날 하한가에 거래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 중소형 증권사 몸집 불리기 '쉽지 않네'

## 저축은행 인수 타진…가격놓고 의견 차이 여전

최근 중소형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등의 인수를 통해 몸집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와 저축은행간의 프리미엄 책정 의견차이로 인해 M&A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서울저축은행을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저축은행은 자산 1조2000억원 규모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국증권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삼신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푸른2저축은행과의 인수협상이 결렬된 키움증권은 알파에셋자산운용 지분인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자산운용업 진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저축은행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속속 추진하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인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를 대신할 저축은행 인수를 성사시킬 경우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사업 다각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증권사들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중장기 수익원 확보차원에서 연계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계열 저축은행과 지분투자, 공동점포전략,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 대출 중개영업 등으로 시너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증권사들은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가 쉽지만은 않다.

증권사들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문제점으로 노출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을 고려해 프리미엄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자체사업 프리미엄을 고려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etoday.kr

# 대형 생보사 상장으로 소비업종 비중 축소 불가피

## 현대증권, "'금융섹터 비중 증가로 IT · 자동차 비중 감소할 듯'"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기업공개(IPO)가 IT · 경기관련 소비재 등의 기존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현대증권 시장분석팀 유수민 애널리스트는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상장으로 각각 시가총액 7조원, 20조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생보사 상장으로 포트폴리오 내 금융업종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여타 섹터의 비중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금융섹터는 국내 증시 시총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상장으로 금융섹터 시총 증가가 최소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시가총액에서 금융섹터 비중은 1.84%포인트 확대돼 16.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금융섹터에 비중 증가에 따라 다른 섹터의 비중 조절이 함께 나타 날 것이라는 게 유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강재웅 기자
manrikang@e-today.co.kr

**대우證, 북한 어린이에 우유 보내기 운동** 대우증권은 18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우유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함께 나누는 세상'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이번 후원 협약으로 총 3000만원을 지원해 영양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컨테이너 2개 분량인 200ml멸균우유 3만 팩과 800g 분유 750통을 전달하게 된다. 대우증권이 '함께 나누는 세상'에 후원한 3000만원(우유 3만 팩, 분유 750통)은 북한 어린이 15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며 다가오는 6월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10주가 껌 한통 값…'초저가' 종목 속출

## 급등락 종목 많아 저가 메리트 현혹되면 낭패

주당 가격이 500원에 못 미치는 소위 '껌 값' 주식들이 늘고 있다.

지난 16일 종가기준으로 1주당 가격이 500원 이하인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10개 기업을 제외한 총 88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이 20개, 코스닥이 68개다.

유가증권(전체 713개) 상장종목의 2.8%, 코스닥(전체 1022개)의 6.6%가 500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

지난해 말 66개 종목이 500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여 만에 무려 33%나 늘었다.

메리츠증권 심재엽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의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스닥 퇴출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 팀장은 또 "'개인들이 예전과 다른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테마에 편중한 묻지만 투자가 아닌 펀더멘털, 실적이 확실한 종목에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종가기준으로 1주당 가격이 500원 이하인 주식 총 88개 종목의 이날 평균 주가는 330.45원, 시가총액은 216억5500만원이다.

가장 싼 주식은 에버리소스로 단돈 40원. 증자를 통해 주식수는 총 3억269만5000주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121억원에 불과하다.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은 쓰리디월드로 7억원이다. 총 주식수는 210만6000주로 16일 종가는 310원이다.

이채용 기자
mywish73@e-today.co.kr

## 안드로이드폰 실시간 주식주문 서비스 개시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8일 업계 최초로 구글의 운영체계(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 전용 실시간 주식주문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M-Stock'을 오픈했다. 지난 12일 안드로이드폰용 주식시세 조회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던 미래에셋증권은 이번에 실시간 주식주문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백신까지 탑재시켜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 하이드로젠파워 대표 실적 악화 알았나

하이드로젠파워 대표이사가 실적 악화 공시 발표 전 보유 지분을 대규모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이드로젠이 지난해 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이드로젠은 지난 16일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지난해 26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매출액은 59% 증가한 431억원이었으나, 영업손실은 174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악화 때문인지 하이드로젠의 이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720원으로 마쳤다.

문제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영호 씨의 지분 처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영호 대표이사는 지난 3월 9일 25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277만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강재웅 기자
manrikang@e-today.co.kr

## 금융투자업 승인

# HMC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의 추가 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HMC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회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된다.

# "'차이나펀드 시장 선도해 나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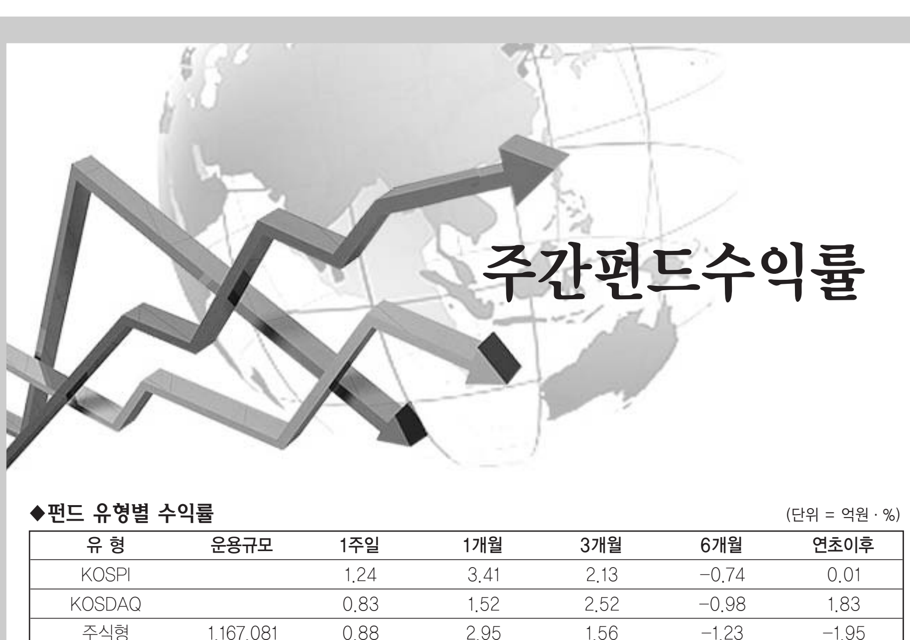
동부증권은 차이나펀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증권은 우수한 운용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각종 펀드상을 수상한 동부자산운용의 '동부차이나펀드'를 중심으로 주요 차이나펀드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동부증권은 중국투자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부증권은 리서치센터의 중국분석전문 애널리스트(중국인)를 통한 차별화된 정보력과 분석, 그리고 동부자산운용의 다년간의 차이나펀드 운용경험을 접목시켜 시너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모든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와 화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부증권 이종우 WM본부장(상무)는 "'올해 중국증시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차이나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분할납입을 통한 중국투자는 향후 2~3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와 세계경제 정상화 시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 지금이 가입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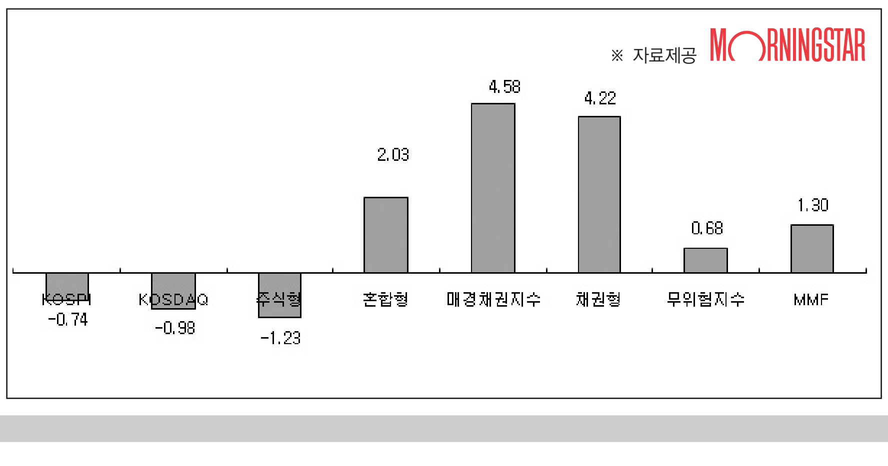



◆펀드 유형별 수익률 (단위 = 억원 · %)

| 유 형 | 운용규모 | 1주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연초이후 |
|---|---|---|---|---|---|---|
| KOSPI | | 1.24 | 3.41 | 2.13 | -0.74 | 0.01 |
| KOSDAQ | | 0.83 | 1.52 | 2.52 | -0.98 | 1.83 |
| 주식형 | 1,167,081 | 0.88 | 2.95 | 1.56 | -1.23 | -1.95 |
| 혼합형 | 191,355 | 0.54 | 1.33 | 1.94 | 2.03 | 0.87 |
| 매경채권지수 | | 0.81 | 1.65 | 3.03 | 4.58 | 3.22 |
| 채권형 | 404,359 | 0.68 | 1.42 | 2.80 | 4.22 | 2.85 |
| 무위험지수 | | 0.03 | 0.10 | 0.33 | 0.68 | 0.28 |
| MMF | 920,175 | 0.05 | 0.21 | 0.68 | 1.30 | 0.56 |

※운용규모는 설정후 10주 이상된 펀드들의 설정고 합계
※수익률은 설정후 3개월 이상된 펀드들의 순자산 가중 평균 수익률

◆유형별 6개월 수익률 (단위 = %)




◆펀드 유형별수익률

-주식형 (단위 = 억원 · %)

| 펀 드 | 운 용 사 | 설 정 일 | 설 정 액 | 1주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베타계수 |
|---|---|---|---|---|---|---|---|---|---|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A | 마이애셋자산운용 | 2006-01-17 | 183 | 1.34 | 1.84 | 4.21 | -1.18 | 88.30 | 0.87 |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투자신탁-자 1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2008-07-07 | 445 | 0.40 | 2.96 | 5.48 | 13.29 | 71.74 | 0.71 |
|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B)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 2001-05-02 | 129 | 2.07 | 3.99 | 4.24 | 7.98 | 66.76 | 0.79 |
|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투자신탁 1(주식) | 한국투신운용 | 2006-03-24 | 1,073 | 0.61 | 2.80 | 4.43 | 6.52 | 65.99 | 0.89 |
| 한국투자패스파인더증권투자신탁 1(주식) | 한국투신운용 | 2006-01-16 | 313 | 0.64 | 2.74 | 4.74 | 6.92 | 65.41 | 0.88 |
| 삼성스트라이크증권투자신탁 1[주식](A) | 삼성투신운용 | 2000-01-04 | 806 | 1.09 | 3.11 | 2.67 | -1.53 | 64.64 | 0.99 |
|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A)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 2001-05-02 | 156 | 2.05 | 3.87 | 3.87 | 7.20 | 64.46 | 0.79 |
| 삼성스트라이크증권투자신탁 1[주식](C) | 삼성투신운용 | 2000-01-04 | 550 | 1.08 | 3.06 | 2.51 | -1.85 | 63.70 | 0.99 |
| 알리안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A)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 2001-03-03 | 145 | 1.04 | 2.95 | 4.04 | 3.21 | 62.50 | 1.00 |
| KB스타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 KB자산운용 | 2003-01-03 | 406 | 0.55 | 2.48 | 1.97 | 2.08 | 60.80 | 0.93 |
| KB스타多가치성장주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 KB자산운용 | 2005-01-18 | 237 | 0.46 | 2.41 | 1.74 | 2.01 | 60.61 | 0.94 |
| 한국투자현대차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8-09-17 | 114 | 0.53 | 2.37 | 3.15 | 0.45 | 60.59 | 0.95 |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A클래스 | 트러스톤자산운용 | 2008-06-27 | 1,267 | 1.09 | 2.96 | 3.64 | 3.16 | 60.55 | 0.95 |
|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I) | 한국투신운용 | 2004-11-01 | 110 | 0.59 | 4.40 | 5.24 | -0.54 | 60.37 | 0.96 |
| 삼성착한아이예뻐아이증권투자신탁 1[주식](A) | 삼성투신운용 | 2006-09-11 | 229 | 0.70 | 3.16 | 0.87 | -1.62 | 60.14 | 1.01 |
|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C/A)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 2006-08-18 | 696 | 1.23 | 3.58 | 4.65 | 3.67 | 59.92 | 0.89 |
|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 동양투신운용 | 2006-08-21 | 727 | 0.49 | 4.28 | 5.09 | -0.73 | 59.88 | 0.99 |
| 한국투자정통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3-12-31 | 389 | 0.62 | 1.22 | 6.46 | 5.92 | 59.63 | 0.79 |
| 신영월드에이스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A | 신영자산운용 | 2006-09-04 | 199 | 0.68 | 3.63 | 4.20 | 3.20 | 59.60 | 0.92 |
| 삼성팀파워구십증권투자회사(주식) | 삼성투신운용 | 2002-02-05 | 359 | 0.65 | 3.05 | 1.09 | -1.36 | 59.53 | 1.01 |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클래스 | 트러스톤자산운용 | 2008-06-27 | 565 | 1.08 | 2.90 | 3.43 | 2.73 | 59.46 | 0.96 |
|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1999-06-23 | 675 | 0.58 | 1.20 | 6.40 | 5.86 | 59.39 | 0.78 |
|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 동양투신운용 | 2006-08-22 | 181 | 0.49 | 4.24 | 4.98 | -0.95 | 59.18 | 0.99 |
|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A | 하나UBS자산운용 | 2007-05-03 | 403 | 1.22 | 0.80 | -2.64 | -4.21 | 59.17 | 0.94 |
| 삼성착한아이예뻐아이증권투자신탁 1[주식](C) | 삼성투신운용 | 2006-09-11 | 231 | 0.68 | 3.10 | 0.68 | -2.00 | 58.95 | 1.02 |
| LS장수기업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 LS자산운용 | 2008-10-01 | 167 | 1.21 | 2.80 | 4.84 | 4.18 | 58.92 | 1.02 |
|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C/C)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 2006-08-18 | 651 | 1.22 | 3.52 | 4.45 | 3.26 | 58.70 | 0.89 |
|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증권투자신탁 2[주식]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2005-08-01 | 182 | 1.24 | 3.54 | 2.66 | -0.34 | 58.68 | 1.01 |
|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7-10-17 | 5,268 | 0.58 | 4.35 | 5.09 | -0.86 | 58.64 | 0.95 |
|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C-e) | 한국투신운용 | 2007-10-17 | 609 | 0.58 | 4.33 | 5.03 | -0.94 | 58.64 | 0.96 |
|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4-07-20 | 177 | 0.57 | 4.32 | 5.09 | -0.91 | 58.63 | 0.96 |
| 한국투자정통고편입증권투자신탁(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2-01-29 | 97 | 0.61 | 1.32 | 6.61 | 6.62 | 58.41 | 0.74 |
| 유리Growth&Income증권투자신탁[주식] | 유리자산운용 | 2005-09-28 | 185 | 0.55 | 3.00 | 1.36 | 2.01 | 58.38 | 1.04 |
|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4-07-06 | 1,900 | 0.58 | 4.33 | 5.09 | -0.90 | 58.23 | 0.95 |
|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1999-06-23 | 279 | 0.56 | 1.14 | 6.18 | 5.41 | 58.08 | 0.78 |
| 칸서스슈퍼스타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A1 | 칸서스자산운용 | 2007-07-10 | 209 | 1.15 | 3.12 | 3.79 | 1.69 | 57.97 | 1.05 |
|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4-11-01 | 25,427 | 0.56 | 4.28 | 4.82 | -1.36 | 57.96 | 0.96 |
|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7-10-17 | 4,680 | 0.57 | 4.31 | 4.94 | -1.15 | 57.82 | 0.96 |
|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 하나UBS자산운용 | 2007-05-03 | 592 | 1.20 | 0.73 | -2.90 | -4.71 | 57.62 | 0.94 |
|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4-07-20 | 1,971 | 0.56 | 4.27 | 4.91 | -1.25 | 57.58 | 0.96 |
|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6-10-13 | 187 | 0.35 | 3.45 | 3.12 | 1.48 | 57.55 | 0.89 |
| ING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1(주식) | 아이엔지자산운용 | 2003-01-03 | 2,359 | 1.03 | 3.22 | 3.11 | 0.65 | 57.50 | 1.04 |
|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 | 한국투신운용 | 2008-03-12 | 166 | 0.62 | 3.21 | 1.58 | 0.85 | 57.25 | 0.87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F) | 한국투신운용 | 2005-12-20 | 209 | 0.51 | 3.17 | 1.50 | 0.34 | 56.81 | 0.88 |
|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2005-08-01 | 143 | 1.23 | 3.46 | 2.11 | -1.21 | 56.55 | 1.02 |
| IBK그랑프리포커스배당 1C[주식] | 아이비케이자산운용 | 2005-10-04 | 90 | 0.36 | 1.86 | 5.62 | 3.30 | 56.53 | 0.86 |
|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6-10-13 | 2,588 | 0.34 | 3.40 | 2.94 | 1.12 | 56.52 | 0.89 |
|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7-05-15 | 743 | 0.56 | 1.11 | 6.23 | 5.22 | 56.43 | 0.77 |
|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 유리자산운용 | 2007-08-14 | 139 | 1.03 | 2.82 | 3.57 | 1.15 | 55.85 | 1.02 |
| 신한BNPP미래든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2003-12-31 | 155 | 1.00 | 3.65 | 3.18 | 2.58 | 55.80 | 0.97 |
|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6-04-24 | 1,554 | 0.54 | 4.06 | 4.82 | -0.83 | 55.76 | 0.91 |
| 미래에셋맵스IT섹터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 2005-03-09 | 133 | 2.26 | 2.06 | 2.96 | -0.90 | 55.73 | 0.99 |
| 한국투자셀렉트가치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4-12-14 | 572 | 1.00 | 2.53 | 1.03 | 0.33 | 55.31 | 0.92 |
| KTB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 C | KTB자산운용 | 2007-05-08 | 163 | -0.10 | 2.26 | 1.56 | -1.61 | 55.27 | 1.06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5-12-20 | 12,534 | 0.49 | 3.09 | 1.24 | -0.18 | 55.21 | 0.88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e) | 한국투신운용 | 2005-12-20 | 209 | 0.49 | 3.06 | 1.16 | -0.29 | 55.17 | 0.88 |
| PCA베스트그로쓰증권투자신탁A- 1[주식]ClassF | PCA투신운용 | 2001-04-02 | 117 | 2.11 | 3.97 | 2.30 | 2.78 | 55.09 | 0.97 |
| 삼성우량주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B) | 삼성투신운용 | 2006-02-13 | 1,494 | 0.83 | 3.50 | 0.79 | -2.24 | 54.40 | 1.01 |
| 신한BNPP미래든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2003-12-31 | 2,718 | 0.98 | 3.58 | 2.94 | 2.10 | 54.35 | 0.97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 | 한국투신운용 | 2005-12-20 | 2,335 | 0.48 | 3.05 | 1.08 | -0.50 | 54.28 | 0.88 |
| KB외국인선호주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A | KB자산운용 | 2007-06-19 | 221 | 0.42 | 2.06 | 1.65 | -0.10 | 53.96 | 0.93 |
| 한국투자성장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한국투신운용 | 2005-03-03 | 436 | 0.44 | 2.89 | 1.09 | -0.77 | 53.76 | 0.89 |
| IBK그랑프리한국대표증권A[주식] | 아이비케이자산운용 | 2006-07-10 | 116 | 1.01 | 2.98 | 4.51 | 1.98 | 53.69 | 0.96 |
| PCA코리아리더스증권투자신탁P- 1[주식] | PCA투신운용 | 2006-05-25 | 415 | 2.11 | 3.91 | 2.08 | 2.47 | 53.59 | 0.97 |
| 칸서스하베스트선취형증권투자신탁 1(주식) | 칸서스자산운용 | 2006-03-14 | 233 | -0.01 | 1.86 | 1.29 | 0.02 | 53.31 | 1.02 |
| 삼성우량주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A) | 삼성투신운용 | 2004-12-01 | 1,991 | 0.82 | 3.43 | 0.57 | -2.67 | 53.16 | 1.01 |
|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2(주식) | 한국투신운용 | 2005-11-01 | 835 | 0.53 | 4.00 | 4.60 | -1.20 | 53.14 | 0.90 |
|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 | 한국투신운용 | 2001-01-31 | 1,913 | 0.98 | 2.51 | 1.06 | 0.46 | 53.00 | 0.88 |
| PCA베스트그로쓰증권투자신탁A- 1[주식]Class A | PCA투신운용 | 2001-04-02 | 254 | 2.09 | 3.87 | 1.94 | 2.03 | 52.89 | 0.97 |
|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2 | 칸서스자산운용 | 2007-01-05 | 264 | 1.16 | 3.08 | 3.74 | 1.39 | 52.88 | 1.04 |
| 하나UBS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V- 1(주식)Class A | 하나UBS자산운용 | 2002-03-08 | 3,049 | 0.66 | 3.05 | 2.11 | -0.02 | 52.88 | 1.00 |
| KB외국인선호주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C | KB자산운용 | 2007-06-19 | 265 | 0.40 | 2.00 | 1.45 | -0.49 | 52.81 | 0.93 |
| 하이실적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 하이자산운용 | 2007-06-29 | 162 | 1.15 | 3.20 | 2.31 | -1.01 | 52.81 | 0.98 |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A | 동부자산운용 | 2006-07-21 | 401 | 0.94 | 2.56 | 3.06 | 3.07 | 52.75 | 0.96 |
|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1 | 칸서스자산운용 | 2007-01-05 | 122 | 1.15 | 3.08 | 3.72 | 1.34 | 52.73 | 1.04 |

-혼합형주식-고(주식편입비 30%~70%미만)

| 펀 드 | 운용사 | 설정일 | 설정액 | 1주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베타계수 |
|---|---|---|---|---|---|---|---|---|---|
| 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증권 5-19 | 동부자산운용 | 2008-06-20 | 66 | 1.08 | 3.42 | 5.32 | 3.75 | 40.63 | 0.85 |
| 동부델타-프리베주식혼합12 | 동부자산운용 | 2008-04-08 | 125 | 0.99 | 2.94 | 4.86 | 3.52 | 39.42 | 0.80 |
| 동부델타-프라임1단위주식혼합 6 | 동부자산운용 | 2008-01-03 | 55 | 1.10 | 3.68 | 6.00 | 5.09 | 38.90 | 0.88 |
| 동부델타-프리베주식혼합13 | 동부자산운용 | 2008-04-23 | 677 | 0.95 | 2.81 | 4.34 | 1.87 | 37.64 | 0.80 |
| 동부 델타-프리베주식혼합14 | 동부자산운용 | 2008-05-13 | 248 | 1.01 | 3.04 | 4.67 | 2.10 | 36.56 | 0.80 |
| 동부델타-프리베주식혼합15 | 동부자산운용 | 2008-06-10 | 254 | 0.95 | 2.63 | 4.19 | 2.69 | 34.55 | 0.74 |
| 하나UBS오토액티브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하나UBS자산운용 | 2006-02-08 | 252 | 0.35 | 1.51 | 2.30 | 2.43 | 33.44 | 0.51 |

-혼합형주식-중(주식편입비 10%~30%이하)

| 펀 드 | 운 용 사 | 설 정 일 | 설 정 액 | 1주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베타계수 |
|---|---|---|---|---|---|---|---|---|---|
| 산은하이디배당30증권투자회사 1[채권혼합] | 산은자산운용 | 2006-10-23 | 82 | 0.28 | 0.90 | 1.69 | 1.25 | 23.61 | 0.25 |
| 산은하이디배당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산은자산운용 | 2006-08-04 | 123 | 0.29 | 0.86 | 1.79 | 1.75 | 22.49 | 0.24 |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0(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6-01-24 | 202 | 0.40 | 1.09 | 2.66 | 3.16 | 19.69 | 0.24 |
| 하이루키30증권투자회사 1[채권혼합] | 하이자산운용 | 2006-02-24 | 160 | 0.50 | 1.16 | 2.07 | 1.12 | 19.38 | 0.26 |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1(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5-05-16 | 181 | 0.37 | 1.04 | 2.68 | 3.13 | 19.37 | 0.23 |
|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정통저편입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3-01-09 | 473 | 0.24 | 0.49 | 2.77 | 3.36 | 19.17 | 0.25 |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6(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5-09-09 | 197 | 0.38 | 0.95 | 2.34 | 2.58 | 19.09 | 0.23 |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5(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5-07-15 | 107 | 0.44 | 1.29 | 2.66 | 2.72 | 18.78 | 0.21 |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1(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6-03-20 | 340 | 0.42 | 1.00 | 2.47 | 2.67 | 18.59 | 0.23 |
| 교보악사완전소중한증권투자회사K- 1(채권혼합) | 교보악사자산운용 | 2007-04-06 | 217 | 0.43 | 1.21 | 1.23 | 0.70 | 18.21 | 0.30 |
|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2006-04-18 | 413 | 0.74 | 1.58 | 3.21 | 3.79 | 17.94 | 0.15 |
| 신한BNPP Tops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2005-02-11 | 90 | 0.95 | 2.26 | 2.78 | 3.81 | 17.74 | 0.26 |
| 삼성뉴트랜드안정30증권투자신탁 C 1[채권혼합] | 삼성투신운용 | 2002-04-13 | 194 | 0.50 | 1.24 | 1.65 | 1.16 | 17.73 | 0.28 |
| 한국투자리서치파워법인전용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4-11-12 | 65 | 0.40 | 1.20 | 1.81 | 2.37 | 17.65 | 0.26 |
|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 한국투신운용 | 2006-02-21 | 1,326 | 0.30 | 1.53 | 2.29 | 1.18 | 17.28 | 0.28 |
| 신영월드에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6-10-25 | 164 | 0.39 | 1.34 | 2.04 | 2.39 | 16.99 | 0.25 |
| 푸르덴셜인컴플러스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푸르덴셜자산운용 | 2005-10-31 | 133 | 0.68 | 1.34 | 1.40 | 1.16 | 16.65 | 0.24 |
| ING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아이엔지자산운용 | 2004-01-02 | 827 | 0.72 | 1.80 | 2.65 | 3.04 | 16.56 | 0.25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5-12-20 | 155 | 0.33 | 1.24 | 1.24 | 1.68 | 16.55 | 0.24 |
| 하나UBSIT코리아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하나UBS자산운용 | 2007-05-04 | 203 | 0.40 | 0.32 | -0.36 | -0.43 | 16.47 | 0.26 |
| 삼성웰스플랜30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채권혼합] | 삼성투신운용 | 2004-10-01 | 254 | 0.39 | 1.23 | 1.26 | 1.26 | 16.45 | 0.27 |
| 와이즈HR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 2004-05-18 | 109 | 0.63 | 1.63 | 2.28 | 2.47 | 16.42 | 0.28 |
| 흥국하이클래스M증권투자회사 1[채권혼합] | 흥국투신운용 | 2006-11-07 | 63 | 0.29 | 1.01 | 2.85 | 3.17 | 15.89 | 0.23 |
| Pru프리미엄30혼합 1 | 푸르덴셜자산운용 | 2005-07-13 | 120 | 0.77 | 1.30 | 1.39 | 0.79 | 15.78 | 0.25 |
| 동양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동양투신운용 | 2007-04-06 | 196 | 0.82 | 1.21 | 1.23 | 2.86 | 15.76 | 0.25 |

-혼합형주식-저(주식편입비 10%이하)

| 펀 드 | 운 용 사 | 설 정 일 | 설 정 액 | 1주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베타계수 |
|---|---|---|---|---|---|---|---|---|---|
| KTB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KTB자산운용 | 2007-11-21 | 116 | 0.55 | 1.64 | 2.33 | 2.53 | 22.93 | 0.36 |
|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KB자산운용 | 2006-01-02 | 191 | 0.83 | 2.09 | 2.16 | 2.31 | 22.75 | 0.39 |
|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6-01-03 | 469 | 0.64 | 1.72 | 2.43 | 2.49 | 21.05 | 0.29 |
| 한국투자퇴직연금정통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5-12-26 | 239 | 0.32 | 0.87 | 3.70 | 4.33 | 20.69 | 0.27 |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06-03-23 | 235 | 0.96 | 1.86 | 2.77 | 2.64 | 19.33 | 0.33 |
|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 삼성투신운용 | 2006-01-02 | 470 | 0.42 | 1.31 | 1.06 | 0.14 | 19.28 | 0.33 |
|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자산운용 | 2006-01-24 | 346 | 0.63 | 1.22 | 2.65 | 3.01 | 19.20 | 0.24 |
| 우리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B- 1[채권혼합] | 우리CS자산운용 | 2006-01-03 | 124 | 0.87 | 1.59 | 2.28 | 1.82 | 18.29 | 0.32 |
| KB퇴직연금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KB자산운용 | 2006-12-13 | 108 | 0.85 | 2.05 | 2.62 | 2.48 | 17.99 | 0.32 |
| KTB플러스찬스증권투자회사 5[채권혼합] | KTB자산운용 | 2003-12-16 | 1,149 | 0.19 | 0.32 | 1.22 | 1.01 | 17.64 | 0.02 |
| 한국투자퇴직연금밸류증권자투자신탁 2(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6-01-02 | 106 | 0.50 | 1.32 | 1.06 | 1.56 | 17.25 | 0.30 |
| 한국투자퇴직연금밸류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 한국투신운용 | 2006-02-28 | 114 | 0.51 | 1.41 | 1.25 | 1.74 | 17.22 | 0.30 |
|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6(채권혼합) | 동양투신운용 | 2006-12-05 | 171 | 0.41 | 0.91 | 4.30 | 6.25 | 13.13 | -0.04 |
| 부자아빠포커스안정혼합A- 2 | 한국투신운용 | 2003-09-29 | 211 | 0.37 | 0.90 | 1.81 | 2.54 | 12.60 | 0.12 |
|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3(채권혼합) | 동양투신운용 | 2006-04-21 | 812 | 0.30 | 0.81 | 3.99 | 6.07 | 12.41 | -0.03 |
|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lass C | 하나UBS자산운용 | 2007-03-20 | 1,429 | 0.61 | 1.20 | 2.25 | 3.75 | 12.07 | 0.04 |
| 아이채권플러스알파 1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아이투신운용 | 2007-01-17 | 336 | 0.34 | 0.61 | 1.69 | 2.23 | 11.80 | 0.07 |
| 하이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1 | 하이자산운용 | 2007-07-04 | 333 | 0.57 | 0.89 | 2.52 | 1.93 | 11.12 | 0.07 |
| 푸르덴셜인컴플러스1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 푸르덴셜자산운용 | 2005-09-05 | 307 | 0.56 | 1.05 | 1.73 | 2.34 | 9.23 | 0.05 |
| 푸르덴셜핵심플러스1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 푸르덴셜자산운용 | 2007-11-14 | 164 | 0.63 | 1.10 | 1.78 | 2.25 | 8.93 | 0.05 |
| Pru프리미엄안정혼합 4 | 푸르덴셜자산운용 | 2006-05-02 | 70 | 0.45 | 0.96 | 0.97 | 1.99 | 8.16 | 0.02 |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 | 신영자산운용 | 2005-08-08 | 263 | 0.35 | 0.71 | 1.99 | 2.79 | 8.01 | 0.05 |
| KTB웰빙안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KTB자산운용 | 2002-12-24 | 157 | 0.20 | 0.56 | 0.93 | 1.30 | 6.61 | 0.10 |
| 동부해오름증권투자회사 6[채권혼합] | 동부자산운용 | 2006-02-21 | 104 | 0.56 | 0.56 | 1.39 | 2.42 | 6.04 | 0.00 |
| 피닉스제니스증권투자회사 5(채권혼합) | 피닉스자산운용 | 2007-02-13 | 81 | 0.06 | 0.39 | 0.57 | 0.47 | 5.81 | 0.06 |

# 대기업 미래유망 '水산업' 진출 잰걸음

## SK, 물환경 사업 진출 이어 삼성 · 동양 등도 진출 채비…웅진, 해외시장 확대

대기업들이 미래 유력시장으로 꼽히는 '물 산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특히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 규모도 고속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진출해 있던 기업들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SK케미칼은 지난 12일 하수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전문업체 태영엔텍 주식 20만주(지분율 25%)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보해 물환경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증자에는 SK건설도 25%의 지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은 그 동안 수처리제나 정수필터 소재를 생산해온 경험을 살려 친환경 수처리 사업 진출을 모색해 왔다. SK케미칼은 독일 마게(MAGE)그룹이 생산하는 식수 제조기 워터콘(Watercone)에 쓰일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 PETG(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플라스틱을 활용한 물산업에 나서왔다.

SK케미칼은 "기존에 정수필터 소재, 수처리제 사업 등을 해왔다"며 "하수,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태영엔텍 지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모직도 최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멤브레인'을 개발, 친환경 수처리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왕 R&D센터에 멤브레인의 연구 개발을 위한 파일럿 생산 공장 설비를 구축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멤브레인' 이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매개체로서, 형태 · 소재 등에 따라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속속 물산업에 나서고 있다.

동양그룹의 동양매직은 주주총회에서 물 관련 산업을 새로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수기 사업과 기계 · 플랜트사업을 통해 물산업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온 만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정제처리, 폐수처리, 수처리 관련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분야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물 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 올해 1월 관련 사업팀이 발족한 상태"라며 "중장기 비전에 따라 물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수기 메이저인 웅진그룹의 웅진코웨이도 물 산업을 본격 확장하고 나섰다. 이미 물 처리 사업부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71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웅진코웨이는 지난달 수처리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그린엔텍의 지분 100%를 281억원에 인수했다.

웅진코웨이는 물 사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해 매출규모를 올해는 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물 관련 산업은 이미 두산그룹과 코오롱그룹 등도 진출해 있어 점차 이 시장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물 시장 규모는 2016년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된다"면서 "특히 경기를 별로 타지 않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물 산업 관련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속속 진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봉 '107억'

### 이건희 전 회장 375억 배당

지난해 삼성전자 사내이사 4명이 총 430억7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07억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액 55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금액은 434억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5명의 보수가 총 3억29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내이사 4명의 지난해 보수는 430억7000만원. 삼성전자 사내이사인 이윤우 부회장, 최지성 사장, 윤주화 사장, 이상훈 사장 등 4명이 평균 107억7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 2008년에 삼성전자는 5명의 사내이사에게 평균 56억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이사보수 한도액은 520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으로 375억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98만5464주와 우선주 1만239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374억8458만4900원을 배당 받는다.

송영록 기자 *syr@etoday.kr*

# 가스公,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 평택 · 인천 · 통영에 이은 4번째…2015년까지 20만㎘ 12기 건설

한국가스공사가 2조7398억원을 투입하는 강원도 삼척LNG생산기지 건설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가스공사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약98만㎡에 건설하는 삼척LNG생산기지에 대한 호산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7월에 강원도와 가스공사간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작년 3월에 삼척 호산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삼척LNG생산기지는 평택 · 인천 · 통영에 이은 4번째 LNG생산기지로서 2015년까지 총 20만kl LNG 저장탱크 12기 및 시간당 1320t의 기화송출설비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선 2013년까지 20만kl LNG 저장탱크 4기 및 시간당 780t의 기화송출설비, 27만kl급 LNG선 접안부두, 방파제 (1.8km)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저장탱크 8기와 기화송출설비를 추가로 건설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설계, 인허가, 보상 및 시공사선정 업무를 병행추진했으며 3월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은 총보상금액 336억원 대비 51%가 이루어졌다.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현대건설 컨소시움)와 LNG 탱크 #1~4 및 부대설비 공사(대림건설 컨소시움)가 지난 2월에 계약 체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와 별도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건설사업으로 2013년 12월까지 1조6264억원을 투입해 1040Km의 배관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척 LNG생산기지가 입지한 강원권에는 강릉, 속초, 동해, 삼척 · 영월, 횡성 · 고성, 태백 · 양양 9개지역에 55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강원권 지역에 천연가스공급으로 에너지 복지 기여 및 고용창출로 강원권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 동국제강 조선용 후판 대우조선에 228톤 공급

동국제강은 지난 18일 김영철 사장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문 받은 조선용 후판 2248톤을 당진공장에서 생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철 동국제강 사장(왼쪽)이 당진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선용 후판을 주문한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오른쪽)을 초청해 출하되는 후판 제품 앞에서 기념 악수를 나누는 모습

# 조선업, 수주 취소 도미노 이어지나?

## 현대重 5척 수주 계약 해지…그리스 금융위기 영향 미미 전망

현대중공업이 지난 17일 4802억원 규모의 유조선 5척 공급계약을 유럽계 선주사 자금난으로 이행이 불가능해 해지했다고 공시하면서 조선업계에 수주 취소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계약을 해지한 곳이 그리스의 선사인 것을 알려지면서 최근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맞물려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안은 이번 계약해지 건이 그리스 금융위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미풍'으로 그칠 것으로 보는 업계의 시각과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그리스 선사의 발주와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호주중앙은행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나왔다.

16일 공개된 호주중앙은행의 3월 월례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호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로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도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난해 그리스 선사의 실적 호조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장 현대중공업만 해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그리스 선사와의 수주 협상에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사와 중형 벌크선 3척의 수주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계 다른 선사와는 대형 유조선과 대형 벌크선 수주 협상 중이다.

증권가에서도 그리스 재정 악화에 따른 그리스 선주들의 발주 축소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증권 김홍균 수석위원은 "(이번 현대중공업 수주 취소는) 신생 선사의 선박 파이낸싱 어려움으로 인한 취소로 확대해석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락슨에 따르면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수주 계약이 취소된 건은 그리스 퀘스트 마리타임(Quest Maritime)사가 발주한 9척의 수에즈맥스 탱커중 5척이다.

김 수석위원은 "최근 수에즈맥스 유조선의 경우 중고 및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한국 조선소와 수주 협상도 진행되는 등 업황이 회복기조에 있다"고 설명해 우려를 일축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 한전, 부동산사업 진출

한국전력이 오랜 숙원이던 부동산사업에 뛰어든다.

지난 19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한전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정관변경, 보유부동산 위탁 · 신탁개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자산을 재평가해 22조원이 넘는 차액을 기록했다.

안경주 기자

## 현대 이어 동부제철도 철강가격 인상

지난 16일 현대제철이 형강류 수출가격을 톤당 최대 80달러 인상한다고 밝힌데 이어 동부제철도 18일 전격 철강제품 내수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동부제철은 다음달 1일 출하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열연제품은 톤당 7만원, 냉연제품은 톤당 8만원이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동부제철은 지난 3월 1일 출하분 기준으로 칼라강판을 톤당 10만원 인상했고 15일 출하분 기준으로 석도강판을 톤당 7만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제철의 각 제품별 톤당 가격은(공장도 가격 기준) 열연강판 75만원, 냉연강판 86만5000원, 아연도금강판 96만5000원, 전기아연도금강판 97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2009년도 하반기 이후 계속된 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영시킨 것으로 향후 국내외 철광석, 유연탄, 스크랩 등 원료 가격 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가격 관련해서는 "국내 수급 상황과 국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체에 가격 인상 도미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삼성전자 · LG전자 정기주총〉

# 최지성 사장 "2020년 매출 4천억불 달성"

## 이인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520억원 승인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서초동 삼성전자빌딩내 다목적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매출 136조원, 영업이익 10조9000억원 달성 등 2009년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이인호(신한은행 고문)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이인호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보다 30억원 줄어든 520억원으로 확정했다. 보수총액은 줄었지만, 이사수는 지난해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보수한도는 기존 61억원에서 74억원으로 사실상 21.56% 늘어났다.

이는 3년 마다 지급되는 성과급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520억원중 일반 보수는 220억원이고 장기 성과보수는 300억원이다. 1주당 배당금(배당율)은 보통주 7500원(150%), 우선주 7550원(151%)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최지성 사장은 "지난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경영 여건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 결과, 연결기준 매출 136조원, 영업이익 10조9000억원을 기록해 창립 40주년만에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동시에 돌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IT로 대표되는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건강과 환경, 에너지 등 라이프 케어 사업까지 도메인을 확장해 2020년에는 매출 4000억달러, 브랜드가치 톱5 달성 뿐 아니라 가장 존경 받는 기업, 가장 혁신적인 기업 부문에서 톱 클래스가 될 것"이라며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했다.

송영록 기자
*syr@etoday.kr*

# 남용 부회장 "향후 3년이 LG 운명 가른다"

## 이사보수 한도 45억원 유지…주당 배당금 보통주 1750원

남용 LG전자 부회장이 LG전자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LG전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남용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주총회 승인 이후 사내이사는 강유식 부회장, 남용 부회장, 정도현 부사장 3인으로 진용을 정비했다.

또 LG전자는 6년간 재임했던 홍성원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재선임됐고, 주종남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에 주인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고 이규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 경쟁력 유지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억원을 유지한 안건이 승인됐다. 또 주당 예정배당금은 보통주 1750원, 우선주 180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남용 부회장은 경영보고를 통해 "애플과 구글과 같이 과거에 경쟁가가 아니었던 기업이 TV 등의 경쟁상대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 3년이 LG전자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남 부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8%로 경영환경이 안 좋았다"면서 "LG전자는 매출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5%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36.3%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 부회장은 "사업부문별로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매출이 19조6000억원으로 19.9%의 증가와 3.9%의 이익률을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모바일커뮤니케이션 부문은 수익률이 7.3%로 하락했는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 한진해운홀딩스, 최은영 · 조용민 공동대표 체제

## 이사진 기존 9명→6명으로 축소

한진해운홀딩스가 최은영 · 김영민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은영 · 조용민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공동 대표였던 김영민 사장은 분할 자회사인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한진해운 경영에만 매진하게 된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19일 오전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이사에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을 재선임하고 조용민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또 김찬길 재단법인 양현 이사, 오용국 국민은행 경영자문역, 서동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한진해운홀딩스의 이사진은 기존 9명에서 6명으로 축소됐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진해운홀딩스 관계자는 "조용민 부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은 지주회사인 홀딩스와 자회사인 한진해운의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며 "김영민 사장은 한진해운의 턴어라운드를 위한 한진해운 경영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영업수익 128억 원, 영업손실 1억 원, 계속사업이익 76억 원, 당기순손실 1조3132억 원 등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당기순손실 1조3132억원은 회사분할기일 이전인 2009년 11월까지 해운사업부문의 중단사업손실 1조3208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한진해운홀딩스 관계자는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구조 확대와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수익증대,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 기업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형 기업구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신 기자

# 현대기아차, 임직원 10만명 헌혈캠페인 전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국내외 10만 임직원이 대규모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다음달 중순까지 한 달간 임직원 헌혈봉사 기간으로 정하고, '2010 글로벌 헌혈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그룹 내 17개 계열사의 전국 30여개 사업장과 4개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약 10만여 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대우조선-포스코 "가까이 더 가까이"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

대우조선해양이 포스코와 사업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기존 후판거래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함께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공동 사업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인수의 적임자로 거론되는 포스코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인수 환경의 유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포스코와 친환경 2차 선박 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포스코의 연구개발력을 활용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약 30억원 정도(인건비 제외)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 선박은 열효율이 높아 운항시 연료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대형 벌크선이나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막대한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연료전지의 상용화가 이뤄지면 대우조선의 수주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 연료전지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차세대 선박에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포스코와 풍력발전사업에서도 협력을 시작했다. 포스코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드윈드사의 기술력이 포스코의 관심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포스코와의 신설법인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의 진척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해 기본입장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용 후판의 45%를 포스코에서 공급 받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더해 이처럼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함께 나서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지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은행의 M&A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고 가는 것은 득이 되면 됐지 잃어버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 일자리 많이 늘린 기업 1위 '삼성전자'

## 사업서비스 · 외식 일자리 '뜨고', 섬유 · 제지 '지고'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기업은 삼성전자로 모두 2만908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서비스와 외식업종의 직업군은 뜬 반면 섬유 · 제지 업종의 취업문은 좁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003~2008년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고용추이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5만5379명에서 8만4462명으로 종업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LG디스플레이가 1만1527명, CJ푸드빌이 1만182명으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GM대우(8800명 증원), 신한은행(6111명), 아워홈(5862명), 하이닉스반도체(4891명), 신세계(4885명), 우리은행(4708명), 현대자동차(4549명) 등이 일자리를 많이 늘린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상의측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등 수출의 1등공신 전기전자 업종이 신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CJ푸드빌, 아워홈, 신세계 등 서비스업도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용 1000대 기업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른바 '뜨고' 있는 직업군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 외식 · 호텔 · 건설 · 제약 업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제지 업종의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사업서비스업종은 2003년 6만8261명에 불과했던 일자리가 2008년 12만945명으로 77.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및 호텔업종도 같은 기간 60.4%, 건설 및 설계업은 44%, 제약업종은 38.2%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제지 업종은 일자리가 39% 감소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 수보, 무역보험공사 출범 기획단 발족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출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출범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수보 정태윤 부사장을 단장으로 무역보험 조직개편반, 신규무역보험 상품개발반, New CI구축반, 하위규정정비반, 출범행사준비반 등 5개반 30여명의 내부직원으로 구성됐다.

무역보험법 시행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직 개편,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수입보험을 비롯한 신상품 개발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전담 추진하며 진행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우선 무역보험운용을 위한 조직개편을 오는 6월 이전에 일찍 마무리하고 무역보험공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무역보험제도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보험과 보증제도'를 오는 6월까지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원유수입자금 대출보증제도, 자동차해외딜러보험 등 새로운 무역보험 상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보는 창립 18주년이 되는 오는 7월 7일에 맞춰 한국무역보험공사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무역보험시대 개막을 선포할 계획이다.

황의신 기자
*phillа@etoday.kr*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축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 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 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 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펴낸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전공 (8개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성공학사고시 |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무료 1644 - 8144

### 집값 싸고, 계약기간 길고

# 공공임대아파트 뜬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전세보다 계약기간이 길어 잦은 이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도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이면서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LH는 수원 광교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지구, 성남 여수지구 등지에서 총 7977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는 일반청약 시에도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이다.

가장 첫 선을 보이는 단지는 성남 여수지구에서 나오는 130가구다. 그 뒤를 이어 오는 9월 별내지구 478가구와 파주 운정지구 1686가구가, 11월 광교신도시에서 3037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청약저축을 가진 1~3순위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건설원가 50~60% 수준에서 결정되며 월 임대료도 수선유지비와 화재보험료 등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한 기존에 약속된 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 분양가는 임대시작 당시 가격을 기초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싸다. 입차인은 결정된 분양가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된다.

특히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10년짜리 공공임대도 입주 5년만 지나면 곧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분양전환 후 집을 팔면 양도세도 면제가 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청약 받을 수 있다"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장점과 임대기간 동안 청약통장이 살아 있다는 이점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민간아파트 분양이 부담스럽고 분양을 받아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공공임대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컴백 왜?

### 4년 만에 복귀…회사 측 "해외사업 강화 포석"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지난 2006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지 4년 만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석준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쌍용건설은 김 회장과 기존 김병호 사장의 공동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06년 3월 본격적인 쌍용건설 인수합병(M&A)을 앞두고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듬해 2월 특별사면 됐다.

쌍용건설은 김 회장의 대표이사 복귀 배경은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쌍용건설의 해외사업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문서상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해외공사 발주처로 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해외사업 수주에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쌍용건설은 이로써 김 회장과 김병호 사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 미아삼거리에 27층 주상복합

서울 미아삼거리 일대에 27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 2동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삼거리역 인근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8390㎡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건폐율 55%, 용적률 667%를 적용받아 지상 2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동이 지어진다.

건물에는 전용면적 85㎡ 81가구와 115㎡ 51가구, 165㎡ 4가구 등 136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이 지역은 미아, 길음뉴타운과도 가까워 개발 가능성이 크고 도봉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과 접해 교통이 편리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 분당 전세시장 '후끈'

분당신도시 전세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몰렸던 강남권 학부모 수요가 분당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달 초부터 인근 판교테크노밸리로 기업들의 입주가 몰리며 직장인 수요가 더해져 전세가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풀이된다.

동판교 일대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젊은 부부들이 분당신도시 야탑동, 이매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소형 평형 매물은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닥터아파트와 분당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번주 분당 야탑동 동원로얄듀크 115㎡가 500만원 오른 2억~2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매동 아름건영 125㎡도 500만원 상승한 2억2000만~2억3000만원 선이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물건이 귀해진 것은 강남권 학부모 수요자들이 분당까지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이매동 분당하나공인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매수시기를 미루며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 난데다 직장인수요까지 더해져 전세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배 기가
sbkim@e-today.co.kr

■취임 1년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

# 공격형 CEO…건설에 인문학 입히다

### '소통경영'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이 지난 18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현대건설의 경영 성적표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2008년 대비 27.6% 증가한 9조2786억원을 달성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대비 22% 증가한 558억원을 달성해 창사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6년 만에 1위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채 신용등급이 종전 A+(안정적)에서 업계 최고수준인 AA-로 상향됐고 건설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인 'DJSI Korea Top20'에 편입됐다. 또한 보스턴컨설팅그룹 선정 '가치창조기업' 건설부문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역사, 철학, 종교, 심리학 등 인간의 삶(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올 현대건설 신입사원 168명 가운데 15명이 철학, 심리학, 조각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다른 해보다 유독 인문학 계열 전공자가 많았다.

신입사원 교육 커리큘럼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서울대 인문학 과정 등 인문학 중심으로 바꿨다.

통합과 통섭의 시대에 다문화, 다인종을 아우르는 '어울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두는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

>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상최대인 매출 10조원 이상, 수주 20조원 이상, 영업이익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주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매출 10조원, 수주 20조원은 아직까지 국내 건설업체가 달성하지 못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실적이다.

공격적인 글로벌 경영도 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김 사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중동, 동남아, 유럽 등 27개국을 돌았다. 체류 기간만 총 44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해외출장 길에 오르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인문학,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

김 사장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평소 읽은 책을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는 CEO로도 잘 알려진 김 사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음악회 '봄의 속삭임' 개최, 연극 '손숙의 어머니'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 관람과 건축미학 특강, 뮤지컬 '영웅' 관람 등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경영철학을 전하기 위해 대학특강(숙명여대, 고려대, 명지대, 서울대, 연세대, 상명대 등)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김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와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 등 10만 명으로 구성된 '현대건설가족 사회봉사단'을 출범시킨 것도 김 사장의 열정에서 비롯됐다.

현대건설가족 사회봉사단은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사랑의 집 고치기' 협약을 체결하고 57세대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다.

겨울방학 중에는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공부지도에 나서는 '희망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글로벌 톱20 진입 순항

"회사가 잘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 사장은 '현대건설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화두로 미래전략인 '비전 2015'를 수립해 지난 연말 대내외에 선포했다.

비전 2015는 화합과 단결로 그룹사 간 시너지를 강화시켜 2015년까지 매출 23조, 수주 54조, 영업이익률 9.5%를 달성해 '글로벌 톱20'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사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원전 시공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수주한 UAE 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본부 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글로벌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공공발주 공사 적극 참여 △해외사업 조직 및 역량 강화 △감성 디자인 상품 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미래의 물 부족 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복지사업'으로 미래 전략 사업이라고 판단, 후세대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분야에 적극 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주한 UAE 원전 착공과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작업과 함께 대체에너지, 물 관리 등 친환경 신성장 사업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지역에서 발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에 알제리와 카자흐스탄에 신규지사를 열었고, 자카르타와 뉴델리 및 홍콩 등에 영업지사장을 파견해 수주 극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성일 기자
hsi@etoday.kr

상상에 기술을 더해 꿈을 현실로!

driving science

## 미래 첨단자동차에 대한 당신의 상상,
## 현대모비스의 연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힘이 되는 드라이빙 사이언스의 세계 –
미래의 자동차를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상상해 주세요.
당신의 상상력에 현대모비스의 첨단기술이 더해지면
내일의 자동차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

HYUNDAI MOBIS driving science

# 가상화 시스템, 기업정보 유출 막는다

## 보험 · 증권 등 금융업계 도입 활발

대규모 기업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의 보안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상화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상화 솔루션은 단순한 업무환경 개선이 아닌 회사의 최적화 업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 시스템이 기업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 시스템은 기존 운영체계(OS)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 공간에서 작업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그램만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외부 업무가 많은 영업직이나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주요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가상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기업 내 전산실이 전문화를 위한 아웃소싱 체계로 변화하면서 보안 강화의 대안으로 가상화 시스템 구축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모든 전산 시스템을 IBM이 전담하는 전문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 이직률이 높은 보험설계사의 관리가 수월해졌다.

신영증권도 최근 HP가 전산 아웃소싱을 담당하면서 전문화 확보와 전산실 직원 퇴직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비용절감과 보안 강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영증권은 연간 40억원이던 전산투자 비용이 10억원으로 줄면서 투자 분배의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

가상화 솔루션 업계 역시 이같은 기업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체크포인트코리아는 USB 스틱 형태의 가상화 솔루션 '아브라(Abra)'를 출시해 외부 PC에서도 최적의 업무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제3자의 기기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원격 직원과 계약업체의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보안성이 강화됐다.

체크포인트코리아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판매 목표를 5만개로 설정, 시장공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체크포인트코리아 조현제 사장은"아브라는 직원의 원격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안전한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그동안 비싸고 무거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원격에서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 마이크로블로그시장 '4파전'

## 트위터 · 미투데이 · 요즘에 이어 커넥팅 합류

미국에서 들어온 트위터가 국내에서 호응을 얻으며 NHN이 네이버 '미투데이'를, 다음이 '요즘'을 선보인데 이어 네이트가 단문 블로그 서비스'커넥팅'을 선보이며 국내 마이크로블로그 시장이 4파전에 돌입했다.

포털업체들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마이크로블로그와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자사의 검색 포털 연계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약 20만명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는 IT 헤비유저와 오피니언리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르는 사람과의 단문 의사소통을 정보를 수집하고, 인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NHN이 서비스하는 미투데이는 서비스 시작 2년만에 누적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업체중에서 시장을 선점했다.

NHN은 지난 11일 미투데이의 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소셜네트워킹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 2분기 내 사람찾기와 친구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가입자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50자의 짧은 글을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요즘(yozm.daum.net)'을 지난달 오픈했다.

요즘은 프로필 기능을 강화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요즘 프로필에 등록한 나이, 성별, 혈액형, 취미 등을 등록해 관심사를 가진 인맥을 찾을 수 있다. SK컴즈도 단문 블로그 서비스 '커넥팅'을 지난 17일 오픈했다.

커넥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심민관 기자
*smk@etoday.kr*

# 이통사 무선인터넷 콘텐츠 '외화내빈'

## 유선환경 소비행태 무선으로 바뀌는 것 인터넷시장 퇴보 지적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무선인터넷 사업 확장을 경쟁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통사업자들이 저마다 무선인터넷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요금제 이외에 특별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별로 차별화 요소를 구상해야 하며, 유선환경의 소비행태가 환경만 무선으로 바뀌는 것은 오히려 전체 인터넷 시장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전체 10%도 되지 않는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 인터넷 환경이 무선보다 유선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화도 활성화의 과제로 꼽힌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록수는 10만개, 안드로이드도 3만개를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돼 있다.

일부에서는 무선인터넷이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 증권, 산업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내부자원 중심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에 맞는 혁신과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연구원은 "기업은 M&A, 제작 아웃소싱, 외부 인력 영입 등 기존 유선환경에서 사용하는 소비행태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 삼성 SDS 데이터센터 지진에도 '이상무'

삼성SDS는 ICT수원센터가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인 '티어 쓰리(Tier3)'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 SDS가 획득한 티어3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유지보수가 가능한 데이터센터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2007년 말에 개관한 삼성SDS ICT수원센터는 전기 및 기계설비의 이중화는 물론, 가옥의 30%가 파손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규모의 진도 9.0 강진과 1,000kg/㎡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

심민관 기자 smk@etoday.kr

# KT, 中企벤처 동방성장 모색

## 오픈에코시스템으로 IT생태계 재구축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협력, 컨버전스 신성장사업 발굴 등을 통해 IT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온 KT가 오픈에코시스템(Open Ecosystem)으로 IT산업 생태계를 리모델링한다.

KT는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KT 임원, 외부 초청인사, 포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IT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KT 오픈에코시스템 발전 방향은 △신성장사업 공동발굴 기회 확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제공 △참여범위 확대 및 오픈생태계 다원화 △사업 제안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창구 단일화 등이다.

이 같은 발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및 제작 공간 △개발도구 제공 등 개발환경 △주요 통계정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다양한 오픈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지원을 위한 에코노베이션(Econovation) 센터를 상반기 중 서울지역 두 곳에 구축하고 향후 전국 거점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상반기 중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제, 주소록, VOD API 등으로 개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기존 운영 중인 미디어, IT, 신사업 펀드등을 활용한 오픈 IPTV, 모바일 앱 등 오픈 사업 모델을 활성화도 추진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벤처기업 IT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일영 KT 코퍼레이트센터장은 "변화된 오픈 생태계도 아직 베타버전에 불과하며 참여와 공유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향후 만들어갈 KT 오픈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 최시중 "무선인터넷시장 활성화 시킬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18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2003년 2조 6000억원 규모였던 방송광고시장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30년간 정체 상태에 빠진 방송산업 혁신을 시작으로, 다소 늦은 무선 인터넷 시장도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 안주해왔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외면해왔다. 이제부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주춤해도 정부가 먼저 활로를 열어주지 못했다면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제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과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전력질주하면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관 기자

## 클루넷, HD 동영상 초코플레이어 출시

클루넷은 한번 설치로 고화질 동영상을 완벽히 재생시키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초코플레이어'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코플레이어는 최근 출시된 멀티미디어플레이어로 다양한 기능과 부가기능을 내장하고 있다.고화질 동영상 재생 시 영상과 사운드, 자막 싱크 문제와 영상이 깨지는 코덱 문제 등을 해결했다.

또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영상 감상과 다운로드 받는 영상 전구간 탐색이 가능하고, CPU 점유율이 낮아 다중작업은 물론 저사양 PC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초코플레이어는 이달 말까지 베타서비스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포털 다운로드 서비스는 물론 초코플레이어 홈페이지(www.chocoplayer.com)에서 배포 중이며 트위터(@chocoplayer)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 네티즌 문화수준, 여전히 부족

국내 네티즌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문화수준은 100점 만점에 66.2점(중간 등급)으로 전년대비 4.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네티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정보문화지수 조사결과 매년 수준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천문화로 발전하는데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정보이용능력,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 정보기술 이용의 절제력등 정보문화시민 '지적자질(역량)'은 69.7점으로 전년 대비 5.2점 상승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예절인식, 규범준수, 네티즌 상호간 신뢰성등 '도덕적 자질(윤리)'은 76.5점으로 전년 대비 2.2점 올랐다.

인터넷 이용자 99.1%는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할 줄 알고, 74.2%가 인터넷 예약·예매를 할 줄 아는등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능 이해도는 높았다.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찹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
귀사의 잡지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화승그룹사보 여름호 가스기술공사 여름호 행복플러스 여름호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와 이투데이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 저출산에 출산·유아시장 위축

## 대형마트 · 온라인몰, 분유 · 기저귀등 출산용품 매출 감소세

최근 고용불안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출산·유아 용품 판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쇼핑 편의를 앞세워 급성장해 온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출산관련 제품의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활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4명 감소한 1.15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64명을 크게 하향하는 세계 최저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1만명 감소한 44.5만명으로 집계됐고 혼인건수도 지난 2008년 이후 2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산 및 유아용품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유통업체들의 판매추이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대표적 출산 육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의 올 1~2월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 -2.8% 감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출산유아용품 기획전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 여파로 이를 찾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분유와 기저귀는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플러스 신장을 했지만 올 1~2월 판매는 전년 기존점 대비 각각 -2.6%, 기저귀 -3.5% 등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온라인 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온라인 몰은 지난해 시장규모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백화점을 제치고 할인점에 이은 제2의 유통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생아용품의 매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G마켓의 경우 올 1~2월 두 달간 주니어 의류가 49% 증가한데 비해 분유나 신생아의류 등 신생아용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 10%씩 감소했다.

인터파크의 올해 1월~2월 수유 및 이유용품, 출산침구류 등 출산 관련 용품매출도 15% 감소했다. 이밖에 롯데닷컴의 경우도 다른 유아동 품목의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30% 이상씩 성장세인데 반해 분유, 기저귀, 젖병, 신생아의류 등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신장세가 거의 없는 판매 정체를 보였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유통업계, 황사마케팅 본격화

## 마스크, 세정제등 판매 활발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황사로 인해 유통업계가 황사 대비용품의 할인행사를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매년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철에는 평상시보다 먼지농도가 3배 이상 증가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까닭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영유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주요 유통업체들은 각종 관련 상품들의 할인행사와 경품제공 등 황사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손 소독제와 항균 비누 등을 최대 30%까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또 오는 24일까지 워셔액과 에어컨 탈취제를 20~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24일까지 황사용 마스크와 항균제 등을 10~30% 할인판매하는 '황사용품 모음전'을 진행한다.

일부 손 소독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주고 얼굴 등을 씻는 데 쓰는 클렌징 제품을 30% 싸게 제공하는 행사도 함께 연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많게는 50%까지 싸게 파는 '황사용품 특별가전'을 전 점포에서 펼친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몰에 비해 한발 앞선 마케팅을 펼친 결과 벌써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AK몰은 유한킴벌리의 크린가드 청정황사마스크와 3M황사마스크(5매)를 시중가보다 각각 60%, 40% 인하된 가격에 판매한다. 옥션은 황사 먼지를 막아주는 유모차 커버 등 황사에 대비한 아이디어 용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7월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주류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희 기자

# 경기米 막걸리, 일본시장 진출

## 일본 막걸리시장 80% 점유한 '이동JAPAN' 통해 수출

일본열도를 강타하고 있는 막걸리 열풍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일본내 막걸리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동JAPAN, 국내 유력 막걸리제조업체인 ㈜이동주조와 100% 경기미 막걸리 일본 수출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0% 쌀 막걸리의 경우,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밀가루나 수입쌀 막걸리에 비해 맛과 품질이 뛰어나 일본 고급 막걸리 시장을 선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동JAPAN 김효섭 대표는 "일본시장 내 국내 막걸리 업체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0% 경기미로 빚은 명품막걸리는 일본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확실히 사로잡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100% 경기미 명품 막걸리는 오는 4월말께부터 생산에 들어가 일본에 수출될 예정이다.

조상희 기자

# 롯데제과, 국내외 기업 5~6곳 인수 계획

## 글로벌시장 공략 가속화…2018년 7조5000억 매출 목표 제시

롯데제과가 국내외 기업 5~6곳의 인수 합병을 통해 글로벌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제과 김상후 사장은 지난 17일 과자박물관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파키스탄 진출과 함께 현지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재 국내외 업체 5~6개가 인수 물망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국내에서 연 매출 1조6000억 원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재 3억 달러 수준인 글로벌 매출을 2018년에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국내외 매출 합계 7조5000억 원을 거둬 아시아 제과 넘버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제과시장에서 롯데제과는 점유율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우선 인기가 높은 브랜드 제품 5가지를 '5대 메가브랜드 상품'으로 선정해 각 제품이 국내외에서 10억달러 이상씩 팔리는 제품이 되도록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업의 40% 정도는 직접 생산법인을 차려 진행하고 60% 가량은 현지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제과는 중국 칭다오와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제과공장이나 판매 지주회사를 두고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올해 7월이면 생산공장을 가동한다.

김 사장은 "해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인에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이다"며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과자 시장만 15조원이 넘는데 아직 1천억원도 못 팔고 있다"며 "경쟁사로서 현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오리온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현지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시간을 두고 사업 규모를 끌어올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인수한 ㈜기린에 대해서도 "지난해 매출이 6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00억원까지 높일 것"이라며 "흐트러진 조직을 재건하는 데 주력하면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제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식품업계, 아침대용식 출시 '봇물'

## 낱개포장 떡 · 쌀 수프 · 콩 원료인 동부묵등 판매

식품업계가 빵, 김밥, 시리얼 등 기존의 아침대용식에 식상해진 소비자들을 겨냥해 보다 강화된 영양성분과 간편함을 추구한 다양한 아침대용식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조리나 데울 필요가 없고 낱개 소포장된 대용식 제품과 집을 나서면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간편한 대용식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옛맛찰떡'은 국산 찹쌀, 쑥, 흑미, 현미, 검은깨 등의 천연원료로 만들어 달지 않은 전통 찰떡으로 뇌 발달에 좋은 견과류도 포함되어 있어 바쁜 등교길이나 출근길 간단한 식사로 안성맞춤이다.

오리온 닥터유의 '고단백 영양바'도 간편한 식사대용식으로 많이 찾는 제품이다. 밀가루 없이 콩으로 만든 고단백 영양바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영양소 비타민 A, D와 함께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 크렌베리, 살구, 푸룬 등 3가지 과일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다.

풀무원의 '생가득 쌀수프'는 한국식 웰빙 생수프다. 밀가루와 버터 대신 쌀 100%와 포도씨유로 만들어 한결 담백할 뿐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고 속에 부담이 없어 입맛 없는 아침 식사대용식에 알맞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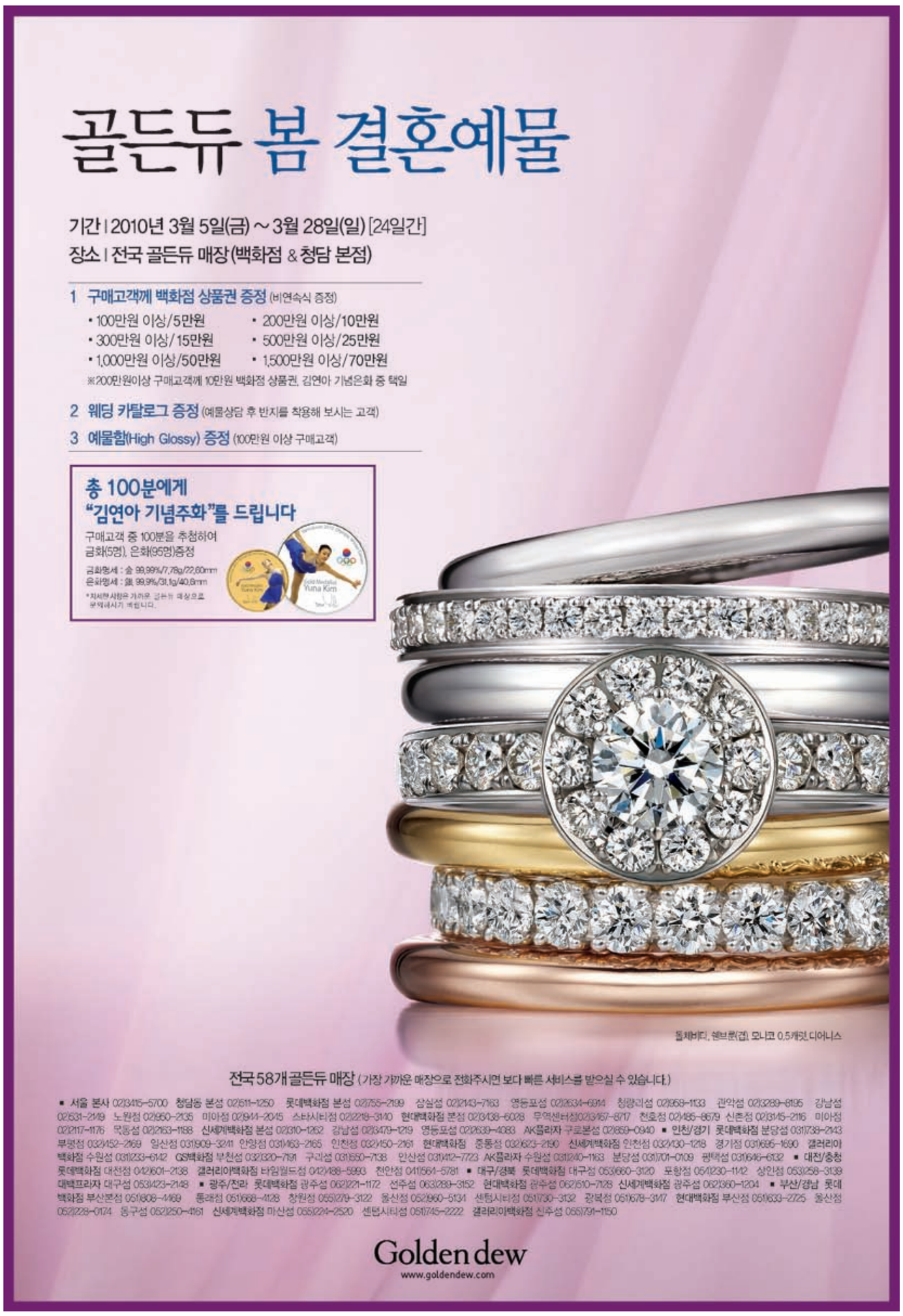
### 한국인 매운 맛의 비밀
### '매운 음식'

'한국사람 매운 맛은 매운 고추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모양이다. 이마트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고추장 매운 맛 등급 상품의 1년간 매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람은 '매우면 매울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보면, 판매된 매운 맛 등급 고추장 7만6559개 중에 절반이 넘는 4만515개 (52.9%)가 '무진장 매운 고추장'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아주 매운 맛 고추장' (1만7097개, 22.3%)이었으며 '매운 맛 고추장' (1만0262개, 13.4%), '보통 매운 맛 고추장' (8685개, 11.3%)의 순 이었다.

또 작년 4월에 출시된 즉석카레도 마찬가지. 매운 맛 판매 비중이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황의신 기자
*philla@etoday.kr*

# 구직자 부모 절반, 자녀 취업에 관여

## 56.3%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극심'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구직자만큼 바빠진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구직자들의 부모다. 실제로 구직자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녀의 입사지원과 진로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현재 구직자 자녀를 가진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취업준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5%였다. 구직자 부모 중 절반 가량은 자녀의 취업준비 과정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을까. 가장 많은 응답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스크랩해 준다'(92.9%)였다. 채용공고 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 면접 정보 등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취업정보의 취합에 나서고 있는 것.

또 '지원할 기업을 골라준다'(38.4%)는 부모도 많았다. 부모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자녀가 지원할 기업을 선택하는데 조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함께 한다'(20.2%)거나 '취업박람회에 동행한다'(7.1%)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면접장까지 따라간다'(3.0%)는 '열혈' 부모도 있었다.

이렇듯 자녀와 함께 취업준비에 뛰어들 정도로 열성적인 부모들이지만 그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았다. 전체 응답자에게 구직자 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56.3%)와 다소 그렇다(31.5%) 등의 반응이 90%에 육박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으로는 '취업준비로 예민해진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29.1%)가 가장 많이 손꼽혔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자녀의 취업준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서'(23.9%)란 의견도 상당수였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외식 창업, '제로 마케팅'이 뜬다

## 화학조미료 · 트랜스지방 · 주방장 없애 웰빙 · 비용절감 추구

창업시장에 '제로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에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는 '무첨가', 트랜스지방 제로, 간편화된 조리시스템으로 주방장 없이 조리 가능한 '쿡리스' 등이 제로 마케팅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창업전문가들은 웰빙 트렌드와 비용절감이 창업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이러한 제로 마케팅에 앞서가는 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화학조미료 '무첨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면서 외식시장에서는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거나 본사에서 직접 물류유통을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메뉴에 MSG(인공화학조미료) 등 일체의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냄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쌈전문점 '원할머니보쌈'은 보쌈류와 족발 그리고 새싹쟁반무침면 등 모든 주력 메뉴에 인공화학조미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쌈이라는 음식 자체가 기름기를 뺀 담백한 고기를 김치 등 야채와 함께 싸 먹는 지극히 건강지향적인 음식인데다, 인공조미료 무첨가로 식품 유해 논란을 불식시키며 고객들의 선호도를 한층 더 높였다.

웰빙부대찌개전문점 '박가부대찌개/두루치기'도 전 메뉴에 MSG를 첨가하지 않고 있다. MSG 무첨가와 함께 고급 수제햄, 사골육수 등을 사용해 부대찌개를 웰빙 먹거리로 재탄생시켰다.

박가부대는 부대찌개와 두루치기를 접목, 부대찌개로 점심 수요를 잡고, 두루치기로 저녁 술 자리 손님들을 끌어 모아 점포 가동률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메뉴를 테이블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으로 주방 인원을 최소화해 인건비 등 점포 운영비 부담을 줄였다.

### 기름기 뺀 구운 치킨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름기를 빼 트랜스지방이 제로인 구운치킨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구운 치킨의 대표 주자는 참숯에 구운 바비큐치킨을 내세운 참숯바비큐치킨전문점 '훌랄라'. 참숯으로 구워 기름기를 쏙 뺀 바비큐치킨은 트랜스지방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 살찔 걱정이 덜하다는 점에서 여성 고객들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만 170여 개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현재 전국 7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바비큐치킨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바비큐치킨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조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도 특징. 15분 내 최대 5마리까지 동시에 구워낼 수 있는 조리기기를 개발, 조리 시간과 노동 강도를 크게 줄였다. 1명이 2~3명의 몫을 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유럽풍 레스토랑형 치킨호프전문점 '치킨매니아'는 기름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 250도 오븐에서 구워 담백한 맛을 살린 오븐구이치킨을 내놓았다. 건열과 습열을 통한 미세 수분 유지 기능으로 조리 후에도 육질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재료를 사용, 24시간 숙성을 통해 기름기를 뺀 웰빙오븐구이를 비롯해 깐풍양념구이, 순살치즈오븐구이 등이 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인턴연계채용, 기업은 '긍정적' vs 구직자는 '부정적'

## 미리 검증할 수 있다…오히려 퇴사율 높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제를 거쳐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추세에 대해 인사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 및 대학생들은 일시적인 취업난 해소와 정규직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직자 및 대학생 1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0%가 인턴제를 신입사원 채용에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37.5%가 '실질적인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를 꼽았다. 이어 '인턴기간 중 타 기업의 정규직 입사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34.3%, '정규직 대비 적은 급여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33.7%, '우수인재에게만 몰려 지원자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10.8% 순이었다.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가 56.0%로 가장 많았다. '지원기업에 자신을 좀더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는 31.4%, '정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쟁심리 유발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29.0%,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신중하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는 17.8%이었다.

인턴 연계 채용방식을 하는 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인턴제 후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정규직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인턴기간 중 단순업무가 아닌 실무업무 경험 강화'는 23.6%, '현 인턴십 평균임금보다 인상된 임금 지급'은 8.8%이었다.

반면, 기업 인사담당자 356명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연계한 신입채용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87.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인턴연계 채용에 대한 선호도

| | 긍정적 | 부정적 | 이유 |
|---|---|---|---|
| 기업 | 81.0% | | 미리 검증 가능 |
| 구직자 | | 64.0% | 취업난 해소 안돼 |

〈자료 : 취업포털 커리어〉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89.0%가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미리 검증해볼 수 있기 때문에'를 꼽았으며 뒤이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미리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55.5%, '묻지마 지원과 허수 지원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29.7%, '애사심과 충성도를 미리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7.4% 순이었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인턴기간 중 타 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더 나은 인턴자리로 가려는 지원자들로 오히려 퇴사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가 52.2%로 가장 많았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해외건설인력 찾아라" 인력확보 비상등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외플랜트 건설 수주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 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건설사들마다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것.

헤드헌팅 전문기업 HR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분야 채용공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해외인력 의뢰 건수는 전체 건설분야 채용공고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해외건설경력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직종은 해외영업, 현장관리, 프로젝트 매니저, 플랜트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루 인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직급에 상관없이 해외 건설현장 경험이 있거나, 영어·아랍어 등 해외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조상희 기자

# 여성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 온라인 바이어 발굴 및 무역전문가의 현장 실무지원

중소기업청은 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바이어 매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Global Sources와 같은 해외유명 B2B 무역사이트에 여성기업제품을 홍보해 제품에 관심이 있는 해외바이어와 여성기업을 매칭시켜 수출로 연결시키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무역실무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수출초기 여성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올해부터는 무역전문가가 바이어연결을 위한 이메일 작성부터 바이어 상담,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 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3)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여성기업 제품들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연봉협상이 없다?

직장인들의 연봉협상이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통보의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연봉협상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에 아홉은 협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협상은 하지만 형식적이고 통보나 마찬가지인 형태'를 꼽은 응답자가 59.3%로 가장 많았고, '협상이 없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도 33.2%로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 인사담당자 "서류전형 합격 10분내 판가름"

## 선호되는 이력서 '경력 중심 기술' '읽기 편한 이력서'

기업이 서류전형에서 한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9.9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원수 100명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255명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평가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인사담당자들이 입사지원자 한 명의 서류전형을 검토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9분 정도로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 분포별로 살펴보면 '평균 5분 이상~10분 미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균 10분 이상~20분 미만'이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평균 5분 미만 12.9% △평균 20분 이상~30분 미만 6.7% △평균30분 이상~40분 미만 5.5%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력서 유형으로는 경력중심으로 기술된 이력서 유형이 33.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간 제목 및 짧게 단락이 나뉘어져 있어 읽기가 편한 이력서(27.5%)도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기피되는 이력서 유형으로는 '내용도 적고 성의 없어 보이는 이력서'가 33.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이직횟수가 많이 엿보이는 이력서'도 29.0%로 높았다.

조상희 기자
mountjo@e-today.co.kr

# ‘고지혈증’으로 병원찾는 청소년 급증

## 고혈압 등 심각한 혈관질환 원인, 적당한 식사와 운동필수

최근 20대 미만 청소년들이 고지혈증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중년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2009년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 중 ‘고지혈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19.3%, 20% 증가했으며 진료인원은 2009년 92만명으로, 2005년 45만5천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별로는 최근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7.9%, 여성이 20.6%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59세로 매년 총 진료인원의 30~33%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에서 24.9%로 고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세미만의 청소년(16.2%)이 20~49세의 중년층(13.9%)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건강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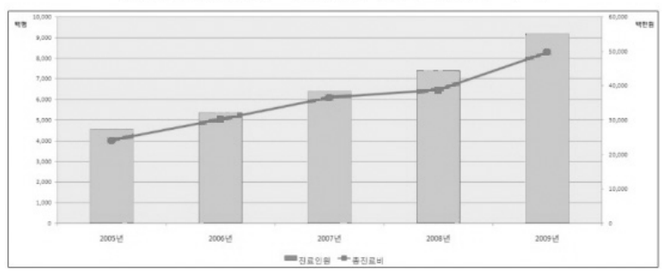
20세미만의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고지혈증은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 많으나, 서구화된 식단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그 원인이 된다. 또 식사량에 비해 부족한 운동량이 비만으로 연결돼 고지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과 함께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등 심각한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식사를 통해 비만을 피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연도별 고지혈증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추이




# 봄철, 담음·어혈 제거로 ‘기(氣) 살리자’

## 인체 내 수분·혈액 정체되면 아픈 곳 생겨

완연한 봄을 맞아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역동적인 이런 기운은 바로 기(氣)를 말하는 것으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이 기가 충만해야 한다.

담음과 어혈은 수분과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돼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인체 내에 계속 쌓이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인체 내에 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해 기순환이 어렵게 된다.

담음 증상은 가래, 노란 콧물, 장내가스, 숙변 등이 대표적이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담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담음에 속한다. 담음요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도 역시 인체 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긴 요통이다.

따라서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조금씩 자주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꼭 지키고 술과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현미, 보리, 율무, 된장류를 비롯 사과 딸기, 배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수시로 중완혈(배꼽과 명치의 중간지점)을 주먹을 쥐고 시계 방향으로 십여분 정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다.

담음이 생성된 비위, 소화기 등 치료를 위해 따뜻한 수건을 올려 20~30분 동안 복부 찜질을 해주고, 체온을 데워주어 담음을 배출하게 도와주는 좌훈요법 등을 실시한다.

어혈은 인체 내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어혈이 있으면 어느 부위가 콕콕 쑤시거나, 심하면 만졌을 때 덩어리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출혈이나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증상은 다양하다.

기혈순환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고, 반신욕이나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과 너무 단 음식의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 특히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어혈이 많이 발생하므로 산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곽도흔 기자

# 일양약품, 여드름케어 ‘SIS아크클리닉’

일양약품이 숙명여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공동설립한 SIS 면역학연구센터가 첫 제품을 내놨다.

일양약품은 민감성 및 여드름성 피부트러블에 순하고 효과적인 저자극성 천연 특허성분 화장품 ‘SIS 아크클리닉’ 1호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SIS 아크클리닉은 SIS 면역학연구센터 출범 후, 첫 연구개발 성과물로 R&D 노하우를 요소에 맞게 접목시켜 면역학자,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와 제약사가 공동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무알코올, 무색소, 천연향의 자연 그대로의 안전한 천연물과 특허성분으로 제조해 과잉피지분비, 각질 등 피부트러블 완화와 모공조절 및 항균, 재생을 도와주고 여드름 외에 다양한 문제성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생활습관

## 식전 물 한 잔과 식이섬유 섭취, 유산소운동은 필수

하루 800kcal만을 섭취하는 소녀시대 식단, 대형 쇼핑몰 내부를 빠르게 걸어 다니며 살을 빼는 몰링(malling) 다이어트 등 이색 다이어트 방법이 노출의 계절을 앞 둔 여성들 사이에서 연일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다이어트에 앞서 살 안 찌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선행이돼야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체중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다이어트의 적 ‘식탐’ 줄이는 방법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습관들을 알아본다.

**① 맛보는 습관을 줄이기**

우리 집 부엌, 마트 시식코너,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매장 등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음식을 맛보며 산다. 이렇게 맛보는 음식은 많으면 하루에 수백㎈가 넘는다. 음식에 많이 노출 될수록 식탐이 커지므로 맛보는 습관을 줄이면 식탐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시로 물과 차 마시기**

물은 체내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사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는 것이 좋다.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식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③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하기**

생선이나 두부, 콩, 조개류, 닭 가슴살 등 근육형성에 좋은 단백질과 인체 대사 과정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준다. 특히 식이섬유는 몸속의 노폐물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고 공복감을 해소시켜주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④ 하루 15분 유산소운동 하기**

식탐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5분 정도 걷기,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자전거타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하는 것이다.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40분 이상의 유산소운동이 필요하지만 식전 또는 공복 상태에서 15분 정도의 유산소운동은 식탐을 줄여 식사량을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반신욕으로 스트레스 풀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달콤한 간식을 찾거나 음식 먹으며 오는 포만감에서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2~3회 체내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반신욕을 하는 것이 마음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⑥ 쇼핑하며 칼로리 소모하기**

백화점,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를 빠르게 걸어 다니며 살을 빼는 방법으로 별도의 운동시간을 내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몰링(malling) 다이어트는 눈으로는 봄 옷을 쇼핑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고 걷기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처음부터 빠르게 걷는 것 보다는 만보기를 준비해 1시간 동안의 걷기운동량을 파악하며 점차 걷는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⑦ 한 정거장 미리 내리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계단을 오를 때는 두 칸씩 올라 에너지 소비를 높이도록 한다.

퇴근길에 전철이나 버스에서 한 쪽 다리를 살짝 들고 다른 한 쪽 다리는 까치발로 서 있는 것을 반복한다. 가능하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속보로 걷는 것도 좋다. 속보만큼 지방 제거에 좋은 운동은 없기 때문이다.

**⑧ 취침 전 스트레칭 하기**

자기 전에는 근육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으로 피로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냉증과 부기를 해소하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

숙면을 통해 피부세포나 근육의 합성이 촉진되고 다음날 대사량 또한 높아진다. 하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가 붓고 지방 축적이 심한 사람은 다리에 쿠션을 올려놓고 자면 도움이 된다.

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 항생제 복용후 한약 먹으면 흡수율 떨어진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한약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인의 장내세균에 의한 대사활성을 연구한 결과,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한약 성분의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과 같은 장내세균들이 죽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한약을 먹어도 한약 중 유효성분의 흡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약은 소화관에 서식하는 유산균과 같은 장내세균의 도움을 받아 한약의 유효성분들이 대사돼 체내로 흡수된 후에 약효를 나타내므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복용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인 진피(귤껍질)의 장내흡수 동물실험 결과, 한약유효성분의 흡수율은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과 감초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항생제 투여가 실험동물의 혈중 활성성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흔 기자

#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요령

## 물 자주 마시고, 외출 시 방진마스크 착용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 대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전국에 황사가 발생한 가운데 천식 등 심폐질환자나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며,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확장제를 휴대하고 코로 호흡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감기는 천식을 악화시키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수칙으로 창문을 닫고, 방을 걸레로 자주 닦아주며 가습기나 빨래등으로 습도를 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배움랜드
www.baeumland.com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BMW, 한국 진출 15년…수입차 판매 1위 고수

## 수입차 최초 현지법인 설립…수입차 시장 20% 돌파 앞둬

김효준 사장

BMW코리아(이하 BMW)가 올해로 국내 진출 15주년을 맞는다. BMW의 역사는 한국 수입차 시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BMW는 한국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산 증인이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수입차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BMW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고수하며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BMW 김효준 사장은 "이는 고객중심의 가치를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화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 수입차 시장 확대 기폭제 역할

BMW는 지난 1995년 7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올해 한국법인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BMW는 독일 BMW 그룹이 100% 투자해 국내 현지법인으로 설립했으며, 이는 국내 수입차 최초의 현지법인 설립이다.

지난 1995년 진출 당시 수입차 전체 시장은 2700여대로 BMW 연간 판매대수가 200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 자동차 시장은 생산대수와 판매대수면에서는 세계 6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량이 불과 2700여대에 불과했던 것.

이에 김효준 사장은 한국 수입차 시장의 폭발적 증가세를 예측해 독일 본사에 강력한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4년까지 연간 200대 미만에 그치던 판매는 1995년 7월 한국 진출 이후 6개월 만에 714대로 3배 이상 성장했다.

1996년에는 1447대로 이어져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아우디 등 수입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한국 지사 설립 이후 BMW는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국내 수입차 중 최대 규모의 종합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에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BMW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척박한 환경을 처음 개척한 선구자적 역할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특히 올해 국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 20%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수입차 업계의 맏형으로서 굳건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고의 딜러네트워크와 구축

BMW는 고객들에게 차량 구입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총 31개의 전시장과 29개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수입차 업체 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규모이다.

더군다나 BMW는 지난해 전국 주요 지역의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확장 이전해 고객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업계 1위 수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지난 2008년 서초, 마산 전시장이 신규 전시장으로 새롭게 오픈했고 지난해 3월에는 분당과 부산 전시장이 대규모 확장 이전을 했으며 4월에는 대전 전시장이 추가로 확장 이전 하는 등 활발하게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 5층 규모의 분당전시장은 분당동에 위치, 차량전시와 정비가 동시 가능한 '원 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전시장은 연면적 380평, 지상 2층 규모의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BMW는 지난 15년간 차량 판매와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중 BMW 독일 본사에서 실시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BMW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BMW Apprentice Program)'을 국내에 도입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BMW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BMW가 미래의 잠재적인 기술 인력의 육성을 위해 한국 대학에 BMW 본사에서 도입한 첨단 기술 교육자재와 선진 정비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교육의 발전과 졸업 후 안정적 취업기회 확보 및 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BMW는 교육용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비롯한 교육용 차량까지 각 학교에 기증했다.

또한 BMW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공대에 BMW 528i와 엔진 및 트랜스미션을 기증한 이래, 국내 대학의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설계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내 각 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에 BMW 차량을 연구용으로 기증해오고 있다.

거기다 BMW는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소(ACE Lab)가 주최하는 '지능형 모형차 설계 경진대회'를 지난 2005년부터 5년 연속으로 공식 후원하고 있다.

## 올해 전략적 모델 대거 출시 예정

2010년을 맞는 BMW의 각오는 여느 수입차보다 남다르다. 국내 진출 15주년을 맞는 만큼 BMW는 국내 시장에 전략적 모델을 대거 출시해 1위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각오다.

우선 지난 2월에는 프리미엄 콤팩트 자동차 시장에 BMW가 처음 선보이는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SAV)인 X1을 출시했으며, 상반기 중에는 PAS(Progressive Activity Sedan)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5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음달 1일 BMW의 베스트셀링카인 제 6세대 뉴 5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BMW 액티브하이브리드 X6와 BMW 액티브하이브리드 7 등 BMW의 기술력이 결집된 모델들을 대거 출시한다.

특히 다음달 초 국내에 출시 예정인 뉴 5시리즈는 국내 수입차 최고의 베스트셀링카인 5 시리즈의 풀 체인지 모델로 미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과 함께, BMW 특유의 역동성, 뛰어난 효율성,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장치를 적용했다.

뉴 5시리즈의 외관 디자인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비율과 함께 동급최장의 휠베이스, 길고 매끈한 엔진 커버, 보다 역동적으로 보이는 짧은 오버행, 쿠페 스타일의 우아한 루프라인과 함께 세련된 미적 감각과 역동적 모습을 미학적으로 결합시켰다.

또한 BMW 이피션트다이내믹 기술이 적용돼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발휘하며, 최첨단 서스펜션 기술 덕분에 스포티 하면서도 높아진 주행 승차감까지 동시에 만족시킨다.

BMW 김효준 사장은 "올해는 BMW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지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그 동안 많은 고객들이 보내준 사랑이 지금의 BMW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BMW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수입 자동차 업계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존경 받는 진정한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뉴 SM5, 3개월만에 계약 4만대 돌파

## 사전 예약 1만4천대…1일 최대 계약 2012대 기록 경신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월 18일 출시한 웰빙 프리미엄 중형 세단 '뉴 SM5'의 누적 계약 대수가 4만대를 돌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뉴 SM5'의 누적 계약대수 4만대 돌파는 지난 한해 SM5 총 내수 판매량인 6만960대의 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 12월 22일 이후, 하루에 700여대 (영업 일수 58일 기준)씩 꾸준히 계약된 성과다.

출시 직전 사전계약 1만4000대를 기록하고, 출시일인 1월 18일에는 단일차종으로 최대 1일 계약대수인 2012대를 달성하는 등 '뉴 SM5'는 다양한 기록을 경신 중이다.

르노삼성 영업본부 박수홍 본부장은 "누적 계약대수 4만대 돌파는 '뉴 SM5'가 최첨단 웰빙 편의 사양으로 가족을 중시하고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원하는 고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계약된 '뉴 SM5'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LE와 최고급 트림 RE가 각각 40%, 26%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캐딜락, 전국 시승행사

GM코리아는 오는 4월 18일까지 전국 7개 캐딜락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캐딜락의 혁신적인 성능과 디자인, 동급 최고의 편의사양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캐딜락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2010'을 개최한다. 고객들은 이번 시승 행사를 통해 캐딜락 CTS와 SRX, CTS 스포츠 왜건을 비롯한 캐딜락 인기 모델들을 직접 시승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서울의 2개 전시장을 포함한 전국 7개 캐딜락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kr

# 한국타이어, 세계 최고 권위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 '앙프랑'과 '옵티모4S' 2009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이은 쾌거

한국타이어는 겨울용 초고성능(UHP)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0 레드닷 디자인상(2010 red dot Design Award)'에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자사의 친환경타이어인 '앙프랑'과 '옵티모 4S'가 전세계 타이어 업계 최초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레드닷 디자인상(red dot Design Award)은 제품의 디자인, 품질, 기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성 등 다양한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한다. '2010 레드닷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전 세계 57개국 1634개 기업에서 참여했다.

한국타이어의 '윈터 아이셉트 에보'는 기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친환경, 초고성능 겨울용 타이어로 젖은 노면과 눈길에서 필수적인 핸들링과 제동력을 극대화했다.

한국타이어 마케팅기획부문 배호열 상무는 "한국타이어는 최근 독일 타이어 테스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세계 최고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상까지 수상하며 업계 선도적인 기술과 성능, 세계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대우차판매, 쌍용차 판매 딜러 물밑 접촉

## 대우차판매 "안 할 이유 없다"…르노삼성과 접촉설도

GM대우자동차로부터 일방적 자동차판매 계약해지를 당한 대우자동차판매가 쌍용차 판매딜러를 하기 위해 쌍용차와 접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과거 쌍용차가 대우그룹에 있던 시절 쌍용차를 판매해 오기도 했으며, GM대우로 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입장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 차량을 팔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도의상 GM대우 이외에는 완성차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회사가 나갈 방향은 다자간 멀티브랜드 도입을 통한 판매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쌍용차는 대우그룹에 소속돼 있어, 당시 대우차판매는 대우차(현 GM대우)와 쌍용차를 같이 팔아 왔었다.

2000년경에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다시 독립의 길을 가게 된 이후에도 쌍용차는 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해 2006년도까지 대우차판매에 판매를 의존해 왔었다.

하지만 2006년도에 GM대우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을 출시하면서 SUV에 강한 쌍용차와 함께 판매하는 것을 GM대우가 반대해 대우차판매는 쌍용차 판매를 접은 것.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쌍용차는 지금 생산은 할 수 있지만, 판매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판매망을 구축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우차판매와 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증권정보사이트에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다.

또한 대우차판매는 조만간 법원에 GM대우를 상대로 '차량 공급 단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미쓰비시, 5천만원대 '랜서에볼루션' 출시

### 기존 모델보다 10% 인하

미쓰비시모터스가 6620만원대의 기존 '랜서에볼루션'의 가격을 약 10% 낮춘 '랜서에볼루션 MR'을 출시했다.

미쓰비시모터스의 국내 공식수입사인 MMSK는 18일 랜서에볼루션 MR을 출시하며 가격은 기존 모델(6620만원)보다 낮춘 59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쓰비시는 랜서, 파제로에 이어 랜서에볼루션의 가격도 인하했다.

지난 1992년 첫선을 보인 이래 10기형으로 진화한 랜서에볼루션 MR 은 대형 사이드에어댐을 적용해 보다 당당한 스타일과 함께 차체 공기역학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MR' 배지는 랜서에볼루션의 최고급 버전으로서의 존재감을 표현해 준다.

랜서에볼루션은 미쓰비시가 추구하는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잘 컨트롤' 되는 자동차 만들기를 고차원적으로 끌어 올린 대표모델로 꼽힌다.

특히 랜서에볼루션은 탁월한 컨트롤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국내 와인딩 로드와 같은 극한 도로상황에서 어떤 고성능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공도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 車 내구성 현대차 '11위' 기아차 '20위'

### 美 J.D 파워 내구품질 조사

미국 J.D 파워의 자동차 내구품질 조사에서 현대차가 11위에 올라 우수한 내구성을 평가받은데 반해 기아차는 여전히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J.D 파워의 내구품질조사 VDS(Vehicle Dependability Study)는 출고된지 3년 이상 된 오너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출고 이후의 고장 여부와 품질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순위 및 내구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출고모델 100대마다 나타나는 결함 건수다. 내구품질에서 1위를 한 포르쉐의 내구성 수치는 110. 이는 출고된 100대의 포르쉐 가운데 결함 및 내구품질 이상이 110건이라는 의미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결함이 적고 품질이 우수한 차다.

올해 조사에서는 포르쉐와 포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리콜 사태를 겪고 있는 토요타는 100대 당 결함이 128건으로 드러나 6위다. 현대차는 출고차 100대 당 결함이 148건 보고돼 11위에 올라섰다. 캐딜락과 인피니티가 현대차의 뒤를 이었고, 최근 국내시장에 론칭한 5번째 일본 브랜드 '스바루'의 품질지수는 평균이었다.

BMW(18위)도 평균 이하의 품질지수를 나타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27위에서 20위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평균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는 출고 100대 당 167건의 결함이 보고됐다.

김준형 기자

# 日게임시장도 한류열풍

## 넥슨, NHN, 엔씨 등 국내 업체 일본시장서 선전
## 아케이드, 비디오게임 시장↓ 온라인게임 시장↑

아케이드(오락실게임), 비디오(PS2·3, X박스 등) 게임이 주를 이루던 일본 게임시장에서 한국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얻으며 시장 확대를 주도, 올해 10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는 넥슨 일본법인을 시작으로 NHN재팬, NC재팬 게임온 등이다.

특히 일본 게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아케이드와 콘솔게임이 점점 시장 규모가 하락하는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확대되고 있어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통적인 게임 강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2008년 기준 세계 게임시장의 15.02%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153억 달러를 형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23%가 감소했다. 이는 일본 게임시장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과 비디오게임 성장률이 각각 27.7%, 22.9%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일하게 온라인게임만 전년대비 3.1%의 성장을 보이며 시장 규모를 확대했다. 일본 게임전문 매체 엔터브레인과 일본 온라인게임협회(JOGA)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게임시장은 아케이드 게임이 70억 달러, 비디오게임이 62억 달러, 온라인게임이 9억 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 현황 및 전망

아케이드 게임이 전체 게임시장의 46%, 비디오 게임이 41% 등으로 여전히 우세하지만 온라인게임은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는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이 약 1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내 점유율은 한국게임이 약 40%로 가장 높고, 일본이 34%, 미국 17%, 중국/대만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1인당소비금액(ARPU)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동시접속자 수 대비 결제 금액(부분유료게임 기준)이 매우 높은데다 원화가 하락한 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된다.

일본의 경우 약 1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면 월평균 15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인식이 높아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다른 부가사업으로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일본 이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주요 장소는 자택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 및 학교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약 17%이다. PC방(복합카페)에서 플레이하는 비율은 약 4%에 달한다.

때문에 향후 브로드밴드 보급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와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2.1%이지만, 브로드밴드 가정 보급률은 67.6%에 달하며, 2008년의 경우 가정 보급률은 73.4%로 5.8포인트 증가했다.

넥슨 최승우 일본법인 대표는 "일본 온라인게임은 브로드밴드 보급과 맞물려 갈수록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러나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일본 이용자의 습성에 맞는 철지화 전략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심민관 기자
*smk@etodau.kr*

# 넥슨 일본법인, NHN 재팬 제쳤다

## 매출 기준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 1위 차지

넥슨 일본법인이 국내는 물론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간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는 NHN 재팬이 1위 자리를 고수해 왔다.

넥슨 일본법인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넥슨 일본법인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소개 및 주요 게임,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날 최승우 일본법인 대표는" 일본에서 1등 온라인 운영업체가 되는게 넥슨 일본법인의 가장 큰 목표이다"며"현재 1000만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또 "지난해 엔고 현상으로 인해 매출 기준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1위에 등극했다"며"올해는 다양한 라인업과 중장기 전략을 통해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한 넥슨 일본법인은 2005년 이후 연평균 4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매출 150억엔(약 1700억원)을 예상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NHN 재팬이 서비스하던 인기 온라인게임 아라드전기(던전앤파이터)의 서비스를 넥슨 일본 법인이 맡아 안정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바 롯데 구단과 후원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펼치며 다방면으로 넥슨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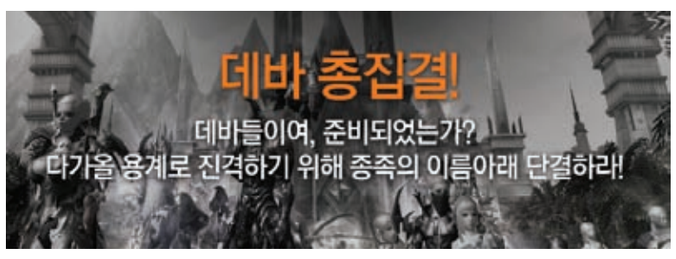
올해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과 마비노기 영웅전 등을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에 서비스, 매출 신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승우 대표는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은 올해 약 1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며 "콘솔과 아케이드게임 시장에 비해 온라인게임 시장 점유율은 저조하지만 열린 시장이라 생각하고 온라인게임 시장을 점점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승우 넥슨 일본법인 대표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에서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도쿄=심민관 기자
*smk@etodau.kr*

# 아이온, 오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오는 24일 '아이온'에서 1.9버전 '데바 총집결'을 업데이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1.5버전 업데이트인 '용족의 그림자'에 이어 8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또 오는 5월 진행될 2.0 업데이트 '용계진격'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줄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스턴 공방 시스템도 유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은 충격, 기절 등 상태 이상에 걸리면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상대 캐릭터에게 패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이 각 캐릭터별로 새롭게 부여돼 더욱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해졌다. 스턴 공방 시스템은 캐릭터 간의 밸런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공식 홈페이지 내 1.9 업데이트 스페셜 페이지를 오픈했다. 스페셜 페이지에는 1.9 주요 업데이트 내용 소개, 프로모션 등 풍성한 정보가 제공된다. 1.9 업데이트 '데바 총집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온 공식 홈페이지(aion.playn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관 기자

### 스타크래프트2 "친구와 함께 즐겨요"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중인 스타크래프트2(스타2)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19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스타2 비공개 테스터들이 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틀넷(Battle.net) 계정 이메일로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이메일로 받은 초대장을 함께 즐기고 싶은 지인에게 전달하면, 이를 받은 친구가 배틀넷 계정을 만들고 베타키를 등록하면 함께 스타2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11일 스타크래프트 앤솔로지,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 블리자드 게임을 등록해 스타2 비공개 테스트에 참여했던 이용자들도 그대로 테스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네오위즈게임즈 '아바' 대만 수출

## 올 하반기 공개서비스 목표…글로벌 게임으로 도약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는 대만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업체 호신 기가미디어 펀타운(이하 펀타운)과 밀리터리 1인칭슈팅(FPS)게임 아바(A.V.A)의 대만 수출 계약을 맺고 올 하반기 중 공개서비스(OBT)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아바)는 치열한 현대 보병전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즐기기 쉬운 아케이드적 조작성을 가미해 200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아바는 2007년 국내 공개서비스를 시작으로 매년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는 성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는 높은 기대감속에 중국 공개서비스를 시작해 글로벌 온라인게임으로서의 입지도 한층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현지화 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펀타운은 대만 내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네오위즈게임즈 이상엽 대표(왼쪽)와 펀타운 토마스 후이 최고운영책임자가 수출 체결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이상엽 대표는 "아바는 이제 전 세계 4개국에 수출된 명실상부 글로벌 FPS게임"이라며 "현지 파트너사와인 펀타운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해외 수출 다변화와 확대를 적극 모색해 글로벌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펀타운은 중화권 지역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기가미디어(Gigamedia Ltd) 자회사로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업체다.

심민관 기자
*smk@etodau.kr*

# 윈디 'COHO'

## e스포츠로 육성할 것

윈디소프트(대표 백칠현)는 17일 신도림 인텔 e스타디움에서 '컴퍼니오브히어로즈 온라인(COHO)'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철 해외사업본부장과 이진흥 개발 PM 등이 참석해 게임 전반에 걸친 사업 내용과 서비스 일정을 소개했다.

COHO는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실시간전략시뮬레이션(RTS)게임으로 보다 생동감 있는 행동을 연출할 수 있는 하복물리엔진이 적용됐다. 또 다양한 보병과 기타 병과들이 실제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등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윈디소프트는 COHO의 e스포츠 시장 진출을 위해 일반 모드, 시나리오 모드, 래더 모드 등을 도입했으며, 다른 RTS게임과 달리 성장 시스템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했다.

이 게임은 이달 말 프리미엄 테스트를 거쳐 내달 중 사전 공개서비스와 정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흥 개발 PM은 "4월 공개서비스 이후 e스포츠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PC방과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COHO를 RTS 시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e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이돌 스타, 뮤지컬에 떴다!

## 가요계이어 뮤지컬까지 점령…아이돌 천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돌 스타들의 뮤지컬 진출이 도드라지고 있다. 유명 스타들의 출연은 뛰어난 홍보효과와 투자 효과를 동반해 뮤지컬계에서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현재 가요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경우 10대 관객들을 끌어 모으며 잠재된 관객층을 개발해 막강한 티켓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소녀시대 제시카는 '금발이 너무해'에서 엘우즈역을 맡아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해 지난 14일 서울 공연의 막을 내리며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제작사인 PMC프러덕션 관계자는 "제시카가 많은 10대 팬을 뮤지컬 극장으로 끌어들였다"며 "제시카 덕분에 관람객 평균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전했다.

동방신기 시아준수는 '모차르트'에서 '볼프강 모차르트'역을 맡아 1월 2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모차르트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최사인 무크컴퍼니측은 "시아준수가 뮤지컬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거듭할수록 '아이돌 스타'의 편견을 깨고 자연스러운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방신기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끌어 모으며 호평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슈퍼주니어 성민과 예성은 뮤지컬 '홍길동'에 더블 캐스팅돼 3월 18일부터 2개월간 서울 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홍길동'은 고전소설 홍길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로, 홍길동의 재주나 모험 위주의 스토리가 아닌 활빈당의 활약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인간 홍길동의 사랑과 고뇌를 보다 실존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작품이다.

샤이니 온유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열리는 '형제는 용감했다'에서 동생 이주봉 역을 맡아 연습에 한창이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는 아버지의 부고로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인 로또 1등 당첨 종이와 미모의 법률 사무소 직원 '오로라'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소녀시대 태연은 오는 5월 7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되는 '태양의 노래' 여주인공 '카오루' 역에 캐스팅이 확정됐다. 뮤지컬 '태양의 노래'는 동명의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특이한 질병으로 인해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소녀와 서핑을 좋아해 늘 태양 아래에 사는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뮤지컬 관계자들은 "국내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멤버별 개인 활동을 지향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아이돌 스타의 무대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승예 기자
sysy@etoday.kr

뮤지컬 '모차르트' 공연이 이달 27일~28일까지 부산 문화회관에서, 4월 23일~4월 25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사진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볼프강 모차르트'역을 맡은 시아준수가 지난 서울 공연(1월 20일~2월 21일)에서 공연하는 모습.

#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 문학, 잠실등 4개 구장서 27일 개막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가 오는 27일 개막한다. 개막 2연전은 오후 2시 경기이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와 한화의 경기를 비롯해 잠실(두산:KIA), 사직(롯데:넥센), 대구(삼성:LG) 구장에서 열리며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작년 관중 500만 시대를 연 한국 프로야구는 올해엔 600만 관중을 목표로 기록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먼저 선수들은 각 부문별로 최선을 다해 멋진 플레이로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은 선수들에게 올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대표선발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 시즌엔 약간의 경기 규칙 변화가 있다. 먼저 스트라이크 존이 기존보다 좌우로 야구공 반개정도 더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타자들은 투수의 몸쪽 바깥쪽 변화구나 유인구에 많이 속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12초 룰'이 투수에게 적용된다. 이 규칙은 투수가 12초 내에 공을 던져야하며 만약 던지지 못하면 1차 경고가 주어지고, 두 번째에는 볼로 인정한다. 이 경기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타자들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공격야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롯데 자이언츠의 송승준 투수는 "12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삼진 아웃되기 보다는 타자들이 치고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타격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5회 종료 후 실시하던 클리닝타임을 폐지하고 3·5·7회에 간단한 그라운드 정비시간을 갖기로 하고, 경기 스피드업의 기존 조항을 강력히 시행해 경기 시간 단축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그린베이스볼 실천에 앞장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한 관계자는 "12초 룰 적용으로 경기가 빨라짐에 따라 팬들은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린스포츠로 전환해 야구 용품으로부터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kr

지난 14일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LG의 이대형이 2루 진루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하, 연예계 전격 복귀

가수 겸 배우 하하(본명 하동훈)는 지난 11일 소집해제된 후 연예계로 복귀했다.

그는 군입대전 고정 출연해왔던 '무한도전'을 비롯해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도 출연이 잠정 확정된 상태며, SBS의 토크쇼에 절친한 사이인 가수 MC몽과 함께 진행자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그는 지난 2008년 2월 입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간 복무해왔다.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kr

## 영화 '비밀애' 25일 개봉

배우 유지태와 윤진서 주연의 영화 '비밀애'가 오는 25일 개봉한다. 류훈·권지연 감독의 영화 '비밀애'는 두 쌍둥이 형제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매혹된 한 여자의 치명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는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진우(유지태 분)를 간호하며 하루하루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던 연이(윤진서 분)에게 그의 동생 진호(유지태 분)가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kr

# '지붕 뚫고 하이킥'이 남긴 것

## 황정음, 신세경 광고계 샛별로 급부상

MBC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하 지붕킥)'이 지난 19일 종영됐다. 이 시트콤은 서울 성북동에 중소식품회사 사장 순재의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지난해 9월 7일 시작해 총 121부작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붕킥'은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었다. 또 지난 1998년 SBS '순풍산부인과'와 2007년 '거침없이 하이킥'을 제작한 김병욱 PD가 나서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아니나 다를까 회가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자극하는 스토리와 스타들의 인기가 급부상하는 발판이 됐고 20%대에 육박하는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먼저 '지붕킥'으로 큰 덕을 본 스타는 황정음과 신세경이라고 볼 수 있다. 황정음은 극중 의사 최다니엘(이지훈 분)의 여자친구로 등장해 발랄하고 잘 노는 서운대 3학년생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10여개의 CF 모델로 섭외가 돼 2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청순글래머'라는 신조어 열풍을 일으킨 신세경은 볼륨감 있는 몸매를 바탕으로 청순한 이미지의 젊은 가정부로 열연을 펼쳤다. 이 시트콤을 계기로 그녀는 화장품 광고 모델계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다.

'지붕킥'은 이른바 '똥구빵꾸 사건'을 통해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작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극 중 정해리(진지희 분)가 자주 하는 말 '빵꾸똥꾸'를 방송법 제 100조 1항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음날 YTN뉴스 앵커가 이 소식을 전하는 중 웃음을 터뜨린 것.

이 시트콤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연기자들은 영화 캐스팅도 이뤄졌다. 최다니엘은 '시라노'에 출연이 확정됐고, 황정음과 윤시윤은 '고사2'에 캐스팅돼 올해 안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kr

# 톱스타들의 스크린 귀환

## 이준기·김태희·고수 등 영화 컴백

브라운관에서 인기를 모은 톱스타들의 스크린 복귀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이준기와 김태희는 영화 '그랑프리'에 출연을 확정했으며, 고수도 강동원과 함께 영화 '초능력자'로 스크린 나들이를 한다.

지난해 방영된 MBC '히어로' 이준기와 KBS2 '아이리스'의 김태희가 영화 '그랑프리'를 통해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이 작품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양윤호 감독이 맡아 기수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SBS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고수는 영화 '초능력자'에서 배우 강동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이 영화는 초능력자(강동원 분)가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임규남(고수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떠오르는 신예 스타인 SBS '그대 웃어요'의 이민정과 MBC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최다니엘은 영화 '시라노'에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조승예 기자
sysy@etoday.kr

# 한효주 주연 '동이' 22일 첫 방송

## '대장금', '허준', '이산'에 이은 이병훈 PD 차기작

지난해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통해 스타 반열에 올라선 한효주의 차기작 '동이'가 2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MBC 창사 49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동이'(극본 김이영 / 연출 이병훈, 김상협)는 조선조 제21대 영조임금의 생모이자 19대 숙종임금의 후궁이었던 천민출신 여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녀의 아들 영조임금의 극적인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동이'의 연출을 맡은 이병훈 감독은 전작 '대장금', '허준', '이산' 등에서 각각 보여준 음식, 의술, 미술에 이어 이번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워낙 대작이고, 타이틀 롤인 동이 역을 맡게 됐으니 정말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잘 하려고 노력하되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되니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조승예 기자
sysy@etoday.kr

5평 오퍼상에서 단 한차례 외부투자 없이
매출 2000배 성장신화를 쓰다

역발상, 디테일, 시스템으로 업계 1위에 오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장성덕 사장의 도전 스토리!

서른다섯, 잘 다니던 삼성물산을 때려치우고 산이 좋아 시작한 5평 오퍼상. 생선박스 뒤지던 열악한 환경에서 6년 만에 업계 지존이 되기까지. "10년 후 뭘 먹고살까?"를 고민하는 3040 직장인부터, 불황에 허덕이며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들까지, 힘을 내어 뛸 수 있는 가슴 뜨거운 메시지!

▶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은?

- 대한민국 1위 등산/아웃도어/캠핑 온라인 쇼핑몰(www.okoutdoor.com)
- 경제불황 속에서도 매해 200%의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
- 전세계 5백여 브랜드, 5만종 이상의 제품을 유통하는 대표 카테고리 킬러샵
- 선진국형 유통혁신, 100% 완전 사입체제를 통한 차별화 전략
- 국내 최대 규모 대형 직영매장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망 체제
- 등산, 아웃도어용품 국내 최저가격 130% 보상제 실시
- 정품만 판매하는 당당한 쇼핑몰, 위조상품 300% 보상제 실시
- 판매에만 급급하지 않는 사후관리 시스템, 3년 A/S 책임 보장제
- 고객서비스의 혁신, 게시판 답변지연 보상제, 실수 보상제 실시
- 전문 브랜드 국내 유통, 직수입, 생산의 3박자 유통, 판매 체제
- 신용의 기업, 5백여 협력업체에 대한 즉시 결제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기업

장성덕 지음 | 300페이지 | 위즈덤하우스
내용문의 031-936-4040

* 판매에 따른 인세 전액은 소년소녀가장에게 기증됩니다. * 전국 주요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예스24, 교보문고 자기관리,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예스24·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오케이아웃도어닷컴에 OK는 없다

# 신한금융지주회사 12개 계열사 균형성장 최대 강점

신한금융그룹의 모태는 신한은행이다. 1982년 제일투자금융의 이희건 회장을 포함,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은행설립위원회에서 김세창 신한은행장을 초대 행장으로 영입하고 자본금 250억원, 점포 3개로 시작 했다.

당시 김 행장은 외환은행 이사,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한국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내로라하는 금융전문가였다.

이 때까지만 직원들은 28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설립 후 2년 만인 1984년 국내 최초로 CMF 수신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1985년 6월 동화증권(현 신한증권)을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1988년 지금의 서울 중구 태평로인 신한은행 본점을 신축, 이전했으며, 1989년 11월 주식에 상장됐다.

신한은행의 눈부신 활약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된다. 1991년 신한리스(현 신한캐피탈)을 설립하고 신한은행 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PC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무인점포 시스템을 개설, 365일 고객들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텔레뱅킹 서비스와 신한캐피탈 코스닥 시장 등록, 은행 총 수신 20조원을 돌파 하는 등 국내은행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갔다.

이후 2000년 이전까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시장에 도입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계열사를 늘리고 본격적인 지주회사 설립에 나선다.

2001년 신한맥커리금융자문을 설립했으며 2001년 9월 지금의 신한금융지주를 설립 출범시켰다. 이후 2002년 굿모닝증권을 인수하고 제주은행 자회사 편입, 신한카드 설립, 신한신용정보 설립,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신한신용정보 지주회사 편입,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출범하는 등 한 해 동안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준비했다.

### 2004년 조흥은행 인수 후 비약 발전

신한금융이 거대 금융사로 발돋움 한 것은 2004년부터다. 2003년 100년 전통의 조흥은행을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 계약을 끝내고 2004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것. 이 결과 총자산 160조원을 거느리며 자산순위로는 국민은행에 이어 2위 금융회사로 우뚝섰다.

당시 신한은행은 조흥은행 인수를 통해 주당순자산가치(BPS)가 1만3028원에서 1만3699원으로 6% 가까이 늘어났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34배에서 1.66배로 높아지는 등 우량 자산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후 2004년 신한프라이빗에쿼티와 굿모닝신한증권(신한금융투자)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다음해인 2005년 신한생명보험을 설립했다. 신한금융은 2007년 LG카드를 인수하면서 또 한번 금융빅뱅을 리드했다.

신한카드를 분사한지 1년만에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아시아 1등 카드로 발돋움 한 것. 이후 신한카자흐스타은행과 아이타스, 신한케이티에프모바일카드, 신한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캐나다 신한은행 등을 잇따라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아울러 지난 해 1월에는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을 통합 출범시켰으며 이제는 총 자산 300조원이 넘는 국내 2대 금융지주사로 우뚝서게 됐다. 신한금융지주의 전체 지배구조를 보면 총 12개의 자회사와 2개의 모회사를 가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신용정보, 신한아이타스, 신한프라이빗에쿼티, SHC메니지먼트 등 9개의 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은행 69.9%,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65%, 신한맥쿼리금융자문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신한마이타스 지분 89.6%, 신한KT모바일카드 50%를 각각 보유중이다.

### 은행자산 233조…그룹 70% 차지

신한금융의 가장 큰 계열사는 단연 신한은행이다. 2009년 말 현재 총 자산이 신한금융 자산의 60~70%에 육박한 233조원에 달한다. 신한카드 역시 242조원의 넘는 총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둘째아들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신한카드는 LG카드 합병 1년전 신한은행과 분사돼 수 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면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 1등 카드로 성장했다. 총 자산은 32조원으로 규모면에서는 은행과 카드를 넘지 못하지만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신한생명도 눈에 띈다.

신한생명은 지난 해 17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창립 이래 최대 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금융위기로 보험업계 전반적인 영업조직과 판매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조직 확충 등 견실한 조직 구축을 기반으로 신계약 실적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마켓쉐어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해 9월 굿모닝신한증권의 사명이 변경되면서 탄생했다. 신한증권에서 첫 출발한 후 굿모닝증권을 M&A하면서 지금의 면모로 자리 잡은 것. 특히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증권'이라는 사명을 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한프라이빗어쿼티는 금융권 최초의 프라이빗어쿼티 펀드 전문운용사로, 출자약정금 3000억원 규모의 신한-국민연금 제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다.

이 곳은 신한금융그룹의 풍부한 기업고객 기반과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PEF 전문운용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화된 투자전략과 선진투자기법으로 고객에게 장기-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캐피탈은 선박, 인쇄기, 자동차 등 범용성이 높은 기계, 설비의 리스금융과 할부금융, 대출, 팩토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스, 기업구조조정업무(CRC), 벤처투자 등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다. 1991년 4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설립돼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 2002년 신한투자신탁운용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됐으며 현재 신한은행이 100%주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지난 1991년 설립, 금융 IT서비스를, 신한맥쿼리금융자산은 기업 및 고객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C메니지먼트는 (구)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다. 신한카드의 자산을 아직 보유중이며 현재 직원 1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정식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청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주사들의 균형성장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수십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의 80~90% 수익은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우 은행-카드 등 2개 자회사가 서로 분기 및 연도 실적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무난한 실적을 달성했다. KB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것도 역시 지주사들의 균형성장 때문이다. 라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흥은행과 LG카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이같은 균형성장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렇다고 신한금융이 여기서 만족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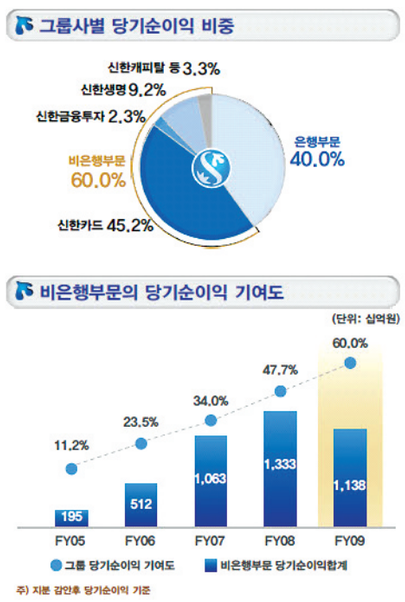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 되는 만큼 하나-KB금융이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우리금융지주가 대등 합병이 된다면, 신한금융은 자연스럽게 하나금융에도 밀리는 현상이 초래된다. 여기에 KB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한다면 규모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조흥-LG카드 인수 이후 더이상 국내 M&A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아직까지 거친 폭풍 속에서도 탄탄한 내실을 기초로 전진해 나갔지만, 금융별 대등합병이 본격화 된다면 흐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신한카드를 제외하고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고른 육성도 신한지주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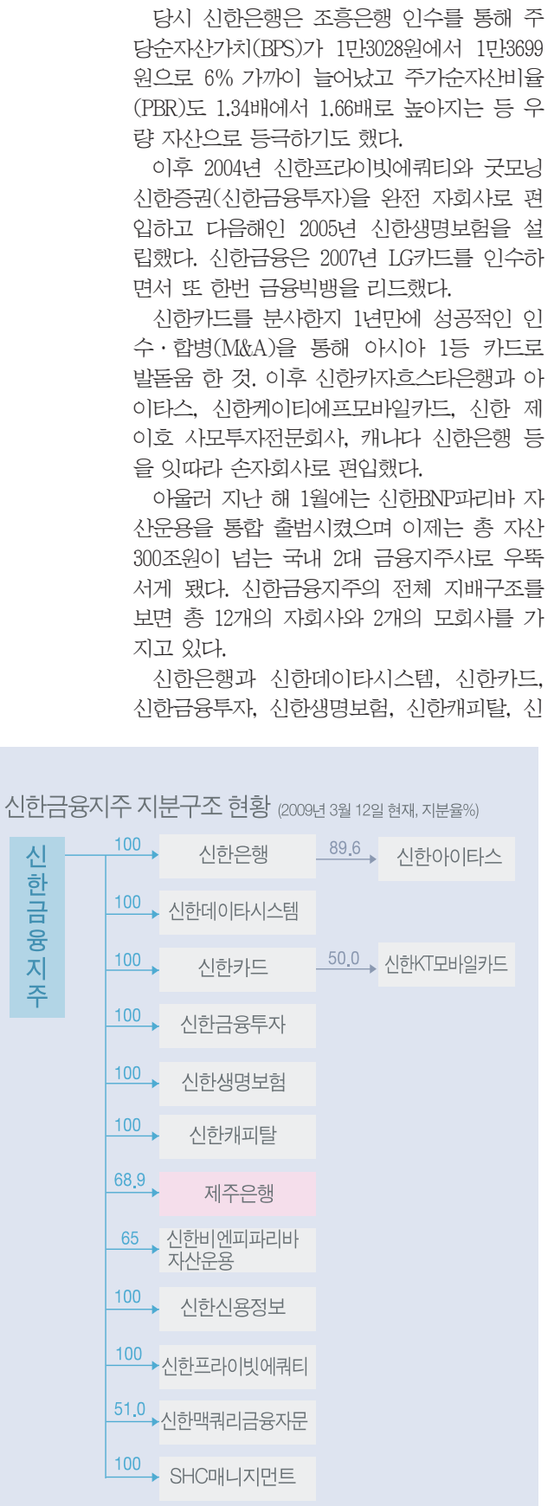
자본금 250억원에 점포 3개, 직원 280명에 불과했던 소형은행을 국내 2위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동안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라 회장. 금융권의 메가뱅크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또 다시 어떤 참신한 리더십으로 신한금융을 최고 금융사로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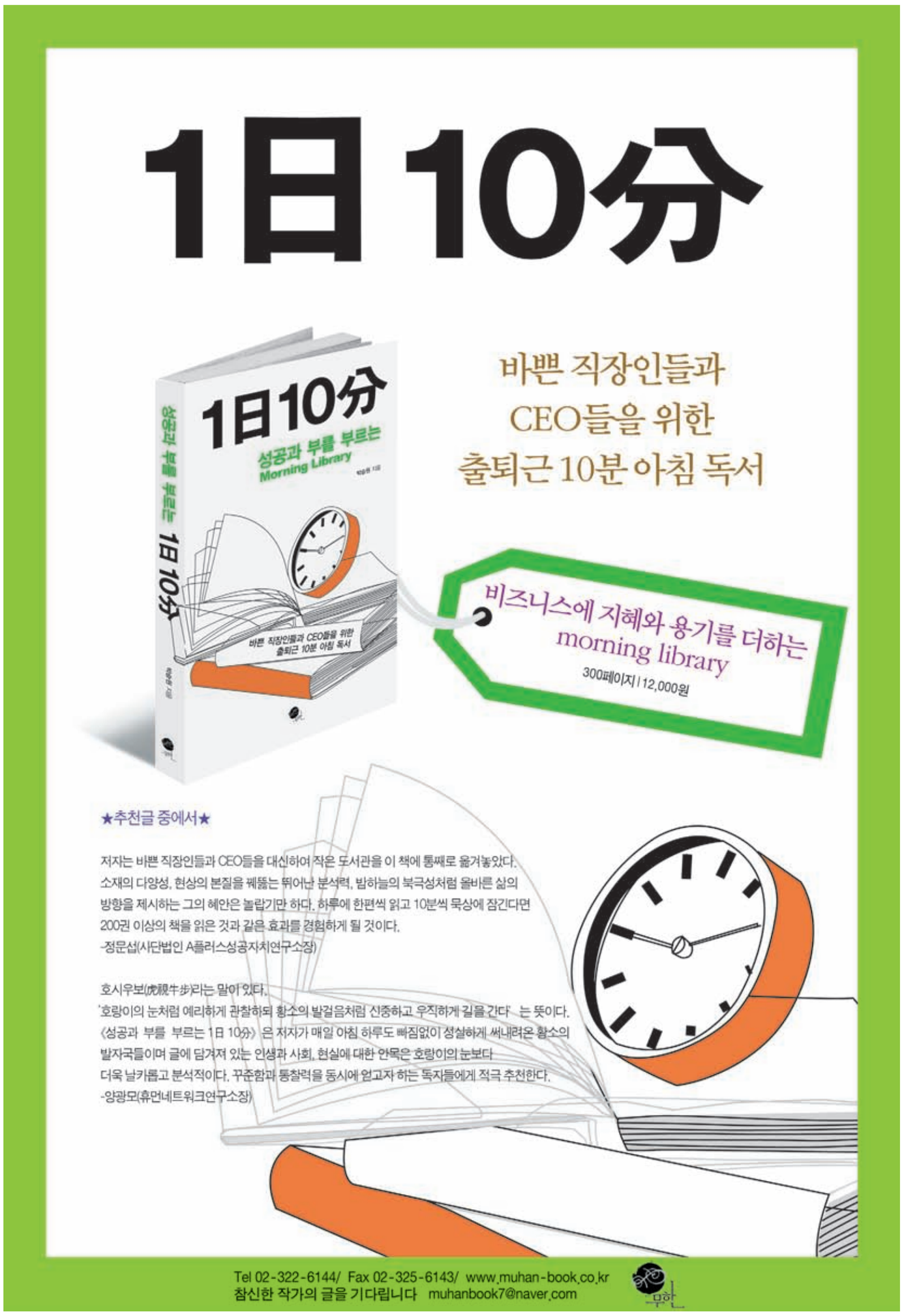
## 은행-카드 순익창출 쌍두마차 …글로벌 메가뱅크 성장 과제




### 신한금융지주 지분구조 현황 (2009년 3월 12일 현재, 지분율%)







〈제 6화 〉후계자 양성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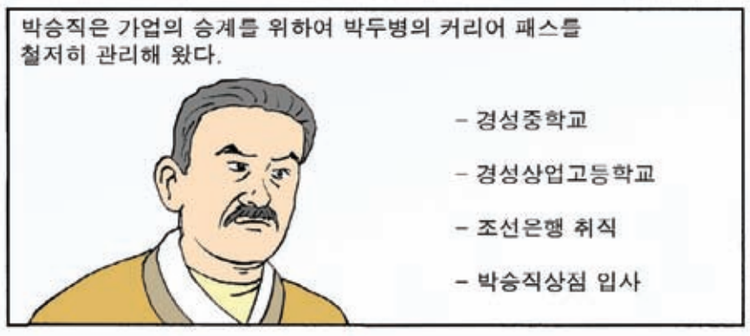
DOO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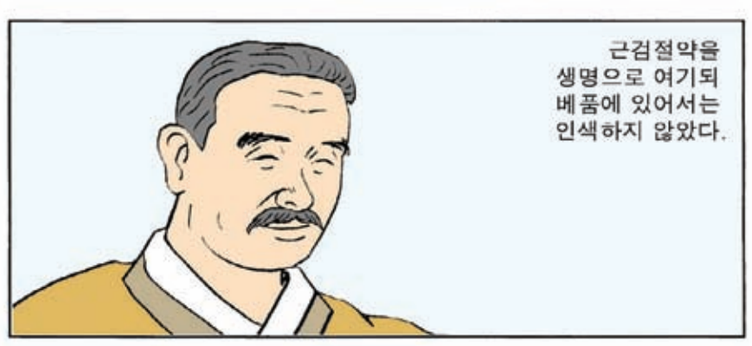
| 두산그룹편 |

#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 연강 박두병 〈제 6화〉 글 · 만화 유영수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안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강 박두병 회장이 자주 인용한 헤르만 헤세의 말)





박승직 창업주와 경성상공협회 회원들 (앞줄 우측에서세번째가박승직)

신나는 경제, 생생한 뉴스 이투데이

이투데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모든 독자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뉴스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부자가 되게하는 정보가 있는 뉴스, 이투데이와 함께 멋진 하루를 시작하세요

Economic media

이투데이 www.e-today.co.kr

# 이크레더블, B2B 전자상거래의 강자 '작지만 강하다'

## R&D핵심 경쟁력 무기로 시장장악 노려…각자 대표체제 유지
## 정부 지원 기반 'ITS 및 u-City 구축사업'으로 매출 극대화

이크레더블은 작지만 강한 회사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 신용인증서비스와 e-Marketplace사업(TAMZ서비스)을 영위하고 있는 B2B 서비스의 선두 주자다.

특히 신용인증서비스 부문은 구매자 중심형의 B2B시장에서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용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제 2의 캐시카우(Cash Cow)로 초고속 성장이 가능한 TAMZ사업 등 B2B 컨텐츠 서비스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 작지만 아주 매력적인 알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이 25%에 이른다. 게다가 46%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으로 고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 B2B 전자상거래 패러다임 변화 주도

이크레더블의 신용인증서비스는 대기업이 효율적인 전자조달(구매) B2B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공급)업체에 대한 기업의 재무, 비재무적인 제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신용인증서의 형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컨텐츠 제공 서비스다.

신용인증서비스는 전자신용증서, 신용모니터링 서비스(실시간), 대기업 B2B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산연동, 전자신용증서 관리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외감기업 이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 및 융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의 개정시행으로 약속어음의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게 의무화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의무화가 되는 등 기업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23만7634건(13조5774억원)으로 2008년도 4만4349건(4조5676억원)에 비해 435.8% 증가한 19만3285건(9조98억원 증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크레더블의 성장세는 가속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어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개정,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해 이크레더블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만기가 도래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기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 물품 구매기업(대기업)이 대출금을 갚는 대출방식이다.

법률상 대출을 받는 주체가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판매기업만 불이익을 받고 구매기업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크레더블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매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판매한 기업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크레더블은 신용보증기관의 전자보증과 금융기관, 판매기업, 구매기업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기업의 기업정보 및 신용도를 온라인 컨텐츠로 제공 하는 DNA서비스와 중소기업간 거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과 결제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B2B 전자상거래 서비스(TAMZ)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전자상거래로 진행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크레더블이 제공하는 DNA서비스와 TAMZ서비스의 보다 빠른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rketplace사업은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공간으로서 다수의 구매기업과 판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기업관련 정보를 획득, 금융 등의 부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이버장터다.

국내에서는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의 'K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한 서비스가 새로운 모델로 시도되고 있다.

TAMZ서비스는 전자상거래보증 제등을 기초로 구매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e-Marketplace서비스로, 주로 대기업의 공급망 하에 있는 1차 협력업체가 구매자가 되고 2차 협력업체가 판매자가 되는 'Q구매자 기업의 중계형' B2B e-Marketplace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이 옥션이나 G마켓을 이용하듯 기업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유통 마진을 뺀 가격에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오픈마켓을 만든 것이다.

TAMZ 서비스는 대기업 입장에선 1차 협력업체 부도 리스크 사전관리 및 대위변제액 최소화가 가능하다.

1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무담보·무이자의 구매자금 유동성 확보 및 절세효과(0.4% 법인세 감면)를 거둘 수 있다.

2차 협력업체는 100%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및 안정적 매출 확보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총 이용수수료의 7%대의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메리트를 고려해 볼 때 TAMZ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크레더블은 내년 1분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시 필수적인 신용정보서비스(DNA)와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운영과 결제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TAMZ)를 연계한 프리미엄 포털서비스 '위더스폴'도 준비 중이다.

###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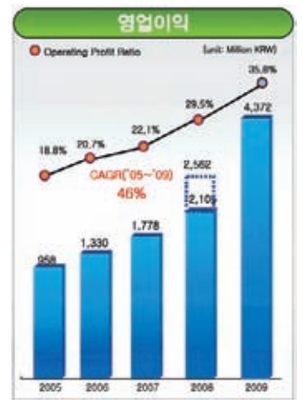
이크레더블은 중국 최대 신용정보회사인 싸이노트러스트사(SINO-TRUST)와 사업제휴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50대 제조업체의 중국내 145개 생산법인과 소싱기업에 대한 DNA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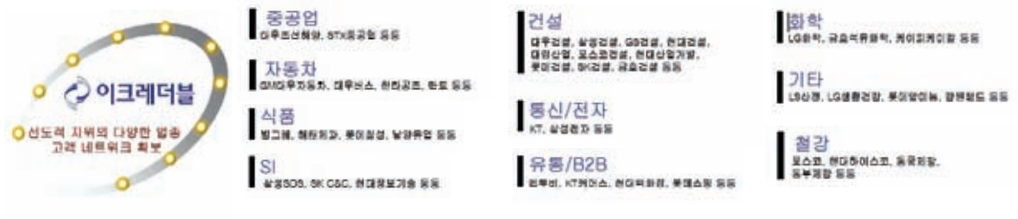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중국의 업종별 대표 대기업(500여개)에 DNA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다.

이크레더블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의 대기업들에게도 채널을 확대해 중국내 DNA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희 기자
chaosbut@e-today.co.kr



▲대기업 380여 개사, 협력회사 36,000여 개사의 대 고객군 형성




Interview **박찬성** 대표

## "中 인증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겠다"

지난 2009년, 이크레더블은 영업이익이 43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8억원에서 2009년 37억원으로 증가했고, 매출액 또한 65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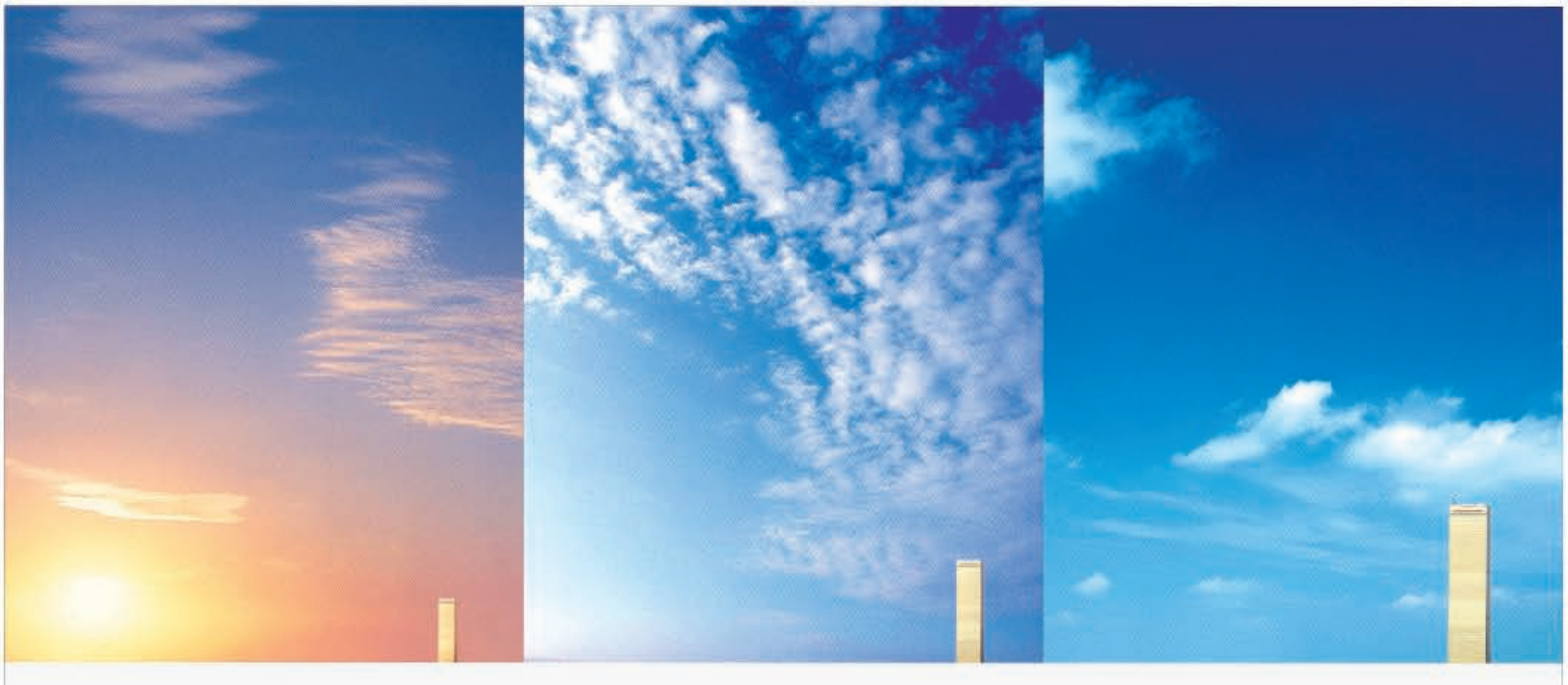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박찬성 대표는"신용인증서비스 및 B2B 마켓플레이스 서비스(Market Place Service) 매출이 증가했다"며 "특히 마켓플레이스 서비스(Market Place Service)의 거래금액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가 취득을 진행 중인 신용조회업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이사는 "올해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의 대기업들에게도 채널을 확대해 중국내 DNA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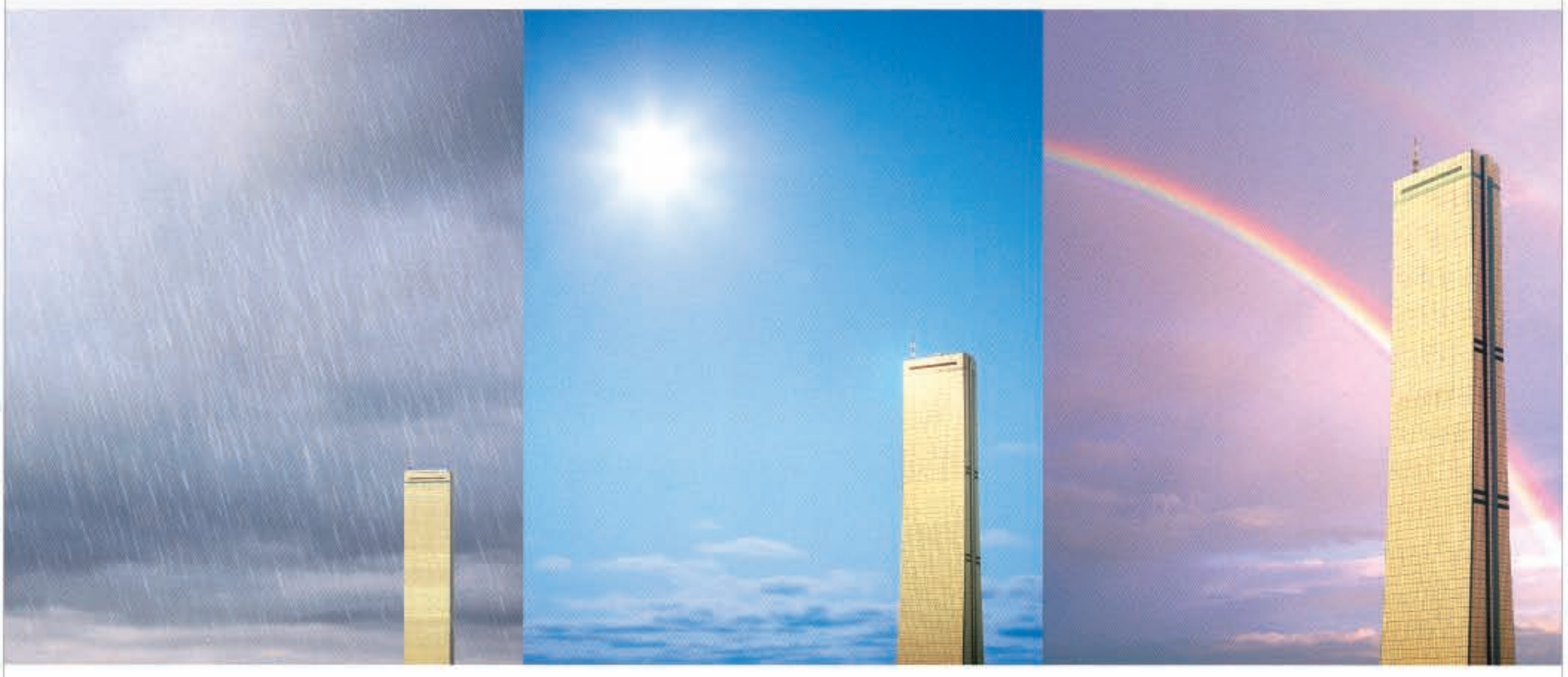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 채널만 연결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중국에 머물지 않고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0년 3월 17일,
# 대한생명 상장!

## 고객의 믿음에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